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5월호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 청남 회장단,
초등회 회장단 보좌
세 개의 성전 신축 발표



© 그레그 올슨 복스 이미지

엠마오로 가는 길, 그레그 올슨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누가복음 24:13, 15, 30~32)

여성 총회

- 8 우리의 가정을 빛과 진리로 채웁시다
첼렐 에이 에스플린
- 11 주님 가족 주셨네
캐롤 엠 스티븐스
- 14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보니 엘 오스카스
- 17 보혜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토요일 오전 모임

- 22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6 행복의 계획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9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린다 케이 버튼
- 32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36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 39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엘 톰 페리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43 교회 직원 지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45 2014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케빈 알 저건슨
- 45 2014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 46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50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54 복음의 음악
월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
- 56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 59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 62 주는 나의 빛
쿠엔틴 엘 쿡 장로

신권 총회

- 67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
엠 러셀 밸라드 장로
- 70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77 아버지-우리의 영원한 운명
래리 엠 깁슨
- 80 진실함에 대하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84 신권과 개인 기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88 신권—성스러운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91 성전의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93 다시 찾는 신앙
로즈메리 엠 워슨
- 96 주님을 찾으라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 98 여전히 경이롭습니까?
제럴드 코세 감독
- 101 탕자를 기다리며
브랜트 에이치 닐슨 장로
- 104 하나님 지혜와 사랑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107 은혜의 은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111 선택의지를 보호하고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14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 117 복음의 영원한 관점
라파엘 이 피노 장로
- 119 나라가 임하시오며
닐 엘 앤더슨 장로
- 123 책임질 수 있다면
조지 에프 제블로즈 장로
- 126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조셉 더블유 시타티 장로
- 129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 72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133 연차 대회 일화 색인
- 134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 136 교회 소식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십시오.
이번 연차대회 특집을
읽을 때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읽는다면
개인적인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lds.org/go/5151320를
방문하셔서 이번 대회의
연사들을 통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제185차 연차 대회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저녁 여성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린다 케이 버튼.
 개회 기도: 비벌리 텅기.
 폐회 기도: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음악: 유타 주 솔트레이크, 머레이, 카마스, 파크 시티 스테이크의 초등학교, 청년 및 상호부조회 연합 합창단. 지휘: 에린 파이크 톨. 오르간 반주: 린다 마르케츠, “군도다 그 기조”, 찬송가 35장. 특별 음악, “The Family Is of God”, 날리, 자브리스키 편곡, 미출판. “From Homes of Saints Glad Songs Arise”, 영어 찬송가, 29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메들리: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찬송가, 151장. “Our Savior’s Love”, 영어 찬송가 113장, 톨 및 마르케츠 편곡, 미출판.

2015년 4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티모시 제이 다익스 장로.
 폐회 기도: 래리 제이 에코 호크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즈워즈와 클레이 크리스텐슨.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자브리스키 편곡, © HolySheetMusic.com.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머피 편곡, 미출판.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윌버그 편곡, 잭맨 출판.

2015년 4월 4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진 에이 스티븐스.
 폐회 기도: 랜디 디 핑크 장로.
 음악: 유타 데이비스, 위버 카운티 청년 독신 성인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 지휘: 소냐 스펠링.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케츠.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출판.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머피 편곡, 미출판.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엘리엇 편곡, 잭맨 출판.

2015년 4월 4일 토요일 저녁 신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데이비드 엘 벡.
 폐회 기도: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신권회 합창단. 지휘: 로널드 스타엘리.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즈워즈. “영광의 시온 세우신 하나님”, 찬송가, 11장, 톰 더햄 편곡, 잭맨 출판. “이 즐겁고 기쁜 날에”, 찬송가, 38장, 스타엘리 편곡, 미출판.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찬송가, 59장, 스타엘리 편곡, 미출판.

2015년 4월 5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린다 에스 리브즈.
 폐회 기도: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 및 리차드 엘리엇. “기뻐하라 너희 주의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주님 다시 부활했네”, 찬송가, 123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Consider the Lilies”, 호프먼, 리온 편곡, 잭맨 출판.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예수님 부활하셨네”, 어린이 노래책, 44쪽, 머피 편곡, 미출판. “주님 부활하셨네”, 찬송가, 12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15년 4월 5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에스 기포드 닐슨 장로.
 폐회 기도: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린다 마르케츠.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쪽, 호프하인스 편곡, 미출판.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 노래책, 36쪽, 머피 편곡, 미출판. “Lord, I Would Follow Thee”, 영어 찬송가, 220장, 머피 편곡, 미출판.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인터넷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대회 후 6주 내에 배부 센터에서 연차 대회 음성 녹음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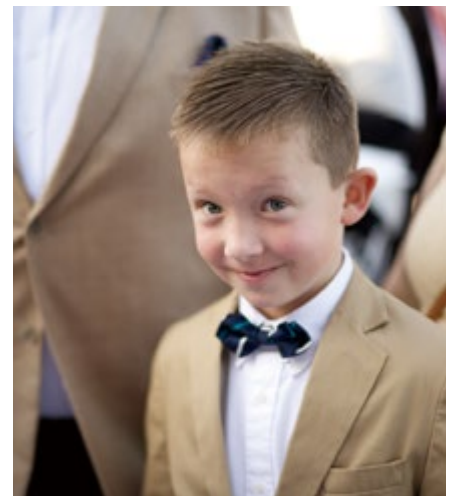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사진 촬영: 코디 벨
 뒤 사진 촬영: 레슬리 닐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에서 찍은 사진의 작가: 웬든 씨 언더슨, 코디 벨, 자네 빙햄, 에일 보즈스, 랜디 콜리어, 웨스톤 콜튼, 마크 데이비스, 크레이그 디몬드, 나다니엘 레이 에드워즈, 브랜든 폴란드, 애슬리 라르슨, 어거스트 밀러, 레슬리 닐슨, 브래드 슬레이드, 크리스티나 스미스. 해바라기 사진: 쿠엔틴 엘 쿡 장로 가족 제공. 기내 사진: 크레그 마샬 제이콥슨. 미국 미네소타주 우드베라: 산드라 알퀴스트. 미국 오리건주 맥민빌: 제이드 웨스트. 코트디부아르 아버지: 루시엔 및 아가타 아푸에, 필리페 및 아벨리스 아사드. 프랑스 페르피냥: 르네 카스타노. 핀란드 헬싱키: 쿠카 프리스트롬. 남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크리스토펠 골든 가족 제공. 바티칸 시티: 후마눔. 태국 방콕: 사티 카이바이바타나. 인도 뭍바이: 웬디 키리.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알: 로렌 루시우. 멕시코 캄페체 시우다드 델 카르멘: 헨터 매뉴엘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 뉴엔 산 마르틴 데 로스 안데스: 폴튼 몬드라곤. 홍콩, 네셔널 지오그래픽 경도 사진: 브라이언 얀. 브라질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 나탈: 클레베르 텍스. 영국 런던: 카미 웨딩. 77쪽: 삽화 브라이언 콜.



2015년 5월호, 제52권, 제5호
리아호나 12565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티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블러튼, 로리 플러, 게릿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키티, 질 해커, 살라 라카발, 인디 앤 레빗,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볼 벤덴버그, 머시아 윌슨

편집 인턴: 엘리스 톰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들리, 시 캄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요기,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데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요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버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티나스 카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진 인턴: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i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국,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호, 제52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i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율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y 2015 Vol. 39 No. 5.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i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닐 엘 앤더슨, 119
말린 에이치 옥스, 3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46
테일 지 랜렌드, 5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50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43, 80, 107
라파엘 이 피노, 117
래리 엠 김슨, 77
러셀 엠 넬슨, 129
로버트 디 헤일즈, 111
로즈메리 엠 워웁스, 93
린다 케이 버튼, 29
마이클 티 링우드, 59
보니 엘 오스카슨, 14
보이드 케이 패커, 26
브랜트 에이치 닐슨, 101
브룩 피 헤일즈, 45
엘 톰 페리, 39
엘 휘트니 클레이튼, 36
엠 러셀 벨라드, 67
올리세스 소아레스, 70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54
제럴드 코세, 98
제프리 알 홀런드, 104
조셉 더블유 시타티, 126
조지 에프 제볼로즈, 123
첼렐 에이 에스플린, 8
캐롤 엠 스티븐스, 11
케빈 더블유 피어슨, 114
케빈 알 저킨슨, 45
쿠엔틴 엘 쿡, 62
토마스 에스 몬슨, 88, 91
헨리 비 아이어링, 17, 22, 84
호세 에이 테제이라, 96

주제 색인

가정 복음 교육, 84
가족, 8, 11, 14, 26, 39, 50, 62, 101, 126, 129
가족 역사, 129
간증, 36, 67, 70, 80, 93, 101
개종, 32, 56, 93
결혼, 14, 26, 29, 39, 50, 67, 126
검슨, 59, 84
경전 공부, 98, 129
계시, 84
관용, 111
관찰, 117, 119
교회 부름, 59, 88
교회 성장, 45, 119
구원의 계획, 14, 26, 50, 111, 117, 126
금식, 22, 67, 84, 129
기도, 22, 84, 91, 114
기쁨, 26, 93, 96
기술, 67, 96
기적, 98, 119
단합, 11, 62
데이트, 67
도덕성, 26
동정심, 11, 17
두려움, 46
모성, 14
물문경, 8, 114
봉사, 22, 59, 80, 84, 129
부모 본분, 14, 39, 50, 54, 126, 129
부활, 104, 107
부활절, 91, 104, 107
빛, 8, 36
사랑, 11, 26, 29, 50, 62, 80, 96, 101, 104
선교 사업, 91, 111, 126
선택의지, 36, 70, 111, 123
성신, 8 17, 54, 84, 98, 111
성약, 11, 17, 29, 46, 59, 114, 129
성전, 26, 91

세미나리, 67
소망, 36, 101, 117
속죄, 17, 46, 50, 56, 62, 70, 96, 104, 107, 123
신권, 77, 84, 88
신성한 본질, 11, 126
신앙, 36, 46, 62, 84, 93, 98, 101, 114
아담과 이브, 26, 46, 50, 104, 117
아버지 본분, 14, 29, 77
안식일, 36, 62, 67, 129
역경, 11, 17, 36, 62, 91, 96, 117, 119
영생, 114, 117
예수 그리스도, 17, 36, 46, 50, 62, 67, 77, 80, 91, 93, 96, 101, 104, 107, 111, 114, 119
외설물, 67, 70
우선순위, 32
우정 증진, 93
유혹, 70
은혜, 36, 46, 50, 59, 80, 104, 107
의무, 88, 123
의식, 36, 93, 101
인내, 114
인내, 54, 101, 129
재림, 119
제자 정신, 32, 59, 67, 80, 114, 123
조셉 스미스, 8 111
종교 교육원, 67
종교적 자유, 111
진리, 8
집, 8, 14, 54, 62
청년 성인, 67
축복, 22, 36, 88, 91
친절, 29
평화, 17, 46, 91
하나님 아버지, 11, 77
활동 촉진, 93, 101
회개, 26, 56, 107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십 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연차 대회 말씀 주제는 세상의 권위자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32쪽) 여성 총회로 시작하고 부활절 일요일에 끝 마친 영감으로 가득찬 연차 대회에서 연사들은 가족, 금식, 성전 사업, 제자 정신, 안식일, 구주의 속죄, 그리고 다른 많은 복음 원리에 대해 가르쳤다.(3쪽 참조)

다음은 연차 대회 중 몇몇 하이라이트이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코트디부아르 아버지,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및 태국

방콕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 그는 “이 지역과 성전들이 위치한, 전 세계에 있는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실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91쪽)

- 교회 회원들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다섯 명의 일원과 새로운 본부 청남 회장단, 그리고 새로운 본부 초등회 회장단 보좌를 지지했다.
- 연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3,114개의 스테이크 및 561개의 지방부에 회원 수는 약 1,530만 명이다. 작년에 세 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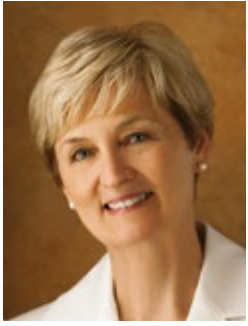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어 총 144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다.

- 연차 대회는 95개 언어로 통역되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혁신으로 세 분의 연사가 영어가 아닌 모국어로 말씀을 전했다. 부활절 주말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몇몇 연사는 구주의 부활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간증했다. “그분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93쪽) ■









체럴 에이 에스플린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가정을 빛과 진리로 채웁시다

우리와 우리 가족이 세상의 압력을 견디려면 빛과 복음 진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주 님 가족 주셨네”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이 가족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감에 찬 음악은 영이 우리를 빛과 진리로 채워 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몇 년 전의 경험을 통해, 빛과 진리로 채워진다는 개념은 저에게 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에 본부 청녀 이사회 임원들이 가르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 주제는 가족과 가정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청녀 지도자는 이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음료수 캔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빈 캔이었지만, 다른 캔은 개봉하지 않아 음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빈 캔을 짚었는데, 캔은 압력 때문에 구부러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손에 있던 개봉하지 않은 캔을 짚었는데, 그 캔은 모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빈 캔처럼 구부러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연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족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과 복음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누르는 세상의 외부 압력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에는 외부의 압력을 견딜 내부의 힘이 없기에 놀리는 대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이 세상의 압력을 견디려면 빛과 복음 진리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복음 진리를 희석하고 왜곡하며 파괴하고 우리를 그 진리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모든 것의 참됨을 계시하고 가르치는 성신을 은사로 받았습니다.² 이 은사의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해 자신이 아는 바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나누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빛과 진리로 채우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앞서 들은 후렴구 가사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가족을 주셨다”³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지상 작업장입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서로를 영적으로 강화하도록 도와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지상에 옵니다.

굳건하고 영원한 가족과 영으로 가득 찬 가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은 서로 다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고 상호함으로써, 영적인 지식을 향상시키도록 끊임없이



권고를 받습니다.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은 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한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꿈으로, 시현으로, 생각과 느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여쭙는 질문을 듣고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한 때에 응답될 것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⁴

이 권고를 잘 나타내 주는, 짧은 가족 역사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제 외증조부의 누님인 엘리자베스 스타헬리 워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 후에 남편과 자녀와 함께 네바다 국경 근처의 유타 주에서 살며 우편 취급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많은 여행자가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온종일 여행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어렵고

지치는 일이었으며 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를 가장 속상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집에 오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까지 언제나 몰몬경은 참되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고, 그의 메시지는 생명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생활은 그러한 믿음을 강화해 줄 만한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렀던, 박식하고 교육받은



똑똑한 일부 여행자들은 그녀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언제나 조셉 스미스를 돈을 목적으로 몰몬경을 지어내어 퍼뜨린 “교활한 사기꾼”이라 평했습니다. 그들은 “몰몬이즘은 헛소리”라고 주장하며, 그에 반하는 다른 의견은 어리석은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런 모든 말에 엘리자베스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일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도할 시간이 잘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종교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는 척해야 했으며, 자신의 종교를 옹호할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옹호할 수는 없으리라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의 가족은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할 시간이 더 생겼고, 주의를 빼앗기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지하실로 내려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의 고민, 즉 복음 및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을 헛소리라고 했던, 겉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관련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자베스는 꿈을 꾸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좁은 마차길 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그 길은 낮은 언덕 기슭으로 이어져 있었다. 언덕 중간쯤 되는 곳에서 한 남자가 아래를 보며 말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무릎을 꿇고, 땅 위의 구멍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청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청년은 마치 구멍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팔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청년이 몸을 숙이고 있는 구멍에서 치위 낸 듯한 돌로 된 뚜껑도 보였다. 길 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언덕 비탈의 두 남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꿈에서 매우 기묘한 인상을 받은 나는 바로 잠에서 깨어났다. … 누구에게도 내 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소년 조셉이 금판을 받을 때 천사 모로나이에게 가르침을 받는 장면임을 알고는 만족감을 느꼈다.”

1893년 봄, 엘리자베스는 솔트레이크시티에 가서 성전 헌납식에 참여했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꿈과 똑같은 장면의 그림을 보았다. 아마 색유리로 된 창이었던 것 같다. 쿠모라 산을 직접 본다고 해도, 이보다 더 사실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을 주는 장면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셨음을 확신했다.”

그 꿈을 꾸고 여러 해가 지난 후,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기 몇 달 전에 엘리자베스는 한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다. ‘네 간증을 땅에 묻어버리지 말라.’”⁵

몇 세대가 흐른 지금도 엘리자베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간증에서 힘을 얻습니다. 엘리자베스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치있게 여기는 진리를 조롱하고 반대하는 수많은 의심자들과 비판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혼란스러운 이야기와 모순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처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진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며, 특히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극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큰 빛과 진리를 구하기 위한 조용한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에 따라 살고 나누며 옹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구주의 빛과 진리로 채우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얻게 된다는 저의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에스플린 자매님은 2015년 4월 4일에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2보좌에서 해임되고 1보좌로 지지받았다.

주

1. “주님 가족 주셨네”, 가족은 영원해: 2014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2013), 28~29쪽.
2. 모로나이서 10:5 참조.
3. “주님 가족 주셨네”.
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음”,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21쪽.
5. Elizabeth Staheli Walker, “My Testimony, Written for My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fter I Am Gone,” 1939, 22-26,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Special Collections 참조. 문장 부호, 대문자 및 철자를 통일함.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님 가족 주셨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초 등회 노래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간결하고 순수한 진리만큼 아름답고 깊이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초등회 소녀들은 제가 이야기할 노래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초등회의 함께 나누는 시간에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앞서 들은 “주님 가족 주셨네”¹의 가사를 통해 우리는 순수한 교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도 배웁니다.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겐 가족이 있네 너와 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가족 선언문을 통해서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했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우리가 지닌 영원한 정체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 딸”²임을 알았습니다.

지상으로 필멸의 여정을 떠나왔다고 해서 그 진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가족들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전통적인 형태의 굳건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결혼 여부나 자녀 숫자,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소셜 미디어의 상태 메시지와 같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³

노래의 두 번째 소절은 첫 번째 소절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우리 모두 지상에 태어나 가족과 살며 배[웁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필멸의 삶이 필요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인 우리는]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⁴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전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시험받고, 시련을 겪고, 발전하기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⁵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발전은 그것을 겪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고통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어 보지 않았으며 편모의 책임을 이행하며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자녀의 죽음이나 불임, 동성애를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니다. 학대, 만성질환, 중독 등으로 고통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겪은 시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중에는 “스티븐스 자매님, 자매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세요!”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낱알이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 기도의 이유였던, **저의** 개인적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는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한 분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시며]”⁶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딸, 어머니, 할머니, 자매, 이모나 고모, 친구로서, 앞서 언급한 필멸의 시험을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얻는 기회란 자신의 시련에서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을 도우면서 동정과 연민으로 단합하는 것도 우리가 얻는 기회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그 길의 어려움을 아시며 어떤 슬픔과 낙담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구주는 진정 자애로우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구주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영원히 [지속]”⁷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⁸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애리조나 친리 스테이크 지역의 나바호 원주민 움막에 사시는 야지 자매님을 찾아뵙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의 환영을 받으며 안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형형색색의 액자에 넣어 벽과 탁자를 채운 가족들과 선교사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보았습니다. “야지 자매님, 손주가 몇이나 되시나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자매님은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매님의 딸인 옐로헤어 자매님을 바라보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손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우리는 [자녀들의] 수를 세지 않아요. 모든 어린이가 엄마를 ‘할머니’로 부르거든요. 엄마는 모두의 할머니시죠.”

야지 자매님은 자신의 사랑과 영향력을 본인의 생물학적인 가족에만 한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돌보며 지키는 가운데 자기 영향력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야지 자매님은 “여성이 [어린이]의 신앙을 굳건히 키우는 일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 생길 가족에 힘을 불어넣는 일”⁹이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노래의 세 번째 소절 “가족을 주셨네 하나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은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을 더욱 깊이 있게 풀이합니다. 구주께서는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¹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선언문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의 딸들인 우리에게 신성한 본질, 영원한 정체성, 그리고 목적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지만 성약을 지키는 딸들로서 하나가 되길 바라시며,¹¹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분께 인봉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길 바라십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우리들] 하나님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¹² 침례의 물가와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받는 의식과 우리가 맺는 성약은 회장 이쪽과 저쪽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연결시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¹³ 기도했던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데 할애할 때, 우리는 더욱더 구주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필멸 동안 시험을 이기고 치유 받으며 하늘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은 노래가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랑 나눠 주시려 주님 가족 주셨네”**.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의 계획이며 당신 자녀, 즉 가족을 당신과 결속하는 계획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연결 바라시는 두 가지는 … 불멸과 영생으로, ‘이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합니다.’”¹⁴ 우리가 또한 타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눔으로써 당신의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때에 이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십 년 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전 세계를 돕고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받은 성스러운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 가족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영원히 중요하며, 그 계획의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악의 물결을 막고,



구주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형제들 곁에 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교회 여성들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떨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간청합니다.”¹⁵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속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가족 안에 성스러운 목적과 일, 장소, 역할을 지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를 위해 완전한 것을 소망하십니다.”¹⁶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주님 가족 주셨네”, 가족은 영원해: 2014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2013), 28~29쪽,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3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5. 리처드 지 스코트,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2쪽.
6. 이사야 53:4.
7. 모로나이서 7:47.
8.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5쪽.
9.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59쪽.
10. 교리와 성약 38:27.
11. Patricia T. Holland, “One Thing Needful”: Becoming Women of Greater Faith in Christ,” Ensign, Oct. 1987, 26~33 참조.
1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3. 요한복음 17:21.
14. R. Scott Lloyd, “God Wants His Children to Return to Him, Elder Nelson Teaches,” Church News section of LDS.org, Jan. 28, 2014, lds.org/church/news/god-wants-his-children-to-return-to-him-elder-nelson-teaches에서 발췌함.
15. 하워드 더블유 헌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57쪽; 또한 “교회의 여성들에게”,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96쪽 참조.
16. M. Russell Ballard, “Let Us Think Straight”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ug. 20, 2013); speeches.byu.edu.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년 회장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결혼, 부모의 본분, 가정의 수호자로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일조합시다.

소녀와 여성들이 함께한 이 훌륭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여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모인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최근에 저는 마리 매들레인 카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850년에 이탈리아로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들이 마리 가족에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을 당시 마리는 17세 또는 18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북부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고지대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보는데, 인근의 일부

목사를 포함한 성난 폭도가 집을 에워싸고 선교사들을 내보내라며 고향을 쳤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해칠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때 집 밖으로 당당히 나가 폭도에 맞선 것은 어린 마리였습니다.

폭도는 선교사들을 내보내라며 계속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마리는 손에 쥔 성경을 들어 올리며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장로들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두들 놀란 채로 서 있었다. ... 하나님이나와 함께하셨다.

그렇게 말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입도 뻥끗 못했을 것이다. 모두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약하고 바들바들 떠는 용감한 소녀 앞에 사나운 폭도는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목사들은 폭도에게 떠나자고 말했고,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소규모의 회중은 평화롭게 모임을 마쳤습니다.¹

대다수의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용감한 청년이 폭도 앞에 서서 용기와 확신으로 새로 찾은 믿음을 수호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으십니까?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난 폭도와 맞서야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교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족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정의 신성함과 가족의 필수적인 목적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모든 면에서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이 “가족: 세상에 주는 선언문”을 처음으로 읽으셨을 때, 우리는 이 계시적인 선언문에 감사해했고 그 명확성과 간결성, 진실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요즘 세상의 미디어, 인터넷, 학계, 텔레비전, 영화, 심지어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새로운 세상적인 신조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이 기본적인 선언이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세상의 철학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며,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약 20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 선언문에 담긴





원리는 오늘날에도 참됨을 간증합니다.

명백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누구의 삶도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지는 않으며, 일부 여성들은 가족 선언문에 묘사된 삶을 경험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형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최선을 다해 그 모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행복의 계획에서 맡은 책임이 있고, 주님의 눈에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아시며, 그 어떤 것도 충실히 성약을 지키는 이들을 막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를 위한 임무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때에 맞춰 움직이십니다. 이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는 주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둔다면 좋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성약에 충실하고 자애롭고 의로운 여성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딸들에게 이상을 추구하되 비상

계획은 세워 둘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선언문 발표 20주년을 기리는 올해에 저는 교회의 모든 여성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수호자가 되라는 도전 과제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귀에다 대고 이런 원리는 구식이고 제한적이고 더는 의미가 없다고 소리칠지라도, 마리 매들레인 카든이 용감하게 선교사들과 새로 찾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결혼과 가족, 남성과 여성의 신성한 역할,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가정의 중요성 등 주님이 계시하신 교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결혼 상태, 자녀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족 선언문에 설명된 주님 계획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원리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첫째, 남녀 사이의 결혼입니다. 경전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²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신권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어 의롭게 함께 노력하고 끝까지

성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며, 그 어떤 대중의 가르침이나 비난도 주님의 선언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의로운 결혼 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삶에서 축복을 구하며, 축복이 느리게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수호하고자 노력합니다.

수호해야 할 또 다른 원리는 부모의 신성한 역할에 대한 경의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생에서 목표 설정을 높게 하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딸들에게 그들이 뭔가를 성취해 낼 잠재력이 있으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배움을 좋아하고 교육을 받고 재능을 발휘하며 제2의 쿼리 부인이나 엘리자 알스노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아들과 딸들에게 이생에서 부모보다 더 영예롭고 고귀한 직함, 혹은 더 중요한 역할은 없음을 가르칩니까? 이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추구하도록 자녀를 격려하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을 존중하고 칭송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 막내 딸 애비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호할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비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직장의 날 발표회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와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 부모는 신청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었고, 애비는 신청서를 보내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 강연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발표회 날을 앞두고서 자기 신청서가 분실된 모양이라고 생각한 애비가 결국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직 위원회는 허둥지둥 애비가 가르칠 반을 찾았고, 두 명의 교사가 직장의 날 마지막 날에 애비를 초청해 반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발표를 하면서 애비는 다른 무엇보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 심리학, 종교, 교수법, 음악, 문학, 예술, 재정, 장식, 미용 기술, 운전, 운동, 요리 등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어머니가 매일 해 주시는 사랑 가득한 여러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카드를 쓰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애비는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부모가 되는 것을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일로 여기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애비는 올해에도 직장의 날 발표 신청을 했고 여섯 학급에서 발표해 달라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애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부차적인 일이나 필수적인 불편함 따위로 여기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아이가 자신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으면 해요.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면, 부모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여성과 어머니를 존경하는 데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시며, 특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그러하십니다. 지상의 어머니들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합시다. 어느 누구도 결코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성스러운 분들, 곧 하나님과 [지상의] 어머니는 창조와 사랑과 봉사에서 협력자로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³

우리가 일어나 수호해야 할 마지막 원리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조롱당하며 언급되는 한 단어를 격상시켜야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부입니다. 그렇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보혜사

가정을 꾸려나가는 역할은 남성이나 여성, 청소년, 어린이, 기혼자이든 미혼이든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편안치이자 성스럽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이 강하게 느껴지고 경전과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로운 가정을 만드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가정이 성전 다음으로 성스러운 곳이 되도록 가정을 수호합시다!

자매 여러분! 저는 이 후기에 제가 여성임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세대의 여성들도 누리지 못했던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혼, 부모, 가정의 수호자로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일조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용감하고 굳건하며 확고부동한 용사가 되어 그분의 계획을 지키고 그분의 진리를 다가올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Marie Madeline Cardon Guild, "Marie Madeline Cardon Guild: An Autobiography," cardonfamilies.org/Histories/MarieMadelineCardonGuild.html 또한 Marie C. Guild autobiography, circa 1909,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Utah 참조.
2. 교린도전서 11:11.
3. 토마스 에스 문슨, "보라 네 어머니라", 성도의 벗, 1998년 4월호, 7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위로하겠노라 맹세한 이들에게 보혜사인 성신을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밤 음악, 기도, 또 영감 어린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구주의 속성 중 하나는 끝없는 연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은 이들에 대한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매이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의 딸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매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위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알 때,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바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구하고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이란 짐을 지는 데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감미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¹

주님의 충실한 종이 삶에서 저야 할 짐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가벼워집니다. 죄의 짐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필멸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시련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이 삶에서

그런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약의
 회원입니다. 그분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크나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약을 맺고,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엘마는 물문의 물에서 전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약속을
 맺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엘마는 여러분이 맺은 것과
 똑같은 성약을 맺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라, 여기에 물문의 물이 있으니 (이는

그 물이 그렇게 일컬어졌음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깝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²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슬픔과 난관의
 짐을 지고 힘겹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위안을
 주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일을 도울
 힘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자신이 어떻게 짐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애통해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자신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와 주님의
 진정한 제자에게 주는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³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보혜사로 보내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섯 살짜리 어린 소년의 죽음으로
삼대에 걸친 가족이 슬픔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주님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는지를 볼 수

인도, 뭍바이

초청을 했을 때 기뻐고 평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부모를 위로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저희 집 거실로
모셨습니다. 밤공기가 찬지라 벽난로에 작은
불을 지피고 방을 덥혀 두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결한 말로 제가 그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만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짧은 메시지를 전한 후에, 저는
그들이 자기의 느낌을 말해 주는 동안
사랑으로 들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한 시간 동안 그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와 눈빛에서 그들이 성신으로
감화되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간결한 간증으로 전했습니다.
성신은 죄 없이 죽은 그들의 아들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에 이미 영생에 대한
소망과 동반되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부에게 따로따로 신권 축복을
하면서 그곳에 함께한 성신의 영향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혜사는 저와 그 부부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었고 힘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물문경에서 험악한 속박하고 억압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지은 고난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백성들도 간절히 구제를
간구했습니다. 제가 참됨을 알고 있는 그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⁴

저는 지난 몇 주간 제 삶에서, 그리고 짐이
가벼워지기를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성신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기적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큰 짐을 가볍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종종 그런 역할을
맡으시겠지만, 저도 “슬퍼하는 자들과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기]”⁵ 위해 주님의 성약의 종으로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소년의 조부모가 장례식 전에
자신들과 소년의 부모와 함께 만나자고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⁶

저는 수차례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을 강화하시는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짐을 덜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책임에 더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계명을 주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에서 구주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성신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받았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강해졌습니다. 슬픔이라는 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슬픔을 이겨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신앙이 커졌습니다. 부부의 힘은 그들이 그 힘을 구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생활할 때 끊임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것과 같은, 속죄에 대한 성신의 간증으로 욥 또한 짐을 질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⁷

끝까지 견딜 힘이 욥에게 생겼던 것은 바로 성신의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욥은 주변에서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채 슬픔을 견뎌 냈고, 신앙으로 고난을 겪어 낸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실제로 이생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기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⁸

욥이 삶의 한 과정인 그 시련을 견뎌 낼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있을 속죄에

대한 영의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버지는, 당신 아들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험한 길을 걷는 동안 위로가 될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신을 보내시어 여정에 오른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강화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열리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위로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랑스런 젊은 여성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애도를 표하고 할 수 있다면 위안을 주기 위해 장례식장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도 위로를 받기 위해 장례식장에 왔다고, 그녀의 첫째 아이가 최근에 사망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작은 여자 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내밀고 아기의 어머니에게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활기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이[Joy: 기쁨이라는 뜻—울긴이]예요. 슬픔 뒤에는 기쁨이 따르는 법이지요.”

그녀는 제게 간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유일하게 확실한 근원에서 비롯된 위로와 평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분만이 진정으로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상상밖에 할 수 없지만, 그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 도움을 줄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시는지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인 우리 개개인에게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능을 끊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도와서 위로하겠노라 맹세한 이들에게 보혜사인 성신을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께서 상호부조회의 일원으로서 20년 넘게 달고 다니신 상징 핀에 새겨진 선언에 대한 증인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⁹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문장의 완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제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약간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말해 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¹⁰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¹¹ 결의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평화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증인으로서, 저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인 성신이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며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시는¹² 데 여러분이 큰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1:28~30.
2. 모사이야서 18:8~9.
3. 요한복음 14:16~17.
4. 요한복음 14:26~27.
5. 모사이야서 18:9.
6. 모사이야서 24:14~15.
7. 욥기 19:25~26.
8. 욥기 42:12, 15~17.
9. 고린도전서 13:8.
10. 모로나이서 7:47.
11. 모사이야서 18:9.
12. 교리와 성약 81:5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 1보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금식 헌금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금식 헌금은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번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기쁨은 구주의 사랑이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모두에게 전해진다는 영의 증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현세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 각각의 필요 사항과 고통, 소망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구주께서는 마치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처럼 느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주님을 다시 뵈 미래의 순간에 대해 묘사하시면서, 그것이 참됨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날에 대한 제 마음속의 그림은 오늘 아침에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당신과 대면할 날을 묘사해 주셨는데, 그 묘사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됨을 나타냅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¹

여러분과 저는 구주의 그런 따뜻한 환영을 원합니다. 하지만 환영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굶주리고 집이 없고 외로움을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정말 간단해서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우리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훌륭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의 법입니다. 이사야의 다음 기록은 그 계명에 대한, 또 당신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주님의 설명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²

주님께서서는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약속이 담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금식을 하고, 우리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통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후한 금식 헌금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한 돈의 일부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누구를 돕고, 어떤 도움을 줄지 알기 위해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고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 후 남은 금액은 전 세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 회원들을 축복하기 위해 쓰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라는 계명에는 많은 축복이 수반됩니다. 스벤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무거운 대가가 따르는 태만죄라 이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금식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 의로움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운 정도에 따라 영감과 영적인 인도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축복들이 찾아질 것입니다.”³

바로 몇 주 전, 저는 그와 같은 축복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통 금식과 간증 모임이 있는 주에 연차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이 계명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알고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아직 금식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세계 뉴스를 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열대성 태풍 팜이 바누아투의 수도인 포트 빌라를 직통하여 많은 가옥이 파괴되었다. 이것으로 바누아투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곳에 상륙했던 가장 위력적인 폭풍 중 하나로 확인된다.

태풍이 이 태평양의 섬나라를 ‘휩쓸고 간 자리엔 거의 모든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⁴

월드 비전(World Vision)의 비상대책 평가단은 폭풍우가 잠잠해진 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대학교나 학교 같은 견고한 건물 안의 대피소를 찾도록 조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어 인터내셔널(CARE International)의 인가 메팜에 따르면 ‘그들이 가진 가장 튼튼한 건물은 시멘트로 지어진 교회들’이다. 하지만 그런 건물이 없는 곳도 있다. 5등급짜리 폭풍우를 견뎌 낼만한 건물을 찾기는 힘들다.”⁵

이 기사를 읽으면서, 바누아투의 작은 집들을 방문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으로 파괴된 집들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누아투의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들과 그들의 이웃들이 안전을 위해 시멘트로 지은 우리의 예배당으로 대피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사이로 걸어 다니며, 위로의 말과 담요와 음식, 마실 물을 주는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님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에 웅송거리며 모여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기사를 접한 저희 집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식 헌금임을 알았습니다. 몸은 난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과 가까운, 그분의 제자들이 기꺼이 바친 금식

헌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금식 헌금을 들고서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제 금식 헌금을 제 이웃의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작은 헌금은 제 가족이나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의 헌금 초과분은 바누아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폭풍우와 비극적인 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이 겪는 슬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달에 낸 금식 헌금의 일부는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그 누군가가 안도를 느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안도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식 헌금은 사람들을 먹고 입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바쳐진 헌금의 결실은 바로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뻗치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시에라리온에 사는 애비 투레이 자매님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1991년, 그 나라에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몇 년에 걸쳐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중에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정부 청사들도 문이 닫혔으며, 경찰들은 [반군 세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혼돈과 살인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⁶

그러한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투레이 자매님이 살던 도시에 첫 번째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초기 지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내전 중에 지방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집에 손님들이 방문할 때면, 투레이 자매님은 전쟁이 남긴 두 보물을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 줍니다. 그것은 교회 회원들이 준 헌 옷 더미에서 찾아낸 파란색과 하얀색의 줄무늬 셔츠와 이제는 구멍이 나 해지고 별집이 된 담요입니다.”⁷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셔츠는 제가 받은 첫 번째 옷이에요. … 일을 하러 나갈 때 이 옷을 입죠. 옷은 정말 좋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제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게 다른 옷은 없었죠.

전쟁 동안 이 담요는 저와 제 아이들을 따뜻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반란군의 공격을 피해 수풀에 숨으러 도망칠 때 이 담요는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요를 가져갔습니다. 담요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줬고, 모기를 쫓아내줬습니다.”⁸

“투레이 자매님은 자비를 들여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에 온 선교부 회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기부한 금식 헌금 덕분에, 대부분의 시에라리온 국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던 음식을, 성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⁹

투레이 자매님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후하게 기부해 준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할 때, …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친절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¹⁰

얼마 전, 투레이 자매님의 집에 미국에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투레이 자매님의 집에 있을 때, 탁자에 놓인 경전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경전 구절들이 옆에 적어 놓은 글씨들과 함께 줄이 잘 쳐져 있는 것을 보며, 그것들이 보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장은 해지고 찢어져 있었으며, 겉표지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손에 쥔 다음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노란색 현금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달러가 그 무게의 금만큼 값어치를 하는 그 나라에서, 애비 투레이가 십일조로 1달러, 선교사 기금으로 1달러, 그리고 그녀 말에 따르면 “진정으로 궁핍한 사람”을 위해 금식 현금으로 1달러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투레이 자매님의 경전을 덮으면서, 그 손님은 이 충실한 아프리카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것은 마치 성스러운 땅에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¹¹

여러분과 제가 낸 금식 현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듯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금식도 그러합니다. 어린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일부 어른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24시간 금식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충분히 금식으로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 가능성을 알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원리를 가르치고, 현명한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원리를 따르도록 하십시오.”¹²

최근에 저는 이 권고의 축복을 목격했습니다. 제 손자 중 한 아이는 24시간 금식이 그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지혜로운 부모는 아들이 가슴 속에 금식의 원리를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의 학교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린 사촌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식일에 제 손자는 여느 때와 같이 금식을 계속하는 것이 몹시 힘들어졌던 그 시간쯤, 어머니에게 자신이 계속 금식을 한다면 슬퍼하는 친구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손자의 질문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의 권고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니다. 제 손자는 금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아이는 금식과 기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자주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이의 삶에 멋진 결과가 생겨날 것입니다. 영감을 받는 힘이라는 영적인 축복과 유혹에 저항할 더 큰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유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 중 적어도 한가지를 압니다. 구주는 그분의 신성한 힘을 오용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 내셨습니다

매달 우리가 하는 짧은 시간의 금식과, 궁핍한 이에게 주는 적은 양의 현금은 악을 행하려는 의향이 없어지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에 큰 영향을 못 끼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금식과 기부를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¹³

우리 모두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이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궁핍한 이들을 돌보시는 일을 돕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도울 때 영원한 축복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5:34~40.
2. 이사야 58:6~11.
3. 스펜서 더블유 킴블, *용서가 낳는 기적*(1969), 98쪽.
4. Steve Almasy, Ben Brumfield, Laura Smith-Spark, "Cleanup Begins in Vanuatu after Cyclone Batters Islands," Mar. 14, 2015, edition.cnn.com 참조.
5. Sean Morris, Steve Almasy, and Laura Smith-Spark, "'Unbelievable Destruction' Reported in Tropical Cyclone Pam's Wake," Mar. 14, 2015, edition.cnn.com 참조.
6. Peter F. Evans, "Sister Abie Turay's Story," 출판되지 않은 원고.
7. Peter F. Evans, "Sister Abie Turay's Story."
8. Abie Turay, Peter F. Evans가 인용함, "Sister Abie Turay's Story."
9. Peter F. Evans, "Sister Abie Turay's Story."
10. Abie Turay, Peter F. Evans, "Sister Abie Turay's Story."에서 인용.
11. Peter F. Evans, "Sister Abie Turay's Story"; a video about Sister Turay, "We Did Not Stand Alone"는 lds.org/media-library에서 시청할 수 있다.
12. Joseph F. Smith, "Editor's Table," *Improvement Era*, Dec. 1903, 149.
13. 이사야 58:8~9.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행복의 계획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지향점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영원토록 함께 인봉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 주 오래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나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성공적인 결혼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쿠키와 입맞춤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꽤 그럴 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브리검시티로 돌아가 부친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도나의 오전 마지막 강의는 가정 경제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나설 때마다 도나에게 들렸습니다. 강의실 문에는 반투명 유리창이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서면 도나가 제 그림자를 보고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 나와 쿠키를 건네며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뒷이야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저희는 로건 성전에서 결혼했고, 인생의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자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지향점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인봉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태초의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아브라함서 4:27~28).

이렇게 하여 이 땅에서 인간 삶의 주기가 시작되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녀,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땅에서 돌씩 나뉘며 … 그들도 또한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모세서 5:2~3)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은 한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류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아니 신의 경지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산 능력은 행복의 계획에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인류에게 짝을 찾겠다는 소망은 한결같고 또 매우 강한 것입니다. 필멸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 승영은 강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산 능력이 청소년기에 성숙되어 가면서 다른 신체적 경험과는 다른, 매우 개인적인 느낌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짝짓기는 낭만적인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관습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낭만적인 사랑은 흥분과 기대, 때로는 거절과 같은, 소설 속이나 나올 듯한 감정과 함께 발전합니다. 달빛과 장미, 사랑의 편지, 사랑의 노래, 시, 손잡기, 그리고 젊은 남녀 사이의 여러 애정 표현이 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나누는 낭만적 사랑의 날아갈 듯한 황홀감만을 생명의 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오래된 부부가 나누는 사랑의 헌신과 위안을 경험할 만큼 오래 살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유혹과 오해, 재정 문제, 가족의 위기, 질병에서 기인한 시험을 겪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랑이 더 커지면서 갖 결혼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더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의 원천에 있는 성스러운



힘을 드러내는 애정 행위를 결혼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 욕구가 자신을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란 영원토록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합법적인 의식으로, 이상적으로는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함으로써, 서약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대한 충만한 표현으로서의 출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능력은 반드시, 그리고 오직 영원한 동반자하고만 나누어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할 때, 이 과정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가장 우아하고 차원 높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느낌을 결합합니다. 인류의 온갖 경험에서 인생의 그 부분에 필적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그 안에 너희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할 거룩한 신권의 열쇠가 성임 되어 있[으며]”(교리와 성약 124:34)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32:19)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전주곡일 뿐입니다. 사랑은 결혼을 통해 부부에게 맡겨진, 생명의 원천인 자녀를 얻어 양육할 때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아주 작은 몸체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따라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몸은 지상 부모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

기적처럼 탄생합니다. 그 필멸의 육신 안에는 영적인 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필멸의 육신에는 또한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녀를 낳을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영과 몸(은) 곧 사람의 영혼이[며]”(교리와 성약 88:15), 행복을 위해 따라야 하는 율법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이 힘과 관련된 율법을 포함하는 영원한 율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이] 이에 근거를 [둡니다.]”(교리와 성약 130:20) 그것은 인류를 위한 도덕 표준을 정의하는 영적인 율법입니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로마서 7:14~15; 니파이후서2:5; 교리와 성약 29:34; 134:6 참조) 또한, 묶어 주고, 인봉하고, 보호하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는 성약이 있습니다.

엘마는 아들 시블론에게 “네 모든 걱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엘마서 38:12)고 훈계했습니다.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이끌고 방향을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출산 능력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때 축복을 주고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158 참조)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대적은 자녀를 낳을 수 없기에 그런 하늘의 힘을 지닌 모두를 시기합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쫓겨났으며 필멸의 몸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니파이후서 2:27) 사탄은 우리가 합당하기만 하다면 영원한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이 은사를 최대한 비하하고 타락시키며, 가능하다면 파괴하려고 유혹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2:28~31 참조)

만약 우리가 생명의 원천을 더럽히거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범법을 하도록 이끈다면, 모든 육체적 쾌락이 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격렬”하고 “견디기 힘든”(교리와 성약 19:15)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장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 우리는 우리의 범법으로 초래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적의 끔찍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한 빛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마태복음 5:26)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손상은 자연 치유나 의사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범위가 아주 넓고 크면 흉터가 생겨 상처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은 다릅니다. 영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손상됩니다. 그러나 회개 절차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필멸의 몸과 다르게, 그 흉터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결혼과 가족 생활을 이야기할 때,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이 늘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계약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배우자의 부정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 나갑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상의 가장 완벽한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시고 또 관대하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공정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분의 권능은 지상의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19)

저는 이제 경건하게 성전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봉실, 그리고 젊은 부부 혹은 1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기혼 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제단을 그려 봅니다. 이 성스러운 성전 의식은 결혼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결혼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기 때문이며, 우리가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을] ... 상속[받을 것]”(교리와 성약 132:19)이라고 경전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귀한 은사를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압니다.

도나 스미스 패커 자매와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어 갑니다. 아내이자 제 아이들의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받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입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나날들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제 곁에 있는 아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고맙고, 또 끝이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계십니다. 그분의 속죄와 신권 권능으로 필멸에서 출발한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개선할 수 있으며,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속죄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구주께서 속죄를 하셨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벗어나는 방법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을 썩히던 모든 일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의 능력과 구원, 그리고 속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속죄는 얼마나 어렵든, 오래 되었든, 또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속죄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합당하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며, 여러분이 삶의 방향으로 선택한 길을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속죄가 교회 전체를 위한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속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속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속죄는 여러분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깨끗하게 해 주고 그분처럼 여러분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여성과 남성으로서 서로 북돋고, 상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연차 대회가 오면 언제나 감동을 주는 영감 어린 말씀과 음악과 기도도 좋지만, 그다음으로 좋은 것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님들이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연단을 나서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매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하는 형제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아내 도나 자매님에 대해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지녔기에 저는 진실을 말할 엄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완벽합니다.”¹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아내 해리엇 자매님을 가리켜 “그녀는 제 인생의 햇빛”²이라고 하셨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아내 캐스린 자매님에 대해 “아내는 언제나 제가 최대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³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은 사랑하는 아내 프란시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사랑이자 충실한 동반자였고,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단지 그림자는 말로는 이

통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⁴

저도 제 소중한 동반자 크레이그를 향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남편이 저와 제 자녀들의 삶을 “잘 돌볼 것”이라는 귀하고도 성스러운 약속이 나옵니다. 제게 남편은 그 약속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크레이그]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⁵ 저는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남편을 사랑합니다!



신성한 역할과 책임

오늘 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가족을 의롭게 이끌고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보호하는 등, 가족 선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과 삼촌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부성, 모성, 결혼 같은 주제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통감하고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가정은 생각하는 이상향에 절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교회 회원들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유기, 학대, 중독, 잘못된 전통과 문화로 상처받습니다. 누구든 고의나 실수로 가정에 고통과 괴로움, 절망을 안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인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서 봉사할 때, 특히 가정에서 그러할 때만큼 아내에게 매력적인 때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패커 회장님께서 합당한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가정을 보호하도록 여러분이 받은 신권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의 가족과 대적의 악행 사이에서 방패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⁶

가정의 영적 지도자이자 교사

올해 초,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자 제 시댁 어른이신 돈 숙부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숙부님의 한 아들은 부모님이 첫 집을 장만한 직후였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숙부님 내외는 먹고 입힐 자녀가 다섯이나 되었기에 뜰에 울타리를 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역할 중에서도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숙부님은 작은 나무 말뚝 몇 개를 땅에 박고 끈을 가져와서 말뚝 사이 사이를 연결해 뜰 전체를 두른 뒤,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뚝과 끈으로 된 임시 울타리를 보여 주며 허술해 보이더라도 이 울타리 안에 머물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방문 교육 교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섯 명의 어린아이들이 끈을 두른 울타리 옆에 앉아서 서서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집 경계를 넘어 길로 날아간 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를 부르러 달려갔고, 아빠는 바로 뛰어가 공을 집어 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숙부님의 맏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원이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써의 신성한 부름인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름, 곧 결코 해임되지 않을 부름을 기억하십시오. ...

여러분을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⁷

정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남성의 성스러운 역할과 책임을 깎아내리는 것 외에도 “진정한 남성”의 의미를 왜곡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성약의 남성들에게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왜곡 중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남편과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모멸과 조롱 섞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부디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될 특권을 영원토록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성스러운 역할을 맡은 이들을 질시한 나머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완하는 역할 속에 복돋고 도우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여성과 남성으로서 서로 복돋고 상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협심하여 자라나는 세대를 복돋우고, 그들이 영생의 상속자로서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과 부인인 메리 자매님처럼, “당신이 나를 들어 올리면 내가 당신을 들어 올려 주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⁹라는 속담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돕는 배필”¹⁰을 지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를 돕기에 어울리고 합당하며 걸맞은 배필”¹¹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두 손은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두 손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서로 보완하며 잘 들어맞습니다. 두 손은 함께 일할 때 강해집니다.¹²

교회 지침서에서 가족과 관련된 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은 그 특성상 서로 완전해지도록 보완해 준다.”¹³ “서로 경쟁한다.”가 아니라 “서로 완전해지도록 보완해 준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서로 돕고 복돋고 기뻐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취한 것을 존중할 때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¹⁴라는 현명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완전해지도록 보완”하고자 할 때 더 수월하게 상대를 복돋울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였던 시절, 기저귀 처리와 설거지, 아이들 훈육으로

가득한 하루가 끝나면, 저는 누구보다도 신나게 초등학교 노래, “아빠 돌아오실 때는 정말 기쁘요”¹⁵를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된 하루를 보낸 남편이 반갑게 문을 들어설 때 항상 쾌활하게 맞아 준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남편은 늘 포옹과 입맞춤으로 가족 모두와 인사를 나눴고, 힘겹고 때로 끔찍했던 많은 날을 아빠와의 신나는 시간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끝없는 숙제처럼 쌓인 의무에 치이는 대신 저도 남편처럼 현명하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주 일을 멈추고 신성한 가족 시간을 즐기며 남편이 우리 삶을 축복한 것에 더 고마워했다라면 좋았을 텐데요!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얼마 전, 한 충실한 자매님은 한동안 기도했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매님의 고민은 와드의 몇몇 자매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자녀

앞에서조차 그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청년 시절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진지하게 소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고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저 자세를 낮추며 아내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란 가정에서는 본보기를 찾지 못했지만, 열심히 인도를 구하자 주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셨고, 남편과 함께 따뜻하게 영을 맞이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리는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 본 그녀의 집은 거룩한 장소였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합니까?]”¹⁶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변형하면 결혼 여부나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1. 개인적으로나 자녀 앞에서 진심으로 동반자를 칭찬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2. 기도하며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며 배우자를 위해 신앙으로 진지하게 간구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3. 상처가 될 법한 말을 스스로 멈춘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4.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고 사과하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5. “이기는” 대신 행복하기를 택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이 질문들 중 어떤 것으로든 당혹감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든다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보호책이 통중이라면, 우리 영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는 죄책감입니다.”¹⁷

또한, 우리 모두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의 진심 어린 다음 권고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주를 좀 더 닮으려고 하는 이 길고도 영원한 여정에서 앞으로 적어도 이 한 가지, 즉 말로 상처를 주지 않음으로써, 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새 방안, 즉 천사의 방언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온전한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¹⁸

오늘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소중한 동반자에게, 또는 그에 관해 말할 때 반드시 친절한 말을 사용했고, 저희 집의 남성들을 복돋고 그들이 상호 보완을 해 주는 성스러운 역할에 충실할 때 감사를 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들어 올리면 내가 당신을 들어 올려 주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속담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의 성약의 아들딸로서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복돋아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줄 방법을 알기 위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성신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데 힘을 모으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시리라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 줄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주

1. Boyd K. Packer, "Donna Smith Packer Receives Family History Certificate from BYU," news.byu.edu/archive12-jun-packer.aspx.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리아호나*, 2005년 3월호, 10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제럴드 엔 런던, "헨리 비 아이어링: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성도의 빛*, 1996년 4월호, 31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5쪽.
5. Mark Twain, *Eve's Diary* (1905), 107.
6. 보이드 케이 팩커,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쪽.
7. 에즈라 테프트 벤슨, "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4쪽.
8. 니파이후서 2:27.
9. 로버트 디 헤일즈, "가족을 강화함: 우리의 거룩한 의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0쪽에서 인용; 또한 래린 곤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명예롭게 귀환함", *성도의 빛*, 1995년 4월호, 31쪽 참조.
10. 창세기 2:18.
11. 창세기 2:18, 후기 성도판 성경 주석 b.
12. Bruce K. Satterfield, "The Family under Siege: The Role of Man and Woman" (devotional address at Ricks College Education Week, June 7, 2001), 4 참조: emp.byui.edu/SATTERFIELD/PDF/RoleManWoman2.pdf.
1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3.1.
14. 바바라 비 스미스, "서로 공감함을 느낌",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152쪽.
15. "아빠의 귀가", *어린이 노래책*, 110쪽.
16. "진절할 말들을 서로 하세", *찬송가*, 151장.
1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4쪽.
18. 제프리 알 홀런드, "천사의 방언",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8쪽.

연 차 대회 말씀 주제는 세상의 권위자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주제가 모두가 공유하는 현세적인 관심사를 다루지만,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 때 당시의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압력을 극복할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보통 현대의 중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십니다. 이 부활절 주기에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귀중한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개의 공관 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비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신 일은 드문데, 이 비유가 그 중 한 가지입니다.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마태복음 13:19), "말씀"(마가복음 4:14), 또는 "하나님의 말씀"(누가복음 8:11)이며, 이는 곧 주님과 그 종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씨가 떨어진 각기 다른 땅은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러즉, "길 가에 떨어진[진]"(마가복음 4:4) 씨는 토양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음이 완악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행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 메시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지를 경고해 줍니다.

1. 돌밭, 뿌리가 없음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썩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마가복음 4:5~6)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마가복음 4:16~17)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속에 뿌리가 없[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교사나 교회가 지닌 많은 매력적인 특성, 또는 교회 회원이 누리는 많은 축복만을



보고서 개종한 새로운 회원들이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속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반대하는 힘이 몰아칠 때 썩어 시들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거나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들도 자기 안에 뿌리가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회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개종을 하지 못하여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지 않고, 꾸준히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돌밭처럼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적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존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에서 멀어져 가는 세상에서 영성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양식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이 우세한 이 시대에, 인터넷에는 신앙을 위협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복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려면 영적인 진리를 더 많이 접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가르침이 너무 일반적이라면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성찬이 전달되는데 문자를 주고 받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필수적인 영적 음식 취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잘라 내며 자신을 돌밭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당하거나 헐박받거나 조롱받는 등의 고난이 닥치면 금세 썩어 시들어 버리도록 자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뿌리를 파괴하는 또 다른 잠재 요인은, 전적으로 그 때문만은 아니나 현대 기술로 가속화된, 교회나 복음에 대한 열쇠 구멍 같은 편협한 시야입니다. 이러한 편협한 시야에 갇히면 특정 교리나 의식 또는 지도자에게서 인식한 결점을 파고들게 되며, 복음의 계획을 폭넓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누리는 복음의 열매를 간과하게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 편협한 시야의 한 측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브리검 영 대학교 청중들에게 그 당시에 일어난 뉴스 사건에 “매우 격분하는” 정치 평론가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장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며 날카롭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 확실히 명석한 염세주의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¹ 이와는 다르게 복음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극단적인 비판을 지양하고 신중히 비평하며, 항상 하나님의 웅대한 사업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견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2. 가시떨기,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예수님께서서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마가복음 4:7)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마가복음 4:18~19)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고입니다.

먼저,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유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즉, 어느 정도 개종했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 유혹을 받습니다. 태도나 우선순위가

재산 취득이나 소비 또는 소유에 고착되면, 그것은 물질주의라고 불립니다. 물질주의에 대한 많은 글과 말이 있으니 여기서는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² 변영의 이론이라 불려온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재물의 기만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상당한 수입 자체가 하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도 아니고, 그런 재물이 없다고 해서 하늘의 외면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충실한 추종자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마가복음 10:17~24 참조)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닌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에 배어 있는 악함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선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는데, 똑같은 주화였지만, 가롯 유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구주를 팔아넘겼고, 사마리아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이웃을 살렸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디모데전서 6:10 참조)

물론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된]”(엘마서 4:10) 시기에 대해 나오는데, 그 원인은 “교회의 백성들이 ... 그 마음을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두기 시작[한]”(엘마서 4:8) 것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재물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는 위험에 빠집니다.³ 이것은 구주께서 이 가르침에서 언급하신 그다음 상태로 접어드는 적절한 서곡입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 말씀의 영향력을 막는 가장 교묘한 가시떨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누가복음 8:14)이라고 표현하신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 세상적인 영향력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예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선 선임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태복음 16:23; 또한 교리와 성약 3:6~7; 58:39 참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선순위와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앞에 둔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1) 무언가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선택의지를 손상하고, (2) 사소한 오락 활동에 이끌려 영원히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3) 특권 의식에 빠져 영원한 운명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적인 성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향락”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짱달짝 못한다면 그것은 “이 인생의 염려”에 지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25년 전, 제가 존경하는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휴 디블유 니블리는 세상의 염려에 굴복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터뷰에서, 세상의 상황과 우리의 복음 전파 의무를 고려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과 좀 더 부합하도록”⁴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그런 문제와 싸워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감수하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점이 신앙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 우리의 결심은 시험받을 것이고, 그 시험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태도가 터무니없게 여겨지겠지요.”⁵

이러한 복음의 우선순위는 몇 개월 전에 브리검 영 대학교 교정에서, 존경받는 가톨릭 지도자인 찰스 제이 차퍼트 필라델피아 대주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족, 성의 본질, 인간 생명의 존엄성, 종교적 자유의 시급성”과 같이 후기 성도와 가톨릭 공동체가 공유하는 관심사에 대해 논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대로 실제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적 선택, 상거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등,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톨릭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사회 속에서 누룩이 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 안에서 누룩이 되어 선한 영향을 주는 것과 믿음을 타협하여 사회 안으로 삼켜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⁶

구주께서는 이 세상의 염려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우리의 우선순위와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맞출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구주의 예시들을 살펴보니, 이 비유는 토양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토양의 적합성은 복음 말씀을 접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악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개간하지 않아 돌이 무성한 상태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3.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 결실을 [한]”(마태복음 13:8) 씨에 대한 구주의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수확을 얻고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누가복음 8:15)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이라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 줄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굳게 내려 깊이 개종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골로새서

2:6~7 참조)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봉사하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하여 이 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추구하여(말사서 5:12~14 참조) 악한 욕망과 이기적인 관심사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들이 참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길을 안내해 주고, 그분의 속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Gordon B. Hinckley,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29, 1974), 1; speeches.byu.edu.
2. 예를 들어, Dallin H. Oaks, “Materialism,” *Pure in Heart*의 제5장 (1988), 73~87쪽 참조.
3. 이 기억할 만한 인상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말씀에서 얻은 것이다. (Neal A. Maxwell, “These Are Your Days,” *Ensign*, Oct. 2004, 26 참조; 또한 닐 에이 맥스웰,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리아호나*, 1985년 10~11월호, 28쪽 참조)
4. James P. Bell, “Hugh Nibley, in Black and White,” *BYU Today*, May 1990, 37.
5. Hugh Nibley, “Hugh Nibley, in Black and White,” 37~38.
6. Charles J. Chaput, “The Great Charter at 800: Why It Still Matters,” *First Things*, Jan. 23, 2015, firstthings.com/web-exclusives/2015/01/the-great-charter-at-800 참조, 또한 Tad Walch, “At BYU, Catholic Archbishop Seeks Friends, Says U.S. Liberty Depends on Moral People,” *Deseret News*, Jan. 23, 2015, deseretnews.com/article/865620233/At-BYU-Catholic-archbishop-seeks-friends-says-US-liberty-depends-on-moral-people.html 참조. 차퍼트 대주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의 가톨릭 대학 중 몇 곳도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심히 약화되었습니다. ... 브리검 영 대학교는 매우 뛰어난 대학교입니다. ... 왜냐하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으로 강화된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The Great Charter at 800”)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회장단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구주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빛으로서 그분의 복음을 주십니다.

멀리서 불빛을 발견한 세일러는 자신이 겪은 비극의 깊이와 온갖 부상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거친 자연을 헤치며 빛을 향해 나아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세일러가 그날 밤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세일러가 멀리 떨어진 집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고 구조될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일러는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든 간에 그 빛을 따라 가면 구조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 난 1월, 일곱 살 소녀 세일러 거츨러는 가족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일리노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은 세일러의 아빠가 했습니다. 해가 막 떨어졌을 때, 비행기는 기체고장으로 켄터키 주의 칠흑같이 어두운 산 속에 곤두박질치며 추락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매우 험했습니다. 사고로 세일러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세일러는 추락할 때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베이고 긁혔으며 신발도 잃어 버렸습니다. 섭씨 3도의 기온에, 비가 내리는 켄터키의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세일러는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양말도 한 짝뿐이었습니다.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일러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고자 맨발로 개울과 배수로를 건너고 블랙베리 가지덤불을 헤치며 산간 지대를 헤맸습니다. 언덕에 오른 세일러는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세일러는 그 불빛을 향해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덤불을 지나 마침내 어떤 집에 도착했고, 난생 처음 만난 친절할 집 주인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일러는 이제 안전합니다. 세일러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회복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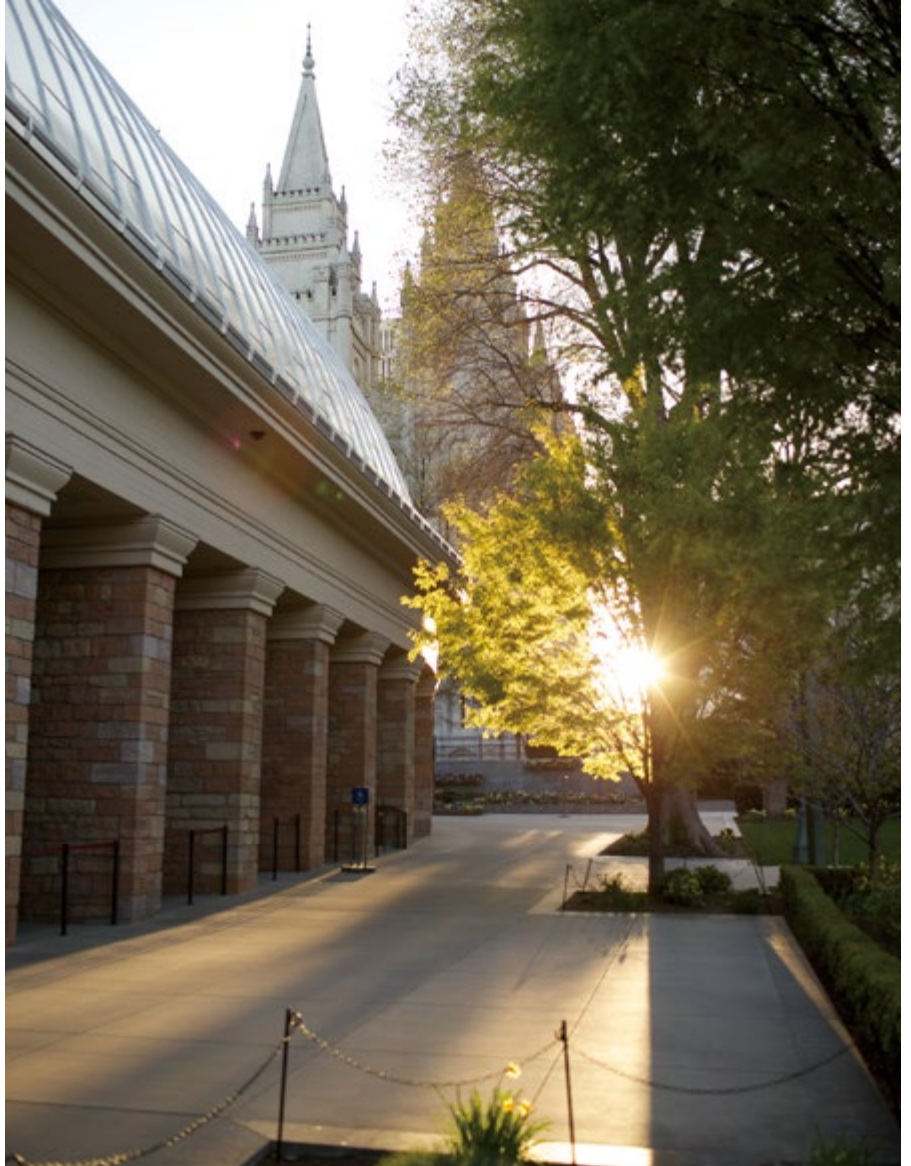
우리 가운데 세일러가 겪은 그런 참혹한 경험을 견뎌 내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자신의 영적 광야를 횡단해야 하고, 자신의 고된 정서적 여행에 나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찾지만 한다면 구조와 구제의 희망을 보내오는, 우리에게 손짓하는 영적인 불빛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조로부터 비치는 빛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영적인 빛을 지각하는 것은 물리적 빛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주의 영적인 빛을 인식하려면 먼저 기꺼이 믿으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적어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선지자 엘마는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구주의]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²

믿기를 바라고 구주의 말씀을 위해 마음에 “자리를 [내 주리]”는 엘마의 외침은 믿음과 신앙에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해야 합니다. 받고자 한다면 먼저 구해야 하며, 찾고자 한다면 먼저 찾아야 하며, 열리기를 바라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³

구주만큼 간절하게 우리에게 믿으라며 간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역 초기, 구주께서는 믿지 않는 청중에게 이같이 호소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⁴

우리 각자는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시험을 받습니다. 구주를 믿고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믿기를 거절하고 어둠 속에서 고집스럽게 홀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시험 말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빛으로서 그분의 복음을 주십니다.

추락 후에 세일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 옆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밤이 기다리고 있었고 추위도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세일러는 언덕을 올라갔고, 지평선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세일러는 빛을 향해 서서히 나아갔고, 빛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빛을 볼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곡으로 내려가거나 나무나 덤불 뒤에 있을 때에는 빛이 시야에서 벗어났겠지만, 세일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빛이 보일 때면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일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간다면 그 빛을 다시 보게 되리라 확신하고 또 소망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에 기초해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일러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다치고, 지치고, 삶이 어둡고, 축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평선에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믿고자 한다면,



믿기를 바라다면, 믿기로 결심한다면,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의 앞 길을 보여 줄 것입니다.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세일러가 멀리 보이는 불빛에서 안전을 찾게 되리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신성한 실체, 그분의 영원한 빛과 치유하는 자비에 마음을 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고하고, 심지어 애원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시고, 경전을 주시며, 가르침을 주시고 그분의 영으로 손짓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빛을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함으로써 그 영적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믿겠다는 결심은 우리가 하는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다른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축복하려는 완전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는 믿을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여 당신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 주라는 주님의 요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⁵

믿음, 간증, 신앙은 수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희망하고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기도하거나 십일조를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연히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것을 선택하듯이 믿음 또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땀을 흘려 나갈 때, 세일러는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일러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희망을 품고 추락 현장을 떠나 멀리 불빛이 보일 때까지, 몸에 생채기가 나는 등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빛을 본 후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며 그 빛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의심을 택하기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며, 영적인 빛을 믿고 찾으면 그것을 찾게 되리라는 희망에 마음의 자리를 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 신앙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믿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신성한 용서와 치유하는 사랑을 구할 때, 우리는 믿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에서 발전이 더디거나 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고, 여러 실수를 저질렀거나, 구주를 찾으려는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듯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주와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믿으며 곧장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그 믿음과 일치시키십시오. 자기 신앙의 불빛이 흐릿해지더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구주의 사랑과 은혜에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대한 희망으로 여러분의 의문을 극복하도록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언제라도 여러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여러분은 자신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겠다는 용감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

저는 인생에서 구주의 자비로운 사랑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암울했던 순간에 구주를 찾았고, 그분은 치유하는 빛과 함께 다가가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아내인 캐시와 함께 여행하며 세계 곳곳의 교회 회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훌륭한 분들과의 만남은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들이 받는 축복인 행복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그분의 구속 권능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⁶ 받는 참된 길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한 빛과 희망의 원천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을 것을 선택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Lindsey Bever, “How 7-Year-Old Sailor Gutzler Survived a Plane Crash,” *Washington Post*, Jan. 5, 2015, washingtonpost.com 참조; “Girl Who Survived Plane Crash Hoped Family ‘Was Just Sleeping,’” Jan. 4, 2015, myfox8.com; “Kentucky Plane Crash: Four Killed, Little Girl Survives,” Jan. 4, 2015, news.com.au; Associated Press, “Young Girl, Sole Survivor of Kentucky Plane Crash,” Jan. 3, 2015, jems.com.
2. 열마서 32:27; 강조체 추가.
3. 제3니파이 14:8; 또한 7절 참조.
4. 요한복음 10:37-38.
5. 제3니파이 11:32.
6. 교리와 성약 59:23.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가족은 삶의 중심이며 영원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작년 11월에 저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제럴드 코세 감독님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서 열린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학회에 참석하도록 초대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학회에는 7개 대륙 중 6개 대륙에서 온 14개 종교의 대표자들이 함께했으며, 초대받은 이들은 모두 오늘날 세상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믿음을 피력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런 말로 학회 첫 번째 회의를 개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개적 약속인 결혼을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포기하는 임시성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례와 도덕적인 면에서 이러한 변혁은 종종 자유의 표현으로 옹호를 받았으나 사실상 그것은 수많은 인간에게, 특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 이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입니다.”¹

교황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임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타락한 [사고방식]에 젖어 들지 말고, 오히려 용감한 혁명가가 되어 진리와 영속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대중적 사고방식에 맞서는 것”²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개막 연설 후, 3일에 걸쳐 종교 지도자들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이어 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한 전 세계 종교





바티칸에서 열린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학회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그들이 결혼 제도의 성스러움과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로의 종교에 지지를 표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강력한 공통성과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면에서 이 일체감을 목격하고 표현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이란에서 온 이슬람교 학자가 우리의 가족 선언문 두 번째 문단을 글자 그대로 인용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학회 동안 다양한 신앙과 교파, 종교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이 가족이라는 조직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도덕 표준과 충실성, 헌신에 대해서도 하나가 됨을 목격했습니다. 결혼과 가족 중심의 우선순위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고 대체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에 대한 희망, 걱정, 기대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전 세계 여러 발표자들이 공통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듣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각 종교 지도자가 개인적인 간증으로 발표를 마치면 바로 다음 사람이 이어 갔습니다. 학회의 마지막 간증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가족에게 약속된 축복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힘 있는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간증은 그 특별한 3일 간의 회의에 대한 적절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대다수가 가족의 우선순위와



믿음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모든 신앙과 종교가 근본적으로 동의했고, 모두가 가정과 가족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건가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관하여 다른 종교들과 그렇게 많은 공통점을 지닌 것을 알고 느끼게 되어 놀랍긴 하지만, 우리만이 회복된 복음에서 얻는 영원한 관점을 압니다.

회복된 복음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는 바는 심히 크고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영원한 것으로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비롯되었으며,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이해로 인해 우리는 결혼의 약속과 신성함을 더 큰 경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교리는 “가족은 영원해”라는 초등학교 노래의 작사자 루스 가드너의 가사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전 세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오직 가족의 사랑에서만 비롯되는 열정을 갖고 자국어로 목청껏 이 노래를 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족은 영원해
나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하도록
주님 방법 보여 주셨네”³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믿음은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전세에서 함께 살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의 유대가 무덤 너머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합당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집행한 결혼은 다가올 세상에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의식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 하지 않고 대신 “현세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이 안정된 사회, 안정된 경제, 안정된 도덕 문화의 기본 단위일 뿐 아니라 영원의 기본 단위이자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의 기본 단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조직과 통치 체계가 가족과 대가족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혼이거나 이생에서 자녀를 두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에서 결국에는 그럴 기회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혼과 가족을 강화하자는 범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어 가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과 가족이 영원하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만이 영속적인 결혼과 강한 가족 관계를 공통된 가치와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비종교인들도 현실적인 결혼 관계와 가족 중심 생활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결혼한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 어디에서든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까요?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대다수가 결혼을 이상이자 희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결혼 대신에 독신 생활과 개인적인 자유, 동거를 선택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1978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대다수가 여전히 자녀를 두고자 하며 전통적인 가족을 꾸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모든 인류 사이에 진정한 공통성이 있음을 더욱더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어디에 살든지 종교적인 믿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가족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지닌 사람들”로서 자녀에 대해 같은 아픔을 겪고 적응해 가며 같은 희망과 걱정과 기대를 공유합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선택을 초월하는, 가족과

하나님, 직장, 국가와의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⁴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은 대중 매체와 오락물들이 전 세계 대다수가 공유하는 이 우선순위와 도덕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간에, 많은 텔레비전과 영화, 음악, 인터넷에서 소수의 전형적인 경우를 다수의 경우인 양 가장하여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폭력에서 오락적인 성 관계에 이르기까지 부도덕과 무도덕이 평범한 것으로 묘사되며, 이 때문에 주류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구시대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중 매체와 인터넷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과 가족을 존속시키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중 매체와 오락물이 그런 내용을 보여 주고 있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향성이 다소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충실한 결혼 생활이



옳다고 믿으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리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서약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념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영원이자 이상이라는, 대단히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을 때때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가족,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 현실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굳건한 결혼 관계와 가족 생활의 토대를

건설하고 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을 강화하자는 다양한 연합과 범종교적인 노력에 참여하며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중점을 두는 우리의 가치를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보와 대가족 기록을 모든 국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족 조직을 대체하려는 모든 거짓되고 대안적인 생활 방식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 생활에서 우리나라는 기쁨과 성취감을 지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고자 합니다. 왜 결혼과 가족이 그토록 중요한지, 왜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왜 언제까지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소리 높여 만방에 외쳐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회복된 복음은 결혼과 가족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결혼과 가족을 통해 우리는 다른 종교 단체와 가장 잘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과 가족을 통해 세상의 다른 교회들과 가장 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언덕 위의 불빛이 되는 위대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간증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이 삶의 중심이며, 영원한 행복의 열쇠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저는 지상에서 아흔 해를 보냈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복되게 해 주고 영원하게 해 준 아내와 자녀들, 손주와 증손주들, 모든 사촌, 사위, 며느리, 먼 친척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저의 가장 강하고도 성스러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Pope Francis, address at Humanum: An International Interreligious Colloquium on the Complementarity of Man and Woman, Nov. 17, 2014, humanum.it/en/videos; 또한 zenit.org/en/articles/pope-francis-address-at-opening-of-colloquium-on-complementarity-of-man-and-woman 참조.
2. Pope Francis, Colloquium on the Complementarity of Man and Woman.
3.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4. David Brooks, “The Age of Possibility,” *New York Times*, Nov. 16, 2012, A35: nytimes.com/2012/11/16/opinion/brooks-the-age-of-possibility.html.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교회 역원 지지

형 제 자매 여러분, 토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호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기록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기록되었습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기록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다음 지역 철십인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후안 시 아빌라, 필립 케이 부세이, 르네 제이 카브레라, 레나토 카펠레티, 폴 디 엠 크리스텐슨, 새뮤얼 더블유 클락, 로제리오 지 알 크루즈, 조지 알 도널드슨, 이니 비 에콩, 크리스천 에이치 핑겔러, 크레이크 지 피셔, 제릴 엘 간스, 엠 키이스 기든스, 앨런 디 하이니, 주이 창 주안, 조지 엠 킬르, 본 지 킷치, 카즈미 쿠스메, 저먼 라보리엘, 제이 크리스토퍼 랜싱, 구스타포 로페즈, 드미트리 브이 마첸코, 피터 에프 머스, 티 잭슨 엠 음카벨라, 휴고 몬토야, 발렌틴 에프 누네즈, 오희근, 제프리 이 올슨, 알 잉바 올슨, 노버트 케이 운레우, 로버트 엔 패커, 나다니엘 알 패인, 시저 에이 페레즈 주니어, 마이클 제이 레알, 에드슨 디 지 리베이로, 브래드 케이 리즌메이, 윌터 시 셸던, 모차르트 비 소아레스, 카를로스 솔리스,





놀런드 소우자, 번 피 스탠필, 티 마라마 타라티, 코우조우 타쉬로, 루벤 디 토레스, 오마 빌라로보스, 잭 디 와드, 앨런 제이 웹, 제라르도 제이 빌헬름, 짐 엘 라이트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수고해 주신 데이비드 엘 벡, 래리 엠 김슨, 랜들 엘 리드 형제님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청남 이사회의 모든 일원을 해임합니다.

또한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진 에이 스티븐스 자매님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쉐럴 에이 에스플린 자매님을 해임합니다.

이 형제 자매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들로 김 비 클라크, 폰 지 키치, 앨런 디 헤이니, 휴고 몬토야, 번 피 스탠필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다음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벨스 아르딜라, 호세 엠 바타야, 로렌스 피 블링크, 브래드퍼드 시 보언, 마크 에이 브레그, 세르지우 루이스 카보니, 아르만도 카레온, 에스 마크 클레이 주니어, 지 도미니크 데카예, 오스발도 알 디아스, 마이클 엠 더들리, 마크 피 더럼, 제임스 이 에반슨, 파스슈알 에프 포르투나토, 파트리시오 엠 기우프라, 대니얼 피 홀, 토루 하야시, 폴 에프 힌츠, 제이 케이 추쿠에메카 이그위,

구승훈, 밍선 쿠안, 조니 엘 레오타, 카를로 엠 레자노, 조엘 마르티네스, 제이 반 맥아더, 카일 에스 맥케이, 힐라맨 몬테호, 에이 파비오 모스코소, 마이클 알 머레이, 노먼 알 넬로우, 에스 마크 파머, 페르디난도 피 판간, 자이루스 시 페레스, 스티븐 엠 피터슨, 볼프강 필츠, 제이 디 피멘텔, 존 시 핑그리 주니어, 에드발도 비 핀토 주니어, 이반 에이 슈뮤츠, 케이 데이비드 스콧, 폴 에이치 싱클레어, 벤자민 티 신조우스, 룰런 에프 스테이시, 데이비드 엘 스테이플턴, 칼 엠 털먼, 윌리엄 알 티테라, 세이지 토쿠자와, 카를로스 알 톨레도, 세사르 이 빌라, 후안 파블로 빌라, 데이비드 티 워너, 게리 케이 와일드, 로버트 케이 윌리엄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쉐럴 에이 에스플린 자매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메리 알 더럼 자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를 본부 청남 회장으로, 더글라스 디 홈스 형제를 제1보좌로, 몬티 조셉 브로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역원 지지가 끝났습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도록 권유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일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케빈 알 저건슨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 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4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가르치듯,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알 저건슨
관리 책임자 ■



2014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제 일회장단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회의 성장과 상태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3,114
선교부	406
지방부	561
와드 및 지부	29,621

교회 회원

총 회원 수	15,372,337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	116,409
침례받은 개종자	296,803

선교사

전임 선교사	85,147
교회 봉사 선교사	30,404

성전

2014년 동안 헌납된 성전(애리조나 길버트 성전,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	3
재헌납된 성전(유타 옥든)	1
연말 기준 운영 중인 성전	14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세상적인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지만 경건한 두려움은
평안과 안심, 확신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친구와 놀던 중에 집 근처 가게의 창문을 의도치 않게 깨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산조각 나고 정보음이 요란하게 울리자 저는 공포에 휩싸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운명에 처한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침대 밑에 공포 숨어 있던 저를 달래서 나오게 하시고는 가게 주인을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시무시하고도 실질적인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건강 문제나 가족에게 생긴 어려움이나 위험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세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곧 닥칠 위험이나 불확실성, 고통과 더불어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어떨 때에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데다 대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괴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또 일상 속에서 범죄 폭력, 기아, 전쟁,

부정부패, 테러, 가치관 쇠퇴, 질병, 자연의 파괴력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아 두려움과 우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주님께서 예견하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 온 땅이 동요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요”(교리와 성약 45:26).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지니는 것이 어떻게 공포를 쫓아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성신이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필멸의 삶에 대한 공포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오자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답합니다.] 내가 …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 두려웠나이다”(창세기 3:9~10). 눈여겨볼 점은 타락의 첫 번째 결과 중 하나로 아담과 이브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감정은 필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몬경의 한 일화에는 우리가 큰 역경에 부딪힐 때 주님에 대한 지식(베드로후서 1:2~8; 엘마서 23:5~6 참조)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는 힘이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힐렘 땅의 엘마 백성들은 레이맨 군대가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엘마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권면하기를 너희는 놀라지 말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건지시리라. ...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모사이사서 23:27~28).

엘마가 백성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지 않은 점을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엘마는 믿는 이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그들을 건지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고했습니다.(니파이후서 2:8 참조) 백성들은 구주의 세심한 보호의 손길을 깨닫고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근원이므로,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지닐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라앉힐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우리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59:23)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면, 그분의 속죄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모로나이서 7:41 참조) 그러한 신앙과 소망을 지닐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하는 양심의 감미로운 평안이 삶에 찾아옵니다. 속죄의 권능으로 회개가 가능해지고 죄로 생긴 절망감은 자취를 감춥니다. 또한 그 권능은 제한된 필멸의 능력으로는 인식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보고 행하며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줍니다. 진실로 헌신적인 제자가 될 때 임하는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통해 영원이라는 소중한 안목으로 필멸의 삶을 보게 되고 하늘의 목적지에 꾸준히 초점을 맞추게 하는 영적인 터(골로새서 1:23 참조)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교리로 삶의 모든 면에서 목적과 방향을 얻기에,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식과 성약으로 좋거나 나쁜 시기에도 늘 힘과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권 권세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현세와 영원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현 세상에서 자주, 또 너무 쉽게 괴로움을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과연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예”입니다. 삶에서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2)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십시오. (3)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엘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주었던 권고는 정확히 지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참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엘마서 37:47)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구주를 바라보며 그분께 굳건히 초점을 고정해야 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출렁이는 배 안에 있던 주님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을 때, 사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마태복음 14:27~29).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태복음 14:30~31)

저는 구주의 권유에 즉각 열렬하게 응한 베드로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봅니다. 베드로는 구주께 시선을 고정한 채 배 밖으로 발을 디뎠고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돌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다음 가르침을 따를 때 두려움을 정복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십시오

힐라맨은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주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힐라맨서 5:12)

의식과 성약은 우리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라는 기초 위에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할 구성 요소입니다. 합당하게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으며, 그러한 성스러운 결심을 충실히 기억하고 이행하며, 받아들이는 의무에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구주께 연결되어 그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속은 우리 삶의 어느 시기에도 영적인 힘과 안정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의식과 성약으로 구주의 확실한 기초 위에 소망과 행위를 굳건히 세울

때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이 성구에 묘사된 잘 수련된 인내는 영적인 이해와 비전, 끈기, 참을성,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신앙과 이를 통한 신앙을 행사하고, 삶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에 유순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할 때 기쁨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얻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42:61 참조) 어려움에 부딪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조차도 기쁘게 인내하며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 평안한 생활”(디모데전서 2:2)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며 결연히 성약의 길로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어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두려움과는 다르지만, 일종의 두려움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전에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히브리서 12:28) 또는 “주를 경외함”(욥기 28:28; 잠언 16:6; 이사야 11:2~3)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지만 경건한 두려움은 평안과 안심, 확신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연관된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교화하거나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하려는 의로운 두려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과 존중, 경외감이라는 깊은 감정(시편 33:8; 96:4 참조)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신명기 5:29; 8:6; 10:12; 13:4; 시편 112:1 참조)과 그분이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과 공의에 대한 기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두려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은 심판의 날에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어 발전합니다.(교리와 성약 101:78; 신앙개조 제2조 참조)

경전에서 확인해 주듯, 경건한 두려움은 “지식의 근본”(잠언 1:7), “지혜의 훈계”(잠언 15:33), “건조한 의뢰”(잠언 14:26), “생명의 샘”(잠언 14:27)이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마지막 심판,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망과 생각, 말, 행위(모사이야서 4:30 참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분의 면전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막연히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우리의 합리화와 가정,

자기 기만에 대한 “완전한 지식”(니파이후서 9:14; 엘마서 11:43 참조)을 지닌 채 그분 면전에 서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상에 전에 살았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혹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6:10) 우리의 소망이 의롭고 행위가 선한 것이라면, 심판대에 서는 것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야곱서 6:13; 이노스서 1:27; 모로나이서 10:34 참조)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보상을 받아 의에 이를 것[입니다.]”(엘마서 41:6)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소망이 악하고 행위가 사악하다면, 심판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바위와 산들을 명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그의 면전에서 우리를 가리우게 할 수 있다면 실로 기쁜 것[입니다.]”(엘마서 12:14)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엘마서 41:5)

이는 전도서에 요약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도서 12:13~14)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은 필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선해질 수 없으며 결코 주님의 요건이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조차도 없애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히 선해질 수 없으며 필요한 만큼 선에 부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소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니파이후서 25:23) 우리는 구주의 무한하면서도 영원한 속죄 희생으로 가능해진 자비와 은혜로만 온전해집니다.(엘마서 34:10, 14 참조)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경건한 두려움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모로나이서 8:16) 구주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그분의 기초 위에 세우며, 성스러운 결심으로 성약의 길로 전진해 나간다면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밝은 빛이 필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쫓아낼 것(교리와 성약 50:25 참조)임을 약속합니다.

간증 및 약속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평안은 실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요한복음 14:27 참조)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남녀의 결혼으로 꾸려진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국 런던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서쪽 문 상부에는 20세기 기독교 순교자 10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1906년에 태어난 뛰어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도 있습니다.¹ 본회퍼는 나치의 독재 및 유대인과 타민족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결국 나치에 적극 반대한 이유로 수감되었고, 포로 수용소에서 사형당했습니다. 본회퍼는 많은 글을 남긴 작가였으며, 가장 잘 알려진 일부 작품은 동정심 많은 간수의 도움으로 감옥

밖으로 내보낸 편지들로, 후에 그것은 옥중서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서간 중 하나는 결혼을 앞둔 조카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의 전부는 아니다. ... 사랑할 때에는 세상에 오직 너희 둘만 보이지만, 결혼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오게 하고 세상을 떠나게 한 뒤 왕국으로 다시 부르시는 여러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사랑할 때에는 두 사람의 행복만 바라보지만, 결혼을 하면, 너희는 세상과 인류를 책임지는 위치에 놓인다. 사랑은 너희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혼은 그 이상이다. 결혼은 지위이자 직분이다.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치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왕관이 있어야 하듯,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가 되려면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결혼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사랑은 너희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결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²

남녀간의 결혼이 어떻게 둘만의 사랑과 행복을 뛰어넘어 “세상과 인류를 책임지는 위치”가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태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처음에 예지로 존재했고, 하나님이 형제, 즉 영체를 주셔서 그분 영의 자녀, 곧 하늘 부모의 아들딸이 되게 하셨다고 밝혔습니다.³ 이 필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때가 이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⁵, “위대한 행복의 계획”⁶, “구속의 계획”⁷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계획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 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⁸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이미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존재를 온전, 또는 완전하게 할 길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육체적 요소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존재의 충만함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세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있을 동안 그분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다면, 즉 “첫째 지체를 지키[기로]” 동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지상에 거하기 위해 올 때, 우리에게 육체가 “더하여[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멸의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기를]” 선택한다면, “둘째 지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능력과 욕구, 열정이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해의 왕국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능력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선택으로 증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영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도록 육신에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까? 현세와 영원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신성한 권능을 얻을 만큼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악을 극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불멸의 육신을 가진 그 영광스런 존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⁹ 이런 아름다운 가능성과 약속에 우리가 “기뻐 …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¹⁰

이 신성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할 지구의 창조였습니다. 구체적인 창조 과정은 차치하고, 우리는 창조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일임을 압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¹¹

둘째는 필멸의 환경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동참할 것을 선택한 모든 사람을 위해 행동했습니다.¹² 타락을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고 하나님 면전을 떠나 필멸의 경험을 하며 배우는 데 필요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타락을 통해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¹³ 마지막으로, 타락은



필멸의 상태로 있는 시간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육체적 사망을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¹⁴

셋째는 타락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사망의 역할을 알지만,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마침내 극복해 낼 길이 없다면 그 계획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이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범법을 속죄하여 모두에게 부활과 불멸을 주기 위해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 율법에 지속적으로 완벽히 순종하지는 못할 것이기에, 구주의 속죄는 회개라는 조건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구주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사망이 끝날 것입니다.¹⁵

마지막으로 넷째는, 우리가 육체로 출생하고 나중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처럼 승영”¹⁶하게 하는 그분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도록 정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협력자가 되어 필멸의 시험에서 열쇠가 되는 육신, 즉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을 얻는 데 필수적 요소인 육신을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가족을 이루고 빛과 진리¹⁷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도록 인도하게끔 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네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 이르되,

물과 피와 내가 만든 영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하여 흠에서 생령이 된 만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¹⁸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 왔는지와, 그분께 돌아가 승영하여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 지상의 무엇도 영생의 두 전제 조건인 육체적 출생과 영적 거듭남보다 중요하지

않음이 매우 명백해집니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결혼의 “직분”이자 “인류를 책임지는 위치”이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신성한 제도가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늘의 질서에 따라 이곳과 다음 세상에서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남녀의 결혼으로 꾸러진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하고 죄 없는 자녀들이 출생할 환경과, 그들이 성공적으로 지상 생활을 하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 결혼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 일정 수를 넘어서야만 사회가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와 국가가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을 특권을 가진 제도로 권장하고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결혼과 가족은 결코 성인들의 사랑과 행복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이끄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회 과학적 정의는 강렬합니다.¹⁹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²⁰ 물론 결혼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사회 과학이 아니라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자기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결합시켜 “한 몸”을 이루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²¹ 각 개인은 그 신성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것의 의미를 아마도 가장 온전하게

이루는 길은 결혼 서약을 통해 남녀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어떤 필멸의 인간도 이 신성한 결혼 질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혼은 참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타락과 속죄만큼이나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에서 무시되는 하나님과 그분 계획에 반대했으며 그 반대는 점점 강도가 거세집니다. 그는 결혼을 방해하고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며 결혼과 가족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그것을 붕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그는 인간의 성과 관련해 신성한 부분을 모조리 공격하며 끊임없이 부도덕한 생각과 행위로써 그것들을 결혼의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결혼과 가족의 우선순위는 무시하거나 져혀둘 수 있으며, 적어도 직업, 성공, “자아 실현”,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종속될 수 있다고 사탄은 남녀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분명 대적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기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만, 필수적인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기본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여 현실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분들의 희생과 성공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배우자 감이 없는 것,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실패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 등 적어도 당장은 신앙에 그들을 드리우는 여러 이유로 결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결혼을 했으나

그 결혼이 끝이 나서 두 명도 겨우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분들 중에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며 각 세대에 신성한 계획이 펼쳐지도록 공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과 필수적인 것, 때로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필멸의 짐을 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승영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옹호하기 위해 설 때,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함께 행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께 향하는 이들이 박탈당하고 상실할 모든 것을 예측했으며, 중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신 것보다 적게 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 어머니는 자신이 이



가장 높은 부름에 부적합하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소한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뿐 염려할 필요 없이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며 그분의 믿음을 지키고 싶을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그녀가 그분의 일을 행할 때 사랑과 승인의 증거로서 그녀에게 위안을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가족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필멸의 삶 중에 이 축복을 온전히 받을 운명이건 그렇지 않건, 주님의 은혜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장차 실현될 분명한 약속을 믿는 신앙을 지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Kevin Rudd, "Faith in Politics," *The Monthly*, Oct. 2006: themonthly.com.au/monthly-essays-kevin-rudd-faith-politics—300 참조.
2.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ed. Eberhard Bethge (1953), 42~43.
3. 예를 들어, 시편 82:6; 사도행전 17:29; 히브리서 12:9; 교리와 성약 93:29, 33; 모세서 6:51; 아브라함서 3:22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인간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들 [또는 예지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며 그분이 다른 영들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습니다. ... 그분은 그분보다 낮은 예지들을 가르쳐 그분처럼 승영하여 영광을 더해 가[도록] ... 율법을 제정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10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0쪽.
5. 엘마서 24:14.
6. 엘마서 42:8.
7. 엘마서 12:25; 또한 26~33 참조.
8. 아브라함서 3:24~26.
9.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막(육신을 취하고, 충실함을 통해 그 육신을 극복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얻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주권을 얻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육신을 갖기 위해, 그리고 해외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이 순결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는 인간의 육신을 얻을 수 있을 때 기뻐했으며, 구주께서 쫓아내셨을 때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육신이 없는 것보다는 돼지의 몸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1쪽)

10. 욥기 38:7.
11. 요한복음 1:3; 또한 교리와 성약 76:23~24 참조.
12. 고린도전서 15:21~22; 니파이후서 2:25 참조.
13. 니파이후서 2:15~18; 엘마서 12:24; 교리와 성약 29:39; 모세서 4:3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의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한 것을 구함으로써 이생에서는 마음에 평안과 성신 안에서의 기쁨을 얻게 하고, 내세에서는 그분의 우편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는 거룩한 길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악의 길을 추구하여 죄 짓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정죄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히 상실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유혹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미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조직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닐 것입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13~214쪽)

14. 창세기 3:22~24; 엘마서 42:2~6; 모세서 4:28~31 참조.
15.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면전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점에서 그들조차도 속죄를 통해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속받게 된다. (히라맨서 14:17; 제3니파이 27:14~15 참조)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0쪽.
17. 교리와 성약 93:36~40 참조.
18. 모세서 6:58~59.
19.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서로 충실할 수 있으며, 결혼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나 환경에서도 꽤 성공적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 결혼의 사회적 혜택과 결혼한 남자가 이끄는 가정 어린이들의 결과적 비교 우위에 대한 증거는 광범위하다. 한편으로, 한 평론가가 말한 "범 지구적 가족 회피"에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사회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른다. 니콜라스 에버스테트는 전 세계적인 결혼과 출산의 감소와 아버지 없는 가정 및 이혼의 추세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가족 회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어린이들이 받는 해로운 영향은 이미 충분히 명백하다. 사회 전체, 특히 어린이들과 관련된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를 이혼과 혼외 출산이 악화시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물론,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가족 회피는 가장 확실히 취약한 어린이들을 희생시킨다. 또한, 가족 회피는 취약한 노인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Nicholas Eberstadt, "The Global Flight from the Family," *Wall Street Journal*, Feb. 21, 2015: wsj.com/articles/nicholas-eberstadt-the-global-flight-from-the-family-1424476179 참조)
2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1. 창세기 1:26~28; 2:7, 18, 21~24; 3:20; 모세서 2:26~28; 3:7~8, 18, 20~24; 4:26 참조.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철십인

복음의 음악

복음의 음악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느낌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 년 전에 저는 라디오에서 나바호 원주민 구역의 한 병원에서 일한 젊은 의사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응급실을 찾아온, 머리를 길게 땅은 미국 원주민 노인 한 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차트를 들고 그 분에게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똑바로 쳐다보지만 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다소 인내심이 없어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그러자 노인은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 추시나요?” 젊은 의사는 그 이상한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아마도 그 노인은 부족 관습에 따라 약이 아니라 노래와 춤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부족의 의술사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요, 저는 춤 안 춥니다. 어르신은 춤을 추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춤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노인의 대답은 여러 해 동안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가르쳐 줄 순 있지만, 그러려면 의사 선생이 음악을 들어야 해요.”

때로 가정에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춤

동작을 가르치지만 우리 가족들이 음악을 듣도록 돕는 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의술사 노인이 잘 알고 있었듯이, 음악 없이 춤추기는 힘듭니다. 음악 없는 춤은 어색하고 성취감을 주지 못하며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리와 성약 8편에서, 주님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2절) 춤 동작은 머리로 배우지만,

음악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복음의 춤 동작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고, 복음의 음악은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느낌으로서 성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며 모든 의로운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춤 동작은 극기심이 요구되지만, 춤의 기쁨은 음악을 들을 때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로 교회 회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춤을 추는 사람이 대개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또는 경건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이[하게]”(베드로전서 2:9) 보입니다. 빨간 불에서 차를 멈추었는데 옆 차선의 운전자가 목청껏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차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음악을 들을 수 없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자가 조금 기이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복음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을 배우지 않은 채 춤 동작만 배운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춤을 불편하게 느낄 것이며 이내 포기하거나 잘 못 추게 되고, 그저 주변 사람들이 추는 데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으로



계속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는 교과 과정을 춤 동작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은 복음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생활을 먼저 올바른 영적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 시대에는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와 완전하게 일치할 때까지 라디오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려서 가장 좋아하는 방송을 찾았습니다. 원하는 주파수에 가까워져도 잡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정밀하게 맞추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에서 영의 음악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침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개종을 동반하는 하늘의 음악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모사이사서 5:2) 합니다. 영은 불친절, 교만,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그 섬세한 영향력을 잃는다면, 복음의 풍성한 화음은 곧바로 불협화음이 되고 결국에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엘마는 이런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엘마서 5:26)

부모 여러분, 삶이 복음의 음악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발이 행할 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헤아리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 86~88쪽) 우리는 그 방법을 압니다. 복음이라는 음악이 선사하는 천상의 선율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걸었던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성찬을 취하면, 성신의 영향을 더 강하게 느끼며, 삶에서 복음의 음악이 다시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신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최선을 다해 가정에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또는 아빠나 엄마 또는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이나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함[으로만] … 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21:41~42)

왜 이러한 속성이 가정에서 힘과 영향력을 증가시킬까요? 이러한 속성은 성신의 영을 초대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음악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존재할 때, 가족 내 모든 무용수가 더 자연스럽게 즐겁게 춤을 출 것이며, 협박이나 위협, 강요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가 어리면, 거짓 없는 사랑의 자장가를 불러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고집스럽게 잠들기를 거부할 때는 오래 참는 자장가를 불러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십 대일 때에는 논쟁과 협박의 불협화음을 멈추고, 그 대신 아름다운 설득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 참는 자장가의 2절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완전한 화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의 속성을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친절을 베풀 때에는 함께 노래하도록 자녀에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음악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는 부지런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화음이 안 맞아 귀에 거슬릴 때, 불협화음은 비난으로 고쳐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불협화음은 방 안의 어둠과도 같습니다. 어둠을 나무라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합창에서 베이스가 너무 크거나 지배적이라면, 또는 가족 오케스트라에서 현악 파트의 음이 너무 높거나 날카롭다면, 또는 성급한 피콜로들의 음이 맞지 않거나 통제불능이라면,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음악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의 음악이 여러분의 가정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줄 날이 올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칠십인

것입니다.

연주가 훌륭하더라도, 음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레센도(점점 강하게)와 디크레센도(점점 약하게), 스타카토(짧고 날카롭게)와 레가토(부드럽게 이어서)들이 여전히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상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춤 동작에 음악을 더할 때, 결혼과 가족 생활에서 때때로 생기는 복잡한 리듬들이 조화로운 균형을 향해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어려운 시련들조차 풍부하고 구슬픈 음조와 감동적인 악상을 더할 것입니다. 신권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신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고, 권능과 영향을 뜻하는 여러분의 흠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여러분에게로 흘러올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이 일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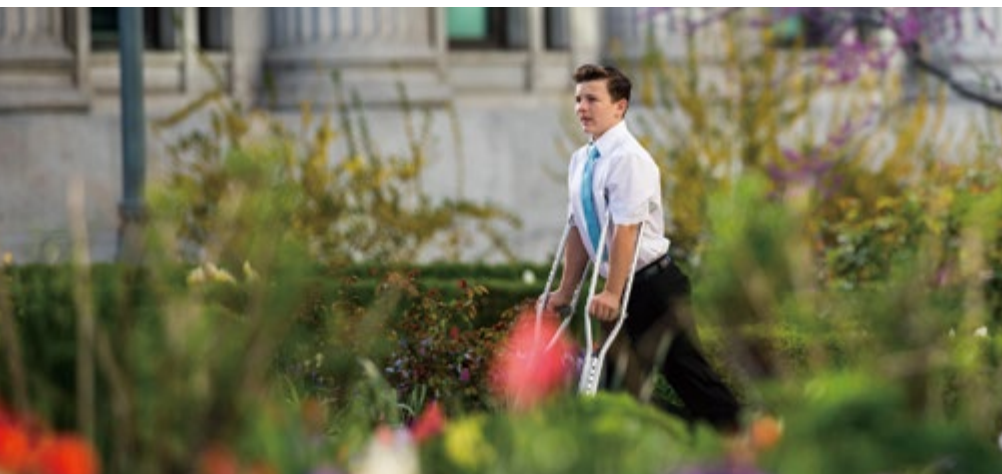
노력하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진정한 후기 성도가 됩니다.

사 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3년 12월, 전 세계는 넬슨 만델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만델라는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한 죄로 27년간 옥고를 치른 후, 남아프리카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용서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칭송과 환호를 두루 받았습니다.¹ 하지만 만델라는 이렇게 말하며 번번이 그런 찬사를 밀어냈습니다. “성자란 끊임없이 노력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한,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²

“성자(saint: 성인 또는 성자라는 뜻. 후기 성도의 ‘성도’라는 말도 또한 이 단어를 쓴다-옮긴이)란 끊임없이 노력하는 죄인이다.”²라는 말은 교회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Latter-day Saints)”로 불리지만 때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Saints)라는 용어는 거룩함의 고상한 경지나 심지어 완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일컬을 때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침례의 축복과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고,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더 충만하게 받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끊임없이 점점 더 “온전히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³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모습보다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⁴ 그분이 신경 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느냐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뜻대로 하세요*에는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인물의 삶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동생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악한 형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줍니다. 분에 넘치는 연민을 깨달은 형은 완전히 영원토록 변화되었고, 그 자신도 말했듯 “개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몇 명의 여성이 형에게 다가와 “당신은 [동생]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계락을 꾸미지 않았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이에 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개심하여 기쁨을 맛보았고 지금의 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⁵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에게 그런 변화는 문학적인 허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없더뜨리지 못할 것인즉 ...

...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⁶.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설 때 우리를 용서하시어 우리의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과거의 자기 행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했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악했던 제가 아닙니다.”⁷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의 하나는 다시 시도하는 즐거움을 주신 것이니, 결코 실패로 끝을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⁸ 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의로 죄를 지었거나 반복해서 실패와 실망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신은 절대, 너무 멀리 와 버렸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기 성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또한 죄를 극복하는 것 그 이상까지입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는 어긋난 관계, 경제적 어려움, 질병, 또는 다른 누군가가 지은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아마도 특히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받는 고통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법의 결과로 죄 없이 겪는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실 것”⁹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후기 성도들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역시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실망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인 토바는 어머니인 줄리아에게서 이 교훈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줄리아와 토바는 남아프리카의 초기 흑인 개종자입니다. 인종 차별 체제가 막을 내린 후, 교회에서 흑인과 백인 회원들이 함께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두 인종 사이의 평등한 상호 관계는 많은 이에게 새롭고도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한번은 예배 모임에서 토바와 줄리아가 일부 백인 회원들에게서 다소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교회를 나서면서 토바는 어머니에게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어머니는 토바가 불만을 다 토해낼 때까지 조용히 들어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바. 교회는 마치 큰 병원과 같단다. 우리는 모두 계각기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온단다.”

줄리아의 견해에는 귀한 통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병을 고치려고 애쓰는 동안 이를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풀고, 인내하며, 도움을 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권고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이 그들의 속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바라십니다. 속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 똑같이 무한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커티스라는 훌륭한 청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선교부 회장이 원하는 그런 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집중력 있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번은, 미숙하고 사교성이 부족하며 특히 선교 사업을 마치려는 열정이 없는 동반자와 일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커티스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동반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전거에서 내려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커티스는 무엇 하나라도 성취하려면 강하게 끌어 쥐야 하는 동반자를 지명하셔서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커티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티스, 나와 비교하면 너희 둘 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커티스는 동반자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므로 인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자 하는 권유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회개하며,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기 성도가 아니라 그저 후기의 죄인일 뿐입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면, 후기의 중도 포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기의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¹⁰ 노력하고, 인내하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진정한 후기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는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¹¹

구주의 무한한 속죄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후기 성도가 되도록 권고하시는 후기의 선지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¹² 구주가 실제로 살아 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Nelson Rolihlahla Mandela, *Long Walk to Freedom* (1994); "Biography of Nelson Mandela," nelsonmandela.org/content/page/biography; 그리고 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12/10/remarks-president-obama-memorial-service-former-south-african-president에 실린 2013년 12월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넬슨 만델라 추도사 참조.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 레닌 훈장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경력이 명시되어 있다.
2. 또한 1999년 10월 26일 라이스 대학의 베이커 협회에서 한 넬슨 만델라의 연설, bakerinstitute.org/events/1221을 참조한다. 그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남긴 유명한 말을 다르게 바꾸어 표현한 듯하다. "성자란 끊임없이 노력하는 죄인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뜻으로 이야기해 왔다. 예컨대, 공자는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3.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31:2~21; 제3니파이 11:23~31; 27:13~21; 모로나이서 6:6; 교리와 성약 20:77, 79; 59:8~9;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1.2. 참조.
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는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는 말은 구주께서 한 개인이 타인에게 지은 죄의 결과를 무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다치고, 고통을 겪으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 구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니, ...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실지"(앨마서 7:12) 것이다.
5. William Shakespeare, *As You Like It*, act 4, scene 3, lines 134~37.
6. 에스겔 33:12, 14~16.
7.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많은 성구에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인 것에 주목한다. 예컨대, 니파이후서 9:16; 몰몬서 9:14; 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8. 토마스 에스 몬슨, "마음속의 의지",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74쪽.
9. 이사야 61:1~3, 또한 누가복음 4:16~21 참조.
10. 신약전서에 쓰인 외식하는 자(hypocrite)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연극배우' 또는 '속이고, 극적으로 표현하거나 과장하는 자'(마태복음 6:2, LDS 영문 성경 주석 a 참조)를 뜻하는 '사칭하는 자'를 번역한 것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변화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후기 성도인 척하는 것이다.
11. 위의 주 4 참조.
12. 이 감명 깊은 메시지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설교에 자주 등장한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이 점을 강조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쳐 온 모든 원리를 가운데에서도 거듭 강조한 한 가지는 인간은 회개하고, 진로를 바꾸고, 제자의 참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차고 가슴 뜨거운 메시지입니다."("이제는 할 수 있어요!",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6쪽)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칠십인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우리 마음의 소망이 전환될 수 있으며 우리의 동기가 교육받고 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감스럽게도, 저는 한때 칭호와 권위에서 동기를 얻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임 선교사 봉사를 준비할 때였는데, 제 형님은 선교부에서 지역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님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서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직책을 갖고 싶었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저는 그 교훈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명사들과 친분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학식 있고, 조예가 깊고, 성공하고, 세상의 갈채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훌륭하고 축복된 영혼들을 볼 때 훨씬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¹

물론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훌륭하고 복된 영혼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시블론은 엘마 이세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들인 힐라맨과 코리엔톤에 더 친숙합니다. 힐라맨은 후에 부친처럼 기록 보관자이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코리엔톤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악명이 높아 부친의 권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엘마는 힐라맨에게 77개 절을 썼고(엘마서 36~37장 참조), 코리엔톤에게는 91개 절을 썼습니다.(엘마서 39~42장 참조) 둘째인 시블론에게는 겨우 15개 절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엘마서 38장 참조) 그러나 그 15개 구절의 말씀은 강력하고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너의 굳건함과 하나님께 대한 너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내가 네게서 큰 기쁨을 얻을 줄로 믿노니, 이는 네가 젊었을 때 주 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네가 그의 계명 지키기를 계속할 것을 내가 바랍시다. 이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음이니라.

내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 백성들 가운데서 보인 너의 충실함과 너의 부지런함과 너의 인내와 너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이미 네게서 큰 기쁨을 얻었느니라.”(엘마서 38:2~3)

시블론에게 준 말씀 외에도,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주는 말씀에서 시블론을 언급했습니다. “너는 네 형의 굳건함과 그의 충실함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그가 부지런한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가 네게 좋은 본을 보이지 아니하였느냐?”(엘마서 39:1)²

시블론은 부친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 했던 아들로, 칭찬이나 지위, 권력, 명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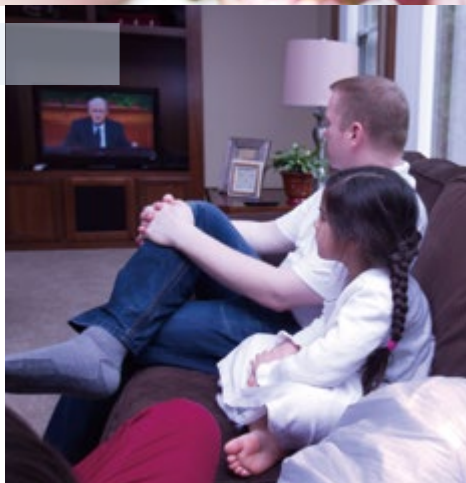


미국, 미네소타, 우드베리

권위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신성한 기록을 간수하도록 시블론에게 맡긴 것을 보면, 힐라멘도 동생의 이런 점을 알고 존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힐라멘은 시블론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힘써 쉬지 않고 선을 행하며, 주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엘마서 63:2) 이것이 시블론의 진정한 특성으로 보이지만, 그가 신성한 기록을 받았던 때부터 힐라멘의 아들인 힐라멘에게 그 기록을 넘겨 줄 때까지 그에 대해 기록된 바는 많지 않습니다.(엘마서 63:11 참조)

시블론은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돕고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엘마서 48:17~19; 49:30 참조) 스펜서 더블유 김벌 회장의 다음 말씀은 시블론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위대한 여성과 남성은 늘 지배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³

세상은 모든 일에서 칭찬과 지위, 권력과 명예, 권위를 추구합니다. 저는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훌륭하고 복된 영혼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지배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와 목적이 오직 지위와 권능을 얻음으로써만 만족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게 되도록 노력하는 데서 의미와 목적을 찾습니다. 저는 사회 경제적 위치와 종교를 막론하고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개심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분들을 특히 많이 봅니다.⁴

저는 전 세계의 와드 및 지부에서 매주 이타적인 봉사를 하며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 부름을 수행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부름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더 감명적인 것은, 공식 부름이 없는 많은 분이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들어 올릴 방법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님은 교회에 일찍 나와 의자를 놓고 늦게 남아 예배당을 정돈하십니다. 한 자매님은 일부러 와드의 시각 장애인 자매님의 옆자리에 앉아 인사를 하고 찬송가를 크게 불러 그 자매님이 가사를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와드 혹은 지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범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언제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 회원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간교함이 없는 참으로 선한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아마도 젊은 선교사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한 장로님과 함께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갔습니다. 저는 다른 선교사들이 그가 지도자로 지명된 적도 전혀 없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음에도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는 그를 제가 아는 가장 순종적이고 충실한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 시간이 되면 공부를 했고, 일할 시간이 되면 일했습니다. 제시간에 집에서 출발했고 제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어를 특히 어려워했음에도 한국어를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선교사가 성공적이지 못한 선교사로 잘못 평가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선교부 전체에 이 장로에 대해 제가 발견한 점들을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는 제 뜻을 선교부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젊은이가 성공적인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며, 저도 압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장로님도 압니다. 그 밖에 또 누가 중요합니까?” 현명하신 선교부 회장은



세계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칭찬이나 지위, 권력, 영예,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칭호에 너무도 집착했던 젊은 선교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명심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짚어 보고 제가 얼마나 자주 큰 칭호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블론과 같은 영혼 중 한 분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미나리를 배웠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한 분은 세미나리를 가르친 지 이십 년밖에 안 됐지만,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분은 아니셨을지 몰라도, 항상 준비를 잘 해 오셨고, 세계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저는 그분을 몇 차례 뵈었는데, 한 번은 제 부친의 장례식장에 저를 보러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칭호나 권능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헌신적인 선생님을 존경하며, 또한 그분과 같이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많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학생들을 일요일에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아침 식사에 초대하여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존경합니다. 와드 청남 청년의 운동 경기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이웃에게 격려 편지를 쓰는 남성과 성탄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방문이 필요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노인성 치매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부부를 위해 매일같이 차를 태워 주시는 형제님을 존경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은 칭호나 권위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시블론처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름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또는 지위나 칭호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봉사를, 심지어 교회 참석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대해 들을 때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들도 언젠가 제가 젊은 선교사였을 때 배운, 가장 중요한 봉사는 대개 하나님 혼자만 아신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형제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하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우리 마음의 소망이 전환될 수 있으며 우리의 동기가 교육받고 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무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고린도후서 5:17; 모사이야서 27:26 참조) 성찬을 취하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⁵

그 성약 안에서 견딜 때,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할 힘을 얻습니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그 성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줄 은혜를 찾습니다.⁶ 그 성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제해 주시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4:16 참조; 또한 11~15절 참조)

제가 진정으로 이생에서 바라는 것은 지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며 좀 더 시블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⁷

세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통해 희망을 준 시블론과 같은 영혼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와 동정심 많고 돌보아 주시는 구주에 대한 증거를 봅니다. 좀 더 그들처럼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의 간증에 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합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여 내이까?”,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58쪽; 강조체 추가.
2. 힐라맨은 조랜인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마가 “네 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시블론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마서 31:7; 30:2 참조)
3. 스펠서 더블유 김블, “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2쪽.
4.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으로 진정으로 개종하면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웃을 들어 올리는 봉사로 돌아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개종하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에 대해 회개하는 신앙을, 또한 자신보다 타인을 보살피는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개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시기를 내려놓을 힘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간증과 개종,” 리야호나, 2015년 2월호, 4~5쪽)
5. “[하나님]은 불멸이며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필멸이며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필멸의 생에서도 그분과 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 권능의 은혜와 위대함에 어느 정도 접근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순간들은 침례 받고 확인받는 것 ... [그리고] 주의 만찬의 상징물을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Jeffrey R. Holland, *To My Friends* [2014], 80)
6.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후기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연스럽게 결심을 하고 지킵니다. 구원의 계획의 특징은 성약입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이생에서 그리고 영원을 두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요구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그분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나 성약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힘을 포함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법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표준에 미치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성신을 동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심을 지키는 우리의 힘과 선하고 참된 것을 분별하는 힘이 증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세적 학문과 영원을 위해 필요한 배움에서 배우는 권능입니다.” (Henry B. Eyring, “A Child of Go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21, 1997], 4-5; speeches.byu.edu) 또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쉽게 그들의 집을 지게 하시매”,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87-90쪽 참조.
7. 어릴 때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라면서 간증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시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제 인생 목표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주는 나의 빛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굳건하고 진실하게 자리 잡고 서서 구주를 따르는 능력은 의로운 가정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합한 와드와 지부 안에서 놀랍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속을 되새기며 기쁨을 느낍니다.¹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만연해진 전 세계의 소란은 감정에 상처를 입힙니다. 현대의 소통 방식으로 부당하고 불평등하며 정의롭지 못한 영향을 입은 많은 이들은 삶이 본래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성스러운 중재를 치르신 일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주께서는 말 그대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² 그분은 자비와 연민으로써 우리가 행한 죄악과 범법을 친히 짊어지셨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회개하고 당신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³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은 필멸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은혜로운 행위는 미처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큰 화평을 안겨 줍니다.³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의 가혹한 현실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제 아내 메리는 늘 해바라기를 좋아했습니다. 길가의 예상치 못한 장소에



해바라기가 보일 때면 아내는 무척 기뻐합니다. 저희 조부모님이 사시던 마을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설 때면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경이로운 해바라기 밭을 보게 되는 건가요?” 농기계와 제설 장비로 짓밟히고 야생화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물질이 쌓여 있는 땅에 해바라기가 만발해 있는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쾌적하지 못한 땅에서 자란다는 것



어린 야생 해바라기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이 어린 꽃봉오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외에도 어린 야생 해바라기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 어린 꽃봉오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노랑으로 피어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힘을 얻습니다.

어린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를 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하여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구주께서는 밭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방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일을 하는

자들을 당신 왕국에서 거두어 내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⁴ 그러나 충실한 이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⁵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소동이 한창인 이 적대적인 세상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한 명 한 명은 구주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겸손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굳건하고 진실하게 자리 잡고 서서 구주를 따르는 능력은 의로운 가정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합한 와드와 지부 안에서 놀랍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⁶

우리 집의 현재 시간은

하나님 계획에서 가족의 역할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우도록 우리를 도우며 영생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⁷입니다. 가정에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오는 종교 활동이 자녀의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제 삼촌인 본 로버츠 킴볼은 훌륭한 학생이자 전도유망한 작가였고 브리검 영 대학교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이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고 그다음 날이었던 1941년 12월 8일, 삼촌은 미 해군에 입대하셨습니다. 뉴욕 주 알바니에서 입대할 청년들을 모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삼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짧은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잡지사는 원고료로 200 달러를 지불하고 1944년 5월호에 “우리 집의 현재 시간은”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실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삼촌 본인이 수병으로 등장하는 그 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현재 시간은

뉴욕 주 알바니에서 보낸 어느 저녁, 나는 한 수병에게 시간을 물었다. 수병은 큰 시계를 꺼내더니 ‘7시 20분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이른 시각일 리 없었기에 다시 물었다. ‘시계가 멈췄군요, 그렇죠?’

그는 말했다. ‘아닙니다. 산악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유타 남부 출신입니다. 제가 입대할 때 아버지께서 이 시계를 주시며 이게 집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키면, 아버지가 우유를 짜러 나가실 무렵이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녁 7시 30분이면, 온 가족이 잘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고, 아버지는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지켜 주십사 간청하실 것입니다. ... 저는 세계 가장 편안한 장소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타의 현재 시각입니다.”⁸

이 글을 투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삼촌은 태평양에서 군함에 오르셨습니다. 1945년 5월 11일, 삼촌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USS 벙커 힐(USS Bunker Hill) 호를 타고 임무 수행 중이었는데, 자폭 특공기 두 대가 날아와 군함을 폭파했습니다.⁹ 400여 사망자 중에는 본 삼촌도 계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장로님은 본 삼촌의 아버지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본 삼촌의 합당함과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맞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¹⁰는 주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얘기하셨습니다. 본 삼촌의 아버지는, 본 삼촌은 수장되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늘 집으로 삼촌을 데려갈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¹¹

28년이 지나고,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도 연차 대회에서 제 삼촌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잘

알았습니다. ... 저는 [이들]과 수 차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 가정에서의 훈련은 이 대가족에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김볼 회장은 모든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하루에 두 번씩 기도”¹²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신권 축복 및 안식일 준수를 충실히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이 가정에서 무엇을 할 시간인지를 알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 자녀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정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신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협력자입니다.¹³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보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온 가족의 축복입니다. 남편이 신권을 받는 것도 온 가족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가족 평의회에서 동등한 협력자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하고 어디에서 생활할지를 비롯해 가정의 여러 사안을 결정합니다. 이는 주님의 인도를 구한 뒤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목표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빛은 주님의 모든 자녀가 가족의 영원한 본질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하지만] ... 가족은 진실하고 견고하며 영원한 것이다. 돌보고 보살피며 충실해야 할 대상이다.”¹⁴

교회는 우리가 가족으로 단합하여 구주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조직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구원과 승영을 받기에 합당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신권 권세를 제공[합니다.]”¹⁵

세상에는 갈등과 부정이 만연하며 문화의

이질성과 불평등도 크게 두드러집니다. 교회에서는 언어별 단위 조직을 제외하고는 지리적인 기준으로 와드와 지부를 구분합니다. 계층이나 계급으로 구분 짓지 않습니다.¹⁶ 우리는 모든 인종과 문화가 의로운 회중으로 한데 섞여 있음을 기쁘게 여깁니다. 와드라는 가족은 발전하고 행복해지며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문화는 사람을 구분 짓고 폭력과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¹⁷ 물문경에서는 폭력과 전쟁, 악행과 부정, 백성과 나라의 파멸로까지 이어진 사악한 조상의 전통을 결코 잊을 수 없는 말들로 묘사했습니다.¹⁸

경전에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회 문화를 설명하는 그 시작점으로, 제4니파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16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여기서 다툼이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¹⁹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문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화의 심오한 가치와 믿음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희생, 감사, 신앙, 의로움의 전통은 소중히 여기고 보존할 것들입니다. 가족은 신앙을 키우는 전통을 누리고 지켜내야 합니다.²⁰

어떤 문화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일곱 개의 언어별 단위 조직이 있었습니다. 언어를 존중한다는 우리의 교리와 성약 90편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무릇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은 …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모국어로 기도할 때에 이 언어는 그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입니다. 이런 마음의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 형 조셉은 수년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연로한 사모아인 교회 회원이 형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형제님은 심각한 통증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형제님은 신장 결석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충실한 회원은 자신이 찾아온 원래 목적이 어디가 아픈

건지 알아서 건강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사모아어로 기도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원리에 따라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자기 마음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²¹

언어가 다르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단합과 사랑으로 마음이 엮여야 합니다.²²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²³ 우리는 적절한 문화적 다양성을 귀히 여기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 안에서 단합하고자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금 더없이 굳건합니다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문이나 걱정거리가 생긴 회원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로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염려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독립된 신앙과 간증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끈기 있고 겸손하게 공부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며, 복음 원리를 따르고 적합한 지도자와 의논하는 것이 의문과 걱정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교회를 떠나는 회원들이 많아졌고, 의심과 불신도 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금 더없이 굳건합니다. 교회 기록상 이름을 삭제하는 회원은 항상 극소수였으며 최근에 그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기도 했습니다.²⁴ 현재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 온전한 심일조를 내는 성인 회원, 선교 사업 중인 회원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영역의 숫자는 놀랍도록



증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더없이 굳건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십시오.]”²⁵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면한 혹독한 현실이 어둡고 험겁고 견디기 어려워 보인다면, 영혼을 괴롭히는 겹세마네의 어둠과 헤아릴 수 없는 갈보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주께서 속죄를 치르셨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 이생에서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짐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시기에 그분은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구조될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묻히더라도 말입니다.

이생과 영원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개인 및 가족의 의로움, 교회의 의식, 그리고 구주를 따름을 통해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는 피난처입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속죄가 여러분의 이해력을 능가하는 보호와 축복을 주리라는 지식으로 결연하게 의로움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주를 기억하고 성약을 지키며, 어린 해바라기가 햇빛을 따라가듯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빛과 모범을 따르면 기쁨과 행복, 화평이 옵니다. 시편 27편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서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²⁶라고 찬양하듯 말입니다.

이 부활절 주말을 맞아, 저는 구주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엄숙히 전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분이 신성하시고 속죄가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9:20~22 참조.
2. 모사이야서 15:8~9 참조.
3. 빌립보서 4:7 참조.
4. 마태복음 13:41 참조.
5. 마태복음 13:43.
6. 교리와 성약 115:5~6 참조.
7.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4.
8. Vaughn R. Kimball, “The Right Time at Home,” *Reader’s Digest*, May 1944, 43.
9. 미 해군 USS *Bunker Hill* 호의 대령 지 에이 사이츠가 본 김볼의 부친 크로지어 김볼에게 보낸 편지, 1945년 5월 25일 자, 유타 주 드레이퍼 참조.
10. 스펜서 더블유 김볼이 크로지어 김볼에게 보낸 편지, 1945년 6월 2일자; 그리고 교리와 성약 42:46 참조.
11. Crozier Kimball, Marva Jeanne Kimball Pedersen, *Vaughn Roberts Kimball: A Memorial* (1995), 53 참조.
12. Spencer W. Kimball, “The Family Influence,” *Ensign*, July 1973, 17. 당시 스펜서 더블유 김볼은 심이 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다.
1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14. Carla Carlisle, “Pray, Love, Remember,” *Country Life*, Sept. 29, 2010, 120.
15. 지침서 제2권, 1.1.5.
16. 제4니파이 1:26 참조.
17. 문화는 오늘날 세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말이다. Merriam-Webster.com은 2014년 올해의 단어로 문화(culture)를 선정하기도 했다.
18. 앨마서 9장: 힐라맨서 5장 참조.
19. 제4니파이 1:15.
20. 독일 철학자 괴테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중에서)
21. 교회가 50가지 언어로 복음을 가르치고 110가지 언어로 문물경을 번역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각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문제이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라나는 세대가 현재 그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자녀들이 모국어를 마음의 언어로 삼게끔 도와야 한다.
22. 모사이야서 18:21 참조.
23. 교리와 성약 38:25, 27.
24. 지난 25년간, 교회를 떠난 회원의 실제 숫자는 줄고 교회는 거의 두 배로 규모가 커졌다. 교회를 떠난 사람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25. 교리와 성약 18:10.
26. 시편 27:1; 또한 “주는 나의 빛”, 찬송가, 48장 참조.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 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일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선교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기회입니다. 이 훌륭한 장로들과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에서 언제나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과 악수를 하고 놀라운 영과 신앙을 느끼는 매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훌륭한 우리의 아들딸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야!'라고 말합니다.

2002년 본부 신권 모임에서 저는 감독, 부모, 그리고 미래의 선교사들에게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해 "표준을 세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입니다. 우리는 ... 합당하고, 자격을 갖추고, 영적으로 왕성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는 ... 완전하고 총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아는 용맹스럽고, 사려 깊고, 열정적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¹

지금의 세상에는 여러 면에서 13년

전보다 더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선교 사업과 행복한 미래의 삶 모두에 대한 준비를 흐트러뜨릴 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거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휴대 기기는 하나님의 대가족들의 주의를 위대한 선과 엄청난 악 두 가지 모두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교회에서 현재 봉사 중인 선교사들과 미래의 선교사들, 귀한

선교사 및 모든 청년 성인 형제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여정을 따라 흥미진진하고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초기 시절,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 총관리 역원과 접견을 했습니다. 요즘은 선교사 봉사를 하기 위해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평생 총관리 역원과 접견할 일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천오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교회가 되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모든 총관리 역원은, 저희가 여러분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은 모든 선교사를 각각의 선교부로 지명합니다. 그 일이 개인적인 접견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과학 기술과 계시가 결합되어 놀라운 정도로 친밀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이 감독님 및 스테이크 회장이 보낸 주요 정보와 함께 컴퓨터 화면에 보입니다. 사진이 나타날 때, 저희는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선교사 추천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검토합니다. 그 잠깐 동안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직접 대답을 들려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볼 때, 저희는 여러분이 충실하고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날 요구하는 “높은 표준”의 모든 면에 적합하다고 신뢰합니다. 그 후, 주님의 영의 권능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지명에 따라 여러분을 전세계 교회의 406개 선교부 중 한 곳으로 지명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얼굴을 마주하는 개인 접견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합니다.

화상회의는 저희가 교회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귀환하신 분들, 그리고 모든 청년 성인들과 바로 지금 몇 분 동안

개인적인 화상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밤 어디에 계시든, 마치 방에 여러분과 저만 있는 것처럼 몇 분 동안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며, 여러분이 지닌 간증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주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중하게 듣고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 선교사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다른 말로 바꿔 보자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현시대의 젊은 후기 성도로서 겪는 매일의 시련과 유혹을 헤쳐 나갈 때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아는, 용맹스럽고, 사려 깊고, 열정적인 청년 성인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선교사뿐 아니라 귀환 선교사와 여러분 세대 모두를 위해 표준을 세울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 여러분은 경전을 정기적으로 찾아보니까?
2.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3. 현금을 많이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매달 금식하고 금식 현금을 냈니까?
4. 성찬 준비와 축복, 전달을 요청받거나 성찬을 취할 때, 구주와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니까?
5. 여러분은 모임에 참석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니까?
6. 가정과 학교, 교회, 직장에서 정직하니까?
7.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니까? 부모님, 교회 지도자나 구주께 보는 모습을 들킨다면 당황할 만한 외설물, 웹사이트, 잡지, 영화 또는 틸터나 스냅챗 사진들을 포함한 앱을 보는 것을 피하니까?
8. 영적인 민감성을 둔하게 만들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부적절한 과학 기술 및 소셜 미디어를 피하면서 시간 사용에 신중을 기하니까?
9.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변화시키고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짧게 만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정직하고도 사려 깊게 대답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간단한 원리들 중 어떤 것에서라도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용기를 내어 회개하고 의로운 제자 신분의 복음 표준에 따라 삶을 재정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깊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귀환 선교사 여러분에게 가족과 삶을 위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귀환 선교사”란 “은퇴한 물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환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여러분]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² 합니다.

선교 사업 중에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데 매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을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학교나 직장, 또는 사회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매일 지속적으로 성역을 베풀어야 함을 상기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영적 경험을 하도록 생활에 균형을 잡으십시오.

선교 사업 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청년 성인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외롭고 병들거나 낙담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임무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말합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졸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성인 여러분은 종교 교육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³ 만약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기마다 지속적으로 종교 교육 수업을 하나씩 들으십시오. 선교 사업이나 영원한 결혼 및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동안, 여러분은 성신을 통해 영감과 인도를 받으며 성장하고 배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또는 종교 수업을 통해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공부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든 그렇지 않든, 대학에 다니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너무 바빠서 복음을 공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또는 종교 수업은 선지자 및 사도들의 가르침과 경전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분의 생활에 균형을 가져올 것이며, 세속적인 교육에도 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청년 성인에게 알아보고 참석하도록 권장하고 싶은 새로운 네 가지 훌륭한 강의를 있습니다.⁴

또한 여러분 지역의 종교 교육원이나 청년 독신 성인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활동들을 통해 다른 젊은 남녀와 함께하고,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어울리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휴대폰을 내려놓고 실제로 조금만 주위를 둘러본다면, 종교 교육원에서 미래의 동반자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조언을 짧게 드리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당연히 하리라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신 성인 여러분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몇몇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결혼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의로운 데이트, 구애와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많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사람 목소리를 실제로 듣게 되면 그녀는 깜짝 놀라 네, 하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형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 삶에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고치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간증합니다.

오늘 밤, 내일 있을 부활절 일요일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며 저와 함께 잠시 멈추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속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죄를 짚어지셨습니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구주께서는 겻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과 도전과 비극을 경험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게 되셨습니다.⁵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이려 돌아가셨고, 그 운명적인 밤에 새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 각자에게 새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끝까지 견딜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며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셨음을 압니다.

형제 여러분, 강해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봉사하고, 미래에는 사람들을 이끌도록 준비하는 청년 성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7쪽.
2. 교리와 성약 58:27.
3. 제일회장단 서한, 2011년 4월 21일자 참조.
4. “New Religion Classes to Be Offered at Church Universit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lds.org/topics/education/new-religion-classes? 참조.
5. 모사이야서 3:5-13 참조.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더욱 굳건히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일상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전체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특권에 겸손해집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서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살아가기 무서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또는 그 중간에 있든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고 파괴할 잠재력을 가진 것에 노출되는 일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죄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전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¹

우리는 모두 몬슨 회장님의 말씀처럼 나이가 많은 적든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과 그의 천사들은 우리를 방해하려 애쓰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에서 벗어나 영원한 상속을 망각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모두 발표될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위대한 천국 회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어둠의 안개[로] ...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을 넓은 길로 이끌어 낸즉 그들이 멸망하여 잃은 바 되[도록]”²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반대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대로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결심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경전은 매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수 많은 예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 가운데 한 가지가 물몬경에 나오는 모로나이 대장입니다. 이 훌륭한 젊은 남성은 니파이인 국가 전체의 생존을 크나큰 위험에 빠뜨렸던 수많은 불화와 전쟁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려는 용기를 지녔습니다. 모로나이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뛰어난게 처리했음에도 겸손했습니다. 겸손함과 그가 지닌 다른 성품은 모로나이를 당시 주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지 왓슨



엠 러셀 메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철심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킨스턴



엠 휘트니 톰페인



도널드 엠 홀스트롬



리처드 에이 메이어즈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올리세스 소아레스



린 지 라스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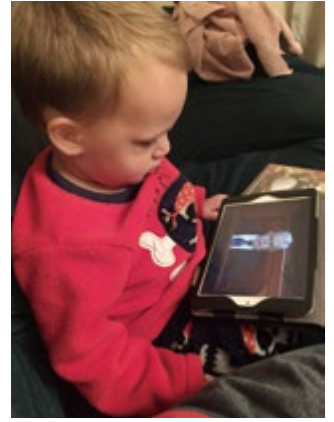


사진: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미국 오리건 맥민빌의 교회 회원과 선교사, 아르헨티나 네우켄, 산마르틴 데 로스 안데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핀란드 헬싱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노르치 나타우, 멕시코 캄페체 시우다드델카르멘, 프랑스 페르피냥,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영국 런던



들린 비범한 도구가 되도록 했습니다. 엘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로나리와 같을진대 “지옥의 권능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³고 설명했습니다. 모로나리의 모든 특성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신앙⁴과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음성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결심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악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대의 모로나리 대장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모로나리 대장으로 자신을 변모시킨 아주 충실한 젊은 집사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힘써 따르려 애써 온 만큼,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의 신앙과 결심은 매일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제게 어느 날 그가 아주 대처하기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놀라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외설적인 이미지들에 접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청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자신의 인기인지, 아니면 의롭게 살겠다는 자신의 신앙과 결심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몇 초가 흐른 후에 그는 용기로 충만해져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것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친구들 대부분이 그의 권고를 비웃으며,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그 권고에 귀 기울여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집사의 본보기가 최소한 반 친구 한 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와 그의 친구는 이 결정으로 조롱과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엘마가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권고를 따랐습니다. “너희는 악인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⁶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는 제일회장단이 교회의 모든 청소년을 위해 승인한, 다음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늘 여러분을 유념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설사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 그러한 선택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도덕적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⁷

대적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끌어내리려는 것이므로, 선과 악의 전쟁은 우리의 생애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선한 것을 오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락할 때에만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전에는 대적에게 허락함으로써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자신의 삶을 멸망으로 치닫게 했던 니헤나 코리호어, 시렘과 같은

몇몇 사람들의 예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원리 및 교리와 모순되는, 인기 있는 메시지를 용납하여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메시지들 중 상당수는 죄를 정당화하도록 우리 사회가 부추기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선하든지 악하든지 [우리]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⁸ 것임을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메시지들에 맞서, 의를 택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굳건한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신뢰와 신앙을 그분께 둔다면 의를 선택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품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에게 “성신의 권능으로 …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며 “또 성신의 권능으로 …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⁹ 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을 통해 얻는 이 지식은 다름아닌



우리의 간증입니다. 세상의 인기 있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후기에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결심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대적의 불화살¹⁰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방어하는 방패가 될 것이며, 이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¹¹

저는 이 원리를 젊은 선교사 시절에 배웠습니다. 저와 동반자는 교회의 아주 작고 멀리 떨어진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 도시의 모든 사람과 대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맞이해 주었지만 경전 구절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즐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참됨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매번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바람에 완전히 갈팡질팡하며 혼란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있던 복음 진리와 우리의 간증을 더 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간증을 나누었을 때 성신으로부터 온 조용한 확증의 권능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혼란이나 논박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진실한 간증에 존재하는 권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기만하거나, 뒤엎을 수 있는 악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주께서 몸소 가르치신 바와 같이 대적은 이 세상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잃게 하려고 우리를 밀까부르듯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¹²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엄청난 혼란과 의심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더욱 굳건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일상의 전투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거둬 다른 이들을 구주의 표준에 따라 살도록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전에 실린 가르침 속에서 안전을 찾으도록 권고합니다. 모로나이 대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경전에서 찾은 지식과 지혜와 일치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신뢰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현재 선지자들의 현명한 말씀에서 안전을 찾으도록 권고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결을 유지하고 신권을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의로운 본보기가 [되며 우리는] …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¹³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공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어려움과 곤경과 유혹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래리 엠 김슨
최근 해임된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¹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¹⁵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¹⁶

이 진리들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2. 니파이전서 12:17.
3. 엘마서 48:17.
4. 엘마서 48:13 참조.
5. 엘마서 43:23~24; 48:16 참조.
6. 엘마서 5:57.
7.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년), 2쪽.
8. 제3니파이 27:14 참조.
9. 모로나이서 10:4~5.
10. 에베소서 6:16; 교리와 성약 27:17 참조.
11. 요한계시록 12:11 참조.
12. 누가복음 22:31~32 참조.
13. 토마스 에스 몬슨, “무사히 본향으로 인도되기를”,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68쪽.
14. 요한복음 14:6.
15. 요한복음 8:12.
16. 요한복음 16:33.

아버지-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 각자가 우리 가족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그분의 일과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들고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저는 돈이 생기면 저를 위해 거의 즉시 써 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 이층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창 밖을 내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보이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건물들이랑 하늘, 사람들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많니?” “아주 많아요!” 그런 다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건네 주시면서 “이게 뭐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일 달러짜리 은화잖아요!”

아버지는 화학 지식을 동원하여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화를 녹여 적당한 성분과 혼합하면 질산은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창문을 질산은으로 입히면, 무엇을 보게 될까?”

제가 대답을 못하자 아버지는 전신 거울로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가 보이지?” “저요.”

“아니란다. 너는 네 모습을 반영하는 은을

“이렇게 은만 바라보면, 너 자신밖에 볼 수 없게 되지. 그건 휘장처럼 작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만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운명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단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은만 바라보면, 너 자신밖에 볼 수 없게 되지. 그건 휘장처럼 작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만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운명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단다.

래리,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질 거야.]'(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3 [영문 마태복음 6:33 각주 a에서 발췌함])

아버지는 그 은화를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화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운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 주셨고,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아버지의 모범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Decisions Determine Destiny"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Nov. 6, 2005], 2, lds.org/broadcasts 참조)

그렇다면,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달성하길 원하시는 영원한 운명, 즉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이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열두 살과 열세 살 난 두 아들과 50/20 경주에 참가했을 때 그런 이해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50/20 경주란 50마일(80킬로미터)을 20시간 내에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 9시에 출발하여 밤이 지나 이튿날 아침이 되도록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정말 힘든 19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해냈습니다.

그러고는 말 그대로 기어서 집에 돌아왔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또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 놓았지만 우리는 입도 대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쓰러졌고 큰 아들은 기어서 아래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고통스러운 휴식을 취한 후, 작은아들이 아직 살았는지 확인하러 가

보았습니다.

"괜찮니?" 하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제 평생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었어요. 정말이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역시 다시는 하지 않을 거란 말 대신, 그렇게 힘든 일을 해 낸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앞으로 이 아이가 겪게 될 다른 힘든 일들을 위한 준비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약속하마. 선교 사업을 나가서는 절대로 하루에 50마일을 걷는 일은 없을 거다."

"좋아요, 아빠! 그렇다면 같게요."

그 짧은 대답에 제 영혼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래층의 큰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옆에 누워 아이를 어루만지며 "아들아, 괜찮니?" 하고 묻자

"아빠,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에요. 그걸 다시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가장 거룩한 신권 의무 중의 하나가 아버지가 되는 것임을 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대화할 때 사용하길 바라시는 바로 그 직함과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불씨를 키워 주어야 할 책임이 제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구주의 다음 말씀은 아버지인 제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한복음 8:28).

저는 제가 하늘 부모님의 선택받은 딸과 결혼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다섯 아들과 딸 아이가 저에게서 영원한 결혼과 아버지가 되는 것과 가정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항상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명언)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매일 여러분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이행해 나가는 여러분을 지켜보며 어떻게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그들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듯이 *자녀 각자*를 대하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여러분의 아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관리하는 것과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형제 여러분, 제 영혼을 다해, 다음 질문을 깊게 생각해 보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시키실 일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답이 네! 이길 바랍니다. 만약 아니요, 라면 바꾸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간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거룩한 성전 의식을 받으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 임무와 의무를 완수하고, 그 후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딸과 성전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에 따라 영적인 면에서 가정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20:44; 46:2; 107:12 참조)

저는 온 세상의 많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버지가 되는 걸 배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과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 나오는 *여러분의* 아론 신권 의무를 살펴봅시다. 이 의무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봉사에 적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오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59절)

“[그들을]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53절)

여러분의 가족에게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46절)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니라.”(47절)

“[여러분의 가족]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54절)

“[여러분의 가족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55절)

아버지가 축복사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돕고, 아버지께서 안 계시실 때에는 신권 권능으로 어머니를 돕습니다. (52절, 56절 참조)

요청에 따라 가족 중에 있는 “다른 교사, 교사, 집사를 성임[합니다.]”(48절)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일과 역할*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론 신권의 의무를 완수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자료는 의무를 완수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배우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을 달성할 목표를 세울 때 지침과 도움이 될 수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사업과 영원한 목적으로 이 특정한 때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은 항상 그분께 인도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염려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달성할,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은 속죄를 통해 우리의 불안정함을 극복하도록 도우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성신이 증인과, 동반자, 안내자가 되어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족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생에서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그분의 일과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모세서 1:39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진실함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받고 싶다는 유혹을 물리치고, 더 큰 명예를 추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18 세기 후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몇몇 외국 대사들을 대동하고 러시아 제국의 남부 지방을 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지방의 총독이었던 그리고리 포툼킨은 필사적으로 그 방문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방의 업적을 보여 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여정의 일부로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내려가던 예카테리나 여제는 강가에 늘어진 마을들이 부지런하고 행복한 주민과 함께 번창하고 있다며 대사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게 가짜였다는 점입니다. 포툼킨은 판지를 사용하여 집과 상점의 외관을 조립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바쁜 척하는 농부들을 배치하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어귀에서 방문객 일행이 사라지면 포툼킨의 사람들은 가짜 마을을 챙겨 서둘러 강 하류로 내려가 예카테리나의 다음 방문에 대비했습니다.

현대 사학자들이 이 이야기의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오긴 했지만, 세상에는 “포툼킨 마을”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 낱말은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 애쓴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정 올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수가 집의 겉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든지, 어린 아른 신권 형제들이 행어나 특별한 누군가와 마주칠까 봐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구두를 잘 닦는다든지, 몸에 좋은 향을 낸다든지, 가정 복음 교사가 오기 전에 더러운 그릇을 치우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유용한 것도 기만적인 것으로 변모해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난]”¹ 사람들에게 대해 늘 경고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죄가 있더라도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동정하셨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위선자들에게는 의분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마땅히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억압하며 세상의 칭송이나 영향력과 부를 얻고자 의롭게 보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²라는 비유로 그들을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 교만[이나] ...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는”³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와 같이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³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어째서 계시자 요한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 것처럼, 내심으로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서]”⁴ 왜 겉으로는 활발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려 애쓸 때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⁵으로 착각한 채, 단순히 복음의 정수에 몰두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영향력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자 정신을 외부로 표현하려 할 때 특히 위험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바리새인의 영역으로 진입할 위험에 처한 순간이므로, 마음을 살펴 즉시 진로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포퓰리즘 프로그램

실제보다 더 잘 보이려는 이런 유혹은 개인 생활뿐 아니라 교회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저는 지도자들이 한해 목표를 야심 차게 세웠던 한 스테이크를 압니다. 목표는 모두 가치 있어 보였지만, 고상하고 인상적인 발표, 또는 숫자나 퍼센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표에 관해 토론하고 동의하긴 했으나 스테이크 회장에에게는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와 같은 스테이크 회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의심이나 외로움으로, 혹은 건강 상태가 심각한데

보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파경에 이른 결혼이나 중독, 실직, 정신 질환으로 버거워하는 회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질문이 거듭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들은 그 회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회장은 “무엇이 우리가 베풀 성역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더라면 스테이크의 목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은 평의회를 다시 열고 사람들과 함께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주린 자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⁶ 일이 없도록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그들은 이런 목표의 성공 여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나 하나님의 사랑, 타인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까?

또한 그들은 “셀 수 있는 것 중 상당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셀 수 없는 것 중 상당수가 진정으로 중요하다”⁷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종종 현대판 포퓰리즘 마술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멀리서는 근사해 보이지만



브라질, 히우그란지두노르치, 나타우

사랑하는 이웃의 진정한 어려움은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신권 소유자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신다면, 그분이 프로그램이나 통계 숫자를 눈여겨보실까요? 구주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 우리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는지, 배우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그들이 진 짐을 얼마나 덜어 주는지를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주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가 하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곳 모임에 와 있는가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피상적으로 답을 한다면, 몬슨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 지명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제가 이곳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모임에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더 높은 이유를 압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대업에서 그분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으로 교화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감 어린 모범으로 고양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살필 방법을 배우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유도 같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를 따르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명예롭게 짊어집니다.

불꽃에서 모닥불로

우리의 간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든, 우리의 교회 활동이 포퓰린 마을에 더 가깝든 간에, 다행스러운 소식은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힘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 원리를 적용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 정신에서 나온 티끌 같은 행동도, 미약한 믿음의 불씨도 인내와 끈기만 있다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은 헌납된 삶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닥불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작고 나약하게 느껴질 때는 그저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십니다.⁸ 우리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기]”⁹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¹⁰

하나님께서 손을 뺐으시어 교회 본부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가난한 독일 난민 한 사람을 지탱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손을 뺐으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능력이 분명 있으십니다.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바람처럼, 여러분이 빛과 진리의 진실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명백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¹¹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참된 원리를 계속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어떤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¹²

교회는 숨김이 아닌 치유의 집이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혹은 교리적이거나 조직적인 걸치레 뒤에

숨는다면, 그런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꾸며낸 제자 정신은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구주의 속죄라는 기적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교회는 자동차 전시장, 즉 우리 자신을 내보여 사람들이 우리의 영성과 역량, 발전상에 감탄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수리해야 하는 자동차가 정비와 원상회복을 위해 오는 정비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와 정비,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¹³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¹⁴

이 땅 위를 걸었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었고, 또 가장 큰 성취를 이루신 주님은 동시에 가장 겸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몇 명의 목격자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가장 인상적인 봉사들을 하시고서 당신이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¹⁵ 누군가 그분더러 “선하다”고 일꾼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며 곧바로 그 칭찬을 돌리셨습니다.¹⁶ 세상의 칭송은 그분께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를 섬기며,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¹⁷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모범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기를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 그분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그분이 섬기셨듯이 섬기며, “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고]”¹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¹⁹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거룩한 부름입니다.²⁰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정원회, 와드와 스테이크, 지역 사회와 나라에서 봉사할 때 주목받고 싶다는 유혹을 물리치고, 더 큰 명예를 추구함으로써,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훌륭하고 진실하며 고결한 존재가 되는 길을 걷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29:13.
2. 마태복음 23:27.
3. 교리와 성약 121:37.
4. 요한계시록 2:4.
5. 조셉 스미스—역사 1:19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84:20 참조.
6. 몰몬서 8:39.
7.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기인함.
8. 이터서 12:27 참조.
9. 사도행전 10:34.
10. 신명기 7:9.
11. 요한1서 1:9 참조.
12. 요한계시록 7:16~17.
13. 베드로전서 5:2~3.
14. 야고보서 4:6.
15. 누가복음 8:56 참조.
16. 마가복음 10:17~18 참조.
17. 요한복음 8:29.
18. 교리와 성약 81:5.
19. 교리와 성약 38:35.
20. 교리와 성약 83:6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권과 개인 기도

신앙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신권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 겸손한 가운데 영을 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세계 보여 주신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의 중요성을 통감합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받아들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권한을 받았습니

다. 그 권한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을 때에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 그건 어렵지 않아. 말씀 부탁을 받을 때에나 신권 축복을 해야 할 때에나 영감을 구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더 크거나 아니면 선교사 부름을 받을 때, 그때쯤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 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 어린 집사나 교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알아야만 되는 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신권 부름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동부의 선교 개척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고, 1인당 살 수 있는 연료량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지부에서 유일한 집사였습니다. 회원들은 저희 집에서 금식 간증 모임을 할 때 금식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지부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열세 살이었을 때, 저희는 유타 주로 이사를 해 큰 와드에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걸어 다니며 금식 헌금을 모았던 저의 첫 번째 임무가 기억납니다. 저는 제가 받은 봉투 중 한 봉투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성이 물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차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남성이 문을 열었고, 저를 보고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거의 70년 전의 일이지만, 그날 그 현관에서 뭔가를 말하고 행했어야 했다고 느꼈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만약 그날 금식 헌금을 모으러 나가면서 신앙으로 기도했다라면, 그 문 앞에 조금이나마 더 오래 서서 밝게 웃으며,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형제님과 형제님의 가족이 전에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주에 또 뵙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어떤 말을 하도록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행했다라면, 그 남성을 더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느꼈을지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슬픔이나 실패를 느끼는 대신, 제 생각과 마음속에서 "잘 하였도다"라는 부드러운 찬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영감 없이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충분치 않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은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에게도 자주 있었습니다. 오래 전, 한 아버지가 세 살짜리 딸이 크게 다쳐 몇 분 안에 사망하리라는 진단을 들었다고 저와 제 동반자에게 말해 줬던 어느 병원에서도 그랬습니다. 제 손을 그 소녀의 머리에서 봉대를 감지 않은 부분에 얹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고 말씀하셨을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소녀가 살 수 있으리라는 말이 제 생각과 입술로 전해졌습니다. 제 옆에 서서 거북해하며 코웃음을 치던 의사는 저더러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안과 사랑의



느낌을 마음에 머금고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살았으며, 제가 그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성찬식에서,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 그 소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와 가족에게 주님의 봉사를 하며 제가 말하고 행한 것에서 느꼈던 그 기쁨과 뿌듯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병원에서 느낀 것과 집사 시절에 그 현관에서 돌아서며 느꼈던 슬픔의 차이는 기도와 신권 권능의 연관성에 대해 배운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사 시절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권능은 계시가 요구되며, 필요할 때 그것을 받으려면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으로 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식 헌금을 모으러 그 문 앞으로 가기 전날 밤에 저는 잠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 저는 수 주, 수개월에 걸쳐 신권 권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가르친 기도의 모형을 따르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로 그분께 부르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늘어놓는 기도로 주님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하고, 그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¹

그리고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고 행하기로 맹세한 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도록, 또한 여러분을 그의 영으로 축복하시도록 기도합니다.”²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나 인내심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의도로 다가가는 일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의 아버지이지만,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기꺼이 전념하십니다. 이같은 이유로 구주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³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일 때 경건하다는 적절한 느낌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만, 격식을 덜 갖추거나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신권 봉사를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변에는 소음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할 때가 고요한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께 봉사는 우리의 부름을 그분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름에 대해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이미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여러분이 부름에 대해 기도할 때, 알아야 할 바를 더 많이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⁴

가정 복음 교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야 합니다.]”⁵

경험 많은 가정 복음 교사와 그의 후임 동반자에게 이것은 성신의 도움 없이는 명백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가족들, 또는 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판단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삶에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며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알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을 구하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모두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권 부름은 그토록 중요하고도 어렵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을 지니는 축복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이 필요하며, 단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신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할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권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기에 여러분은 모든 행복의 적에게 직접적인 표적이 됩니다. 만약 적이 여러분을 죄의 유혹에 빠트릴 수 있다면, 그는 영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신권 권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⁶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선지자, 사도, 스테이크 회장, 감독, 선교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및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재앙을 피하도록 경고의 음성을 높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주의 경고의 음성을 내는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신의 동반이라는 보호 없이는 영적으로 견뎌 낼 수 없습니다.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만 악마의 안개를 지나 험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진리를 밝혀 줌으로써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으려면, 가볍게 듣고 읽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리의 말씀을 담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바른 길을 보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신권 봉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연차 대회는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힘을 주께서 강화하실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차 대회를 위해 이렇게 했으리라 믿지만, 기도로서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신앙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차 대회 중에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축복이 내리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대변자인 선지자에게 영이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성임된 집사부터 경험 많은 대제사, 그리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될, 영의 세계로 갈 순간을 곧 앞둔 모든 연령층의 몇몇 분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러한 인사에 깜짝 놀라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하나님 왕국에서 높은 직분을 받은 적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를 거의 보지 못했거나 봉사할 기회조차 전혀 없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생에서 봉사할 시간이 바람과는 달리 갑자기 끝나 버렸다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결산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떤 직분에 있었나, 얼마나 오래 봉사했나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에 관계 없이 같은 샴을 받았던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봉사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⁸

저는 포도원에서 하는 지상의 봉사 시간이 어제 밤 11시에 끝난 한 사람을, 매우 친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암 투병을 해 왔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과 어려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그는 자녀가 집을 떠나 없거나 남편과 사별한 와드 회원들과 매주 모임을 하며 그들을 돌보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부름은 그들이 복음 공부와 사교를 통해 위안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침통한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감독님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그는 대제사 그룹 지도자를 통해 감독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임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멀리 계셔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대제사 그룹 모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회원 두 명이 컨퍼런스 센터 둘러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몇몇 회원이 차편을 제공하고 또 스카우트 대원 몇 명이 휠체어를 밀어 줄 수 있다 합니다. 참석 신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노인들끼리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필요할 때를 대비한 예비 인원이 있으면 좋겠지요. 도우미들이 가족을 데려오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겠네요. 어쨌든 제가 계획을 공지하기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전화로 감독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나 자신이 맡은 임무의 용감한 노력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전화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뭐든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토록 참담한 짐을 진 그가 감독님이 진 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신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영만이, 젊은 시절 스카우트 행사를 계획할 때와 똑같은 세심함으로 그가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권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 줄 영을 겸손한 가운데 구하고, 그대로 행하며, 또한 그 은사에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생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정결하고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는 일을 가능하게 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올 이 말, 즉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⁹ 라는 말씀을 듣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훌륭한 인사를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39년), 23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26쪽.
3. 누가복음 11:2.
4.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5판(1939), 215~221쪽 참조.
5. 교리와 성약 20:51, 53~55.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26쪽 참조.
7. 마태복음 25:21.
8. 마태복음 20:1~16 참조.
9. 마태복음 25:2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신권—성스러운 은사

우리 각자는 인류에게 부여된 가장 귀중한 은사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사에 갓 성임되어 신권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개회 찬송으로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¹를 부른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밤 여기 컨퍼런스 센터와 참으로 전 세계에 모여 계신 모든 분에게, 저는 그 특별한 찬송가의 영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권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라.]” 우리의 부름을 생각해 보고, 책임을 상고하며, 맡은 의무에 대해 결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합시다. 서로 나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신권 부름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침례 요한이 올리버 카우드리와 조셉 스미스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한 것도 매우 소중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권에 따르는 부름과 책임,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저는 집사 정원희 서기로 부름받았을 때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기록을 준비했는데, 제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부름을 수행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직책에 있든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아론 신권에 성임된 모든 청년이 자신이 성임된 부름의 성스러움과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들을 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였을 때 저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독단이 제게 예배당에서 1.5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사시는, 바깥 출입이 어려운 회원에게 성찬을 전달해 주라는 부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특별한 일요일 아침에, 제가 라이트 형제님의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요.” 하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허름한 오두막집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라이트 형제님의 침대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빵 한 조각을 그분의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들어 마실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떠나면서,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 임하여 성스러운 성찬 상징물과 제가 소유한 신권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집사, 교사, 또는 제사 중 그 누구도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인

마틴 해리스의 묘소를 방문하러 유타 클라크스톤으로 갔던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묘소를 표시하는 큰 화강암 기둥 주위에 둘러 모였고, 정원희 지도자 중 한 명이 몰몬경 첫 부분에 나오는 “세 증인의 증언”을 읽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스러운 기록과 그 안에 담긴 진리에 대한 애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목표는 모사이아의 아들들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²

청년이 세울 수 있는 목표 중에 모사이아의 용감하고 의로운 아들들과 같이 되겠다는 목표보다 더 합당한 목표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18세가 다 되어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청년들에게 의무였던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스테이크 회장님인 폴 시 차일드 회장님에게 접견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거룩한 경전을 사랑하고 잘 아는 분이셨는데, 다른 사람도 모두 경전을 사랑하고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 몇몇 친구들로부터 그분이 접견을 철저하고 세세하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경전 지식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했을 때 다음 주 일요일 특정 시간에 접견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시간은 성찬식 시작 바로 한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몬슨 형제, 그 시간에 접견하면 경전을 주의 깊게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 시작 세 시간 전에 만날 것을 제안하시면서 직접 표시한 참조 성구와 인용을 적은 경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일요일에 회장님 댁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인사를 받은 후 곧바로 접견에 들어갔습니다. 차일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 형제님은 아론 신권 소유자이죠. 천사의 성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을 때, 저는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 교리와 성약 13편을 외워서 말해 보세요.”

저는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의] ...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차일드 회장님은 “거기서 멈추세요.”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친절한 어조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몬슨 형제,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천사의 성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날 마치 천사가 그 방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접견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책임과 의무, 축복을 함께 읽던 그 엄숙한 순간의 영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특권을 사용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저는 장로에 성임되었고 해군 복무를 위해 떠나던 날, 워드 감독단 중 한 분이 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작별인사를 하러 기차역으로 나오셨습니다. 출발 시간 바로 직전에, 그분은 제 손에 선교사 지침서라고 쓰여 있는 작은 책을 쥐어 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져가게. 요긴할지도 모르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옷들이 고정되어 털 구겨지도록 해군 더플백 밑바닥에 단단하고 네모진 무언가를 깔아야 했습니다. 그 선교사 지침서는 그 용도에 딱 맞았고 제 더플백 속에서 12주 동안 그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성탄절 휴가를 가기 전날 밤, 우리의 생각은 집에 가 있었습니다. 막사의 정적을 깬 것은 제 옆 침상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청년인 리랜드 메릴이 고통으로 신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매번 축복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스러운 은사를 제게 부여하신 것에 저는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신권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권능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 힘을 보았으며, 그것이 행한 기적들에 놀랐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인류에게 부여된 가장 귀중한 은사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존중하고 언제나 합당하게 생활할 때, 신권의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합당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종사하며 그분의 부름에 응하고 그분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분에게서 배웁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그분의 교훈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봉사에 부름을 주시든 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장,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찬송가, 199장.
2. 알마서 17:2~3.

그러냐고 묻자 그 친구는 너무 아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의무실로 가고 싶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 집에 못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가 장로라는 것을 알고서 제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신권 축복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아 본 적도,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제 더플백 밑바닥에 깔린 선교사 지침서가 생각났습니다. 얼른 더플백을 비워 책을 꺼내 전등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책자에서 병자 축복하는 방법을 찾아 읽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많은 병사들 앞에서, 저는 축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플백에 물건들을 다시 다 집어 넣기도 전에, 리랜드 메릴은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건강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둘은 신권 권능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성전의 축복

성전을 방문할 때, 평안한 느낌과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구주에 대해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 사랑과 인사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말씀에 영감을 불러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대회는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지 7년째가 되는 대회입니다. 그 바쁜 7년 동안 어려움도 몇 가지 있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니다. 그중에서도 성전을 헌납하고 재헌납할 때가 가장 즐겁고 성스러웠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에는 아름다운 새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님, 린 제이 로빈스 장로님,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님이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헌납식 전야에 훌륭한 축하 문화 행사가 열렸는데, 성전 구역 내 4,000명 이상의 청남 청년들이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 세 번에 걸친 성스럽고 영감 어린 헌납식으로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매우 분명한 지표입니다. 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서 144개 성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성전이 개축 중이고, 13개 성전은 건축 중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발표된 13개 성전은 착공 전의 여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완공 예정인 2개의 성전을 재헌납하고 새로운 성전 5개를 헌납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전에 발표된 성전 완공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성전 건축 발표를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새롭게 건축될 성전 세 곳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전이 건축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아버지장,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태국 방콕. 이 지역과 성전들이 위치한, 전 세계에 있는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실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이 시간과 자원의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성전에 참여할 기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 안에서 받는 많은 축복들이 생각납니다. 성전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방해 요소들과 혼란을 뒤로합니다. 이 거룩한 성소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질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영혼의 심을 얻고, 인생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휴식합니다.

성전을 방문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느낌보다 뛰어난 차원의 평안한 느낌과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¹

그러한 평안은 근심하는 마음이든, 슬픔으로 짓눌린 마음이든, 혼란을 느끼는 마음이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나 스며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참여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 달 전에 그는 남미에 있는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가 오랜 기간 지연되어 미국에 있는 선교부로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본래 부름받은 지역에서 봉사할 수 없어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임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더 관심을 쏟는 듯한 다른 선교사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는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안 되어, 이 젊은이는 부분 마비 증상으로 인한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에 치료를 위해 귀환 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에 이 청년은 완전히 나아 마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것은 그가 매일 기도로 간구한 축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실망스러운 소식은 그가 떠난 선교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부에서 그는 일부 선교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는 위안과, 선교사로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이 성전 방문이 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청년은 의식이 끝난 후 해의 왕국실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랜던이라는 또 다른 청년이 해의 왕국실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랜던은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랜던은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지만 그 청년은 아직도 기도 중이었습니다. 랜던은 그 속삭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눈을 떴고 방해를 받은 것에 놀랐습니다. 랜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청년은 랜던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위안과, 선교 사업에 관한 용기를 받고 싶은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귀환한 랜던은 자신이 겪은 일들과 어려움들, 걱정들, 주님께 도움을 구한 방법,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랜던의 말은 그 청년에게 위로와 함께, 선교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열의가 그 청년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두려움이 사그라지고, 평안의 느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두 젊은이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랜던은 자신에게 온 영감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랜던이 나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 청년이 랜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까?” 이 순간까지 둘 다 자기가 봉사한 선교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랜던이 선교부 이름을 대답했을 때,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랜던이 봉사했던 선교부는 그 청년이 돌아가게 될 바로 그 선교부였습니다!

최근에 제게 보낸 편지에서, 랜던은 그 청년이 헤어질 때 한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봉사할 선교부에서 봉사한 사람을 제게 보내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²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언제나 상당되고 응답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유혹을



로즈메리 엠 위크
본부 초등학교 회장

받을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갈 때,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시련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축복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제가 살면서 매일 감사드리는데 것은 제
사랑하는 아내 프랜시스와 제가 신성한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를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성약을 맺었을 때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아내와 제가 다시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받는 평안과 위안보다 제게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전 예배의 영을 지니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정성스럽게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날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놀라운 은사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4:27.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소유의 서신에서.

다시 찾은 신앙

우리도 각자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살아 있는 선지자,
몬슨 회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읍시다”¹,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² 등 회장이 전해 주신
권고와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올해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구주 나
사랑하시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쁨과 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니 예수! ... 내
마음 바치리”³ 어린이들은 이러한 진리를

노래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저는 자신이 개심해 온 과정을
들려주는 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며
부모님께 복음을 배웠고, 초등학교, 청년,
세미나리에도 참석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늘 “왜”라고
물으며 답을 찾았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주님은 묻고자 하는 사람만 가르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그녀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했고,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해서 예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녀의 탐구심은 계속해서 질문을 양산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답을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때론 답이 없었고, 어떨 때에는 그 어떤 대답으로도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을 찾을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고, 자기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에서조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주변에서 “내 신앙에 기대 봐요.”라는 말도 많이 해 왔지만, 그녀는 ‘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으시니까요.’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구심을 못 느끼는 분들이 저와 논쟁하려 하지 않는 한, 저도 그러려고 했죠.” 그렇게 예의만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셨고 문제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제가 답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절 그저 사랑하시기로 하셨죠.” 감독님도 자주 그녀와 만나서 그녀를 굳게 믿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와드 회원들 역시 가까이 사랑을 보였고 그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 와드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참 흥미로웠던 건 저 세상에 계신 조부모님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절 지지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셨죠. 마치 ‘네가 아는 것에 집중하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은 지지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저활동이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행동이나 영적인 무감각, 계명대로 살지 않으려고 핑곗거리를 찾거나 쉽게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교회에서 멀어진 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믿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테레사 수녀의 저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53년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업을 망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모든 게 다 죽은 듯 제 내면에는 끔찍한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쪽 그랬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주님께 간청해 주세요.”

페리에 대주교의 답신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수녀님, 하나님께서 수녀님을 인도하십니다. 수녀님의 생각처럼 수녀님은 끔찍한 어둠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이 늘 금방 또렷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빛을 구하세요.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이의 말을 듣고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뭔가가 항상 있을 겁니다. ... 충분히 갖고 계신 참된 의도로 신앙, 기도, 이성에 따라 인도를 받으세요.”⁵

그녀는 테레사 수녀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없었으나 신앙대로 살 수 있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자신이 믿는 진리에 집중했으며 그 진리로 생각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제 신앙은 잿더미가 된 지 오래였어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렸죠. 제게 남은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묻은 활짝 열려 있어요. 기도와 경전 공부는 정말 중요했어요.”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복음 진리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노래책을 사서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그녀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으로 이 무거운 짐을 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접하면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며,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와 내 가족에게 옳은 길인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내가 진정 바라는 건 무엇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어요.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의 성전 결혼이란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 신앙, 성신의 영향력이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핵심이 될 것[입니다].”⁶

그녀는 물몬경의 출현 경위에 의구심을 느꼈지만 자신이 아는 물몬경의 진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신약전서 공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몬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물몬경의 진리와 관련된 영적인 경험을 직접 겪어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사이야서를 읽으면서 완벽한 인도를 느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⁷

그 무렵에 그녀는 초등학교 반주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된 거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아직 가르칠 준비는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봉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서 와요. 자매님의 영적 수준이 어땠든, 거기에서 함께 봉사합시다. 자매님이 갖고 계신 건 뭐든지 나눠 주세요.”

초등학교 노래를 반주하면서 그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진리야. 난 여전히 간증을 나눌 수 있어. 난 내가 알고 믿는 것만 이야기할 거야.

완벽한 지식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그건 내 진심이니까. 내가 간증하는 것에 대해 더 큰 간증을 갖게 될 거야.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와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 정말 좋구나.’

그 일요일 아침에 이 젊은 자매님의 여정을 들으면서 저는 구속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⁸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권고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⁹

자매님의 공과를 듣는 동안, 저는 간절히 구하고, 계명대로 살 때에만 진실한 의문에 대한 답이 온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지금의 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정말이지 이 젊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 그 주변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빛을 지녔다거나, [혹은] 지니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모든 빛을 양육하고 격려하여 더욱 선명하고 밝고 참되게 빛나도록 합니다.”¹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기도”를 부르면서 묻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¹¹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정말인가요?” 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자매님처럼 조용하고도 분명한 확신으로 응답이 올 때에 우리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간단한 확신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늘날 그 진리가 지상에 있고 그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2008년 11월호, 85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3. “구주 나 사랑하시네”, 2015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나는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아요(2014), 28~29쪽.
4. Russell M. Nelson, M. Russell Ballard, “What Came from Kirtland”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Nov. 6, 1994); speeches.byu.edu.
5. Mother Teresa: *Come Be My Light—The Private Writings of the Saint of Calcutta*, ed. Brian Kolodiejchuk (2007), 149–50.
6. 제프리 알 홀런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함께 하는 밤, 2015년 2월 6일); lds.org/broadcasts.
7. 모사이야서 4:9.
8. 힐라맨서 5:12 참조.
9.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10.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음”,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3쪽.
11.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칠십인

주님을 찾으라

구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기쁘게 생활하려는 소망이 커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연차 대회에서 지혜와 권고,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일은 저와 테제이라 자매를 포함한 저희 가족에게 무한한 축복이었습니다.

연중 이 특별한 기간에, 특히 이 부활절 안식일에 제 인생에서 구주의 가르침과 친절과 사랑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큰 희망을 품게 되며,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의로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커집니다. 또한, 이웃에 봉사하려는 소망도 커집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찾으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¹ 주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매일 추구해야 할 일이며, 그것은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속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기쁨이 가득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²

삶에서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크나큰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기쁨이 우리를 시련과 어려움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떨 때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너무 크고 복잡한 나머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시련이 흔히 일어나는 필멸의 삶 가운데서도 의롭게 생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음을 압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련을 통해 자주 우리는 강화되고 개선되며, 우리가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참으로, 충만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³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⁴

저는 구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기쁘게 생활하려는 소망이 커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 커진 삶에 대한 열의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열의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⁵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주 접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고 단순한 표현과 행동이 하루하루 이어질 때,

1.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2. 이 깨달음을 자라나는 세대와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는 복음대로 진실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범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분

사명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일에서 우리 영혼에 유향이 되어 줄 단순한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4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국제 사진 공모전에는 150여개 국의 전문, 비전문 사진작가들이 9,200점이 넘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중 우승작으로 선정된



상단: 기내에서 방송되는 연차 대회 왼쪽: 2014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국제 사진공모전에서 우승작으로 선정된 사진에 묘사된 여인은 물리적으로는 자신이 그곳에 있지만, 자신은 사실 그곳에 없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를 다른 승객들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사진에는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한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의 휴대 전화에서 나오는 빛은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는 자신이 그곳에 있지만, 자신은 사실 그곳에 없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를 다른 승객들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⁶

모바일 정보와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장소를 옮기고 활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인 기쁨이 가득한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에서 아주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생활을 그대로 두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사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한편, 우리가 훌륭한 온라인 자료로 축복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문서와 음성으로 지원되는 거룩한 경전 및 연차 대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영상물, 가족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앱,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들을 기회 등 교회가 개발한 자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우선시하느냐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성숙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헌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소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건전한 온라인 활동을 구축할 간단한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매일의 자아 성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습관 1: 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료들을 살펴본다.

주중에 그런 자료들을 자주 접하면 복음 가르침에 항상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성찰하도록 가족과 친구들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습관 2: 교회 공식 소셜 네트워크를 구독한다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있게 추구하고 탐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복음을 이해하려는 소망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점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농부 없이는 좋은 토양도 없다.”⁷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는 말처럼, 처음부터 손끝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습관 3: 휴대 기기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정해 둔다

전자 기기를 한동안 내려놓고, 그 대신 경전을 읽거나 가족과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날에는 새 메시지가 왔거나 새 글이 올라왔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충동 없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화평을 경험하십시오.

잠시 휴대 기기를 내려놓는 습관은 인생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10센티미터 화면 속이 전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⁸,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당신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 복음대로 살 방편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이신 우리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화평과 안전을 느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6:36.
2. 요한복음 15:4.
3. 요한복음 15:11 참조.
4. 요한복음 15:5.
5. 교리와 성약 64:25.
6. “Photo Contest 2014,”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y.nationalgeographic.com/photography/photo-contest/2014/ 참조.
7. 작자 미상.
8. 요한복음 15:9.

여전히 경이롭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일에 경탄하는 것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와 저는 멋진 도시인 파리 근교에서 다섯 자녀를 키우는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알 기회를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름마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매우 중요한 기념비와 유적지,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파리 지역에서 22년간을 보낸 후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빠, 정말 창피해요! 우리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에펠 탑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경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늘 눈 앞에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보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으며, 듣지만 실제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며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며 듣지 못하였느니라”¹

저는 구주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자주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안아 주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주께서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분을 만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시대에 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회복의 일을 “기이한 일 ...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²로 보았습니다. 이전 경륜의 시대에는 이처럼 많은 선교사가 부름받는다거나 이처럼 많은 나라가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처럼 많은 성전이 전 세계에 세워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후기 성도인 우리 각자의 삶에도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축복이 이에 해당됩니다.

복음의 놀라운 일에 경탄하는 것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탄할 때 영적인 힘이 솟아나고, 우리의 신앙에 닿을 고정시키며 구원 사업에 참여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조심합시다. 경탄하는 우리의 능력은 연약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건성으로 계명을 지키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지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고착되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 놀라운 표적과 기적에조차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메시아가 미대륙에 오시기 전의,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표적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혀 겸손해졌고 거의 모든 사람이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후에 “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더 놀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³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경이롭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감지기가 대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다음 세 가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재발견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있다.”⁴ 처음으로 성구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것이 성신이었음을 깨닫기 전일 수도 있지만, 성신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거룩하고 특별한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에 매일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은 경전 공부와 명상, 기도를 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경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전에 다 읽어 봤잖아.’ 또는



‘오늘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가 봤자 똑같은 텐데 뭘.’ 하는 생각으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마르지 않는 지식의 원천입니다. 일요일마다, 모든 모임에서, 그리고 경전의 모든 구절에는 배우고 느낄 새로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 찾아낼 것[입니다].”⁵

둘째,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 진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와 성약과 의식의 순수함, 가장 단순한 예배 행위에 경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자매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지방부 대회에서 만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오지의 고립된 마을에서 왔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아직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15명의 충실한 회원과 거의 20명이나 되는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기로 진흙탕이 된 480킬로미터 이상 되는 길을 2주 이상 도보로 여행하여 대회에 참석했고 그룹 회원들의 십일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을 머물면서 다음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는 특권을 누리던 다음, 마을 사람들에게 줄 물몬경이 가득 담긴 상자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 형제들이 보여 준 경이로움에, 그리고 자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이 치른 진심 어린 희생에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나는 집에서 겨우 몇 블록 거리인 교회까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너무 멀다거나 비가 온다는 핑계로 집에 있을 것인가?”⁶ 이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의 동반을 구하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복음의 거의 모든 경이는 자연적인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⁷ 것들입니다.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예리해지고 기억이 되살아나 우리가 목격한 기적과 표적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니파이인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간절하게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⁸

그들은 구주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져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계속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들의 간증은 사라지고 말 것임을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소중하고 놀라운 은사인 성신의 동반을 잃게 되는 어떠한 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의로운 생활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임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⁹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는 복음의 경이와 기이함은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위대한 은사인 구주의 속죄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은 목적에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워 합니다.” …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십니다.]”¹⁰

우리가 항상 이 놀라운 복음의 경이로움을 볼 눈과 들을 귀와 인식할 마음을 갖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0:23~24.
2. 니파이후서 27:26.
3. 제3니파이 2:1.
4. “Marcel Proust,” *Guardian*, July 22, 2008, theguardian.com/books/2008/jun/11/marcelproust.
5. 마태복음 7:7.
6. Lorraine Bird Jameson이 각색함, “The Giants of Kinkondja”(남동 아프리카 지역의 웹사이트 기사, 2009); web.archive.org/web/20101210013757/http://www.lds.co.za/index.php/news-a-events/news/aseanews/91-the-giants-of-kinkondja.
7. 고린도전서 2:9.
8. 제3니파이 19:9.
9. 히브리서 2:4.
10.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칠십인

탕자를 기다리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계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성역 중에 치유와 구속의 권능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전서의 누가복음 15장에는 주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낸 일로 비난 받으신 일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2 참조) 구주께서는 이 비난을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누가복음 15:4).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쏼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누가복음 15:8).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양 백 마리나 은전 10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소중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중 한 명이 길을 잃었을 때 돕는 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금 당장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전한 집과 가족을 떠나 세상적인 것들을 좇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5:12~13 참조) 구주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분을 줌으로써 사랑으로 대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들이 일단 결정을 내리자 현명한 아버지는 그를 떠나게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아버지는 진실한 사랑을 보이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20 참조)

저의 가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충실한 형제들과 훌륭한 누님과 저는 모범적인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집에서 복음을 배웠으며, 별 탈 없이 성인이 되었고, 네 명 모두 성전에서 배우자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제 누님인 수전은 교회와 일부 가르침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되었습니다.

누님은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줄어드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님의 의심은 믿음을 압도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누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형과 저와 남동생, 그리고 미망인이신 어머니는 무척 슬펐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님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는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님의 선택으로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형제들과 저는 감독과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고, 와드 및 정원회 회원들과 더불어 한 명을 찾기 위해 아흔아홉을 떠나는 일에서 성공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누님의 일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구조하려는 끈질긴 노력과 돌아오라는 권유가 오히려 누님을 더욱더 멀리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누님을 어떻게 적절히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늘의 인도를 구했을 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누님은 스스로 선택을 했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으나 누님이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해 주는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과 친절을 보이며,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누님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실 때마다 어머니는 누님의 이름을 기도 명부에 넣으셨고, 절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누님과 가까이 살았던 형님과 형수님은 모든 가족 행사에 누님을 초대했습니다. 해마다 누님의 생일이 되면, 형님과 형수님은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항상 연락을 주고 받았고, 누님이 진실한 사랑을 느끼도록 노력했습니다.

제 남동생과 제수씨는 유타에 있는 누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항상 모든 가족 모임에 초대했고, 누님의 손녀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제 남동생이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누님에게는 또한 사랑이 많고 포기를 모르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고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누님을 초대했고, 누님도

그런 가족 행사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행사를 만들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누님과 누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또한 그들이 우리와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님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을 때에도 모두가 졸업식에 가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누님의 모든 선택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누님을 받아들일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누님이 교회를 떠난 지 12년째가 되었던 2006년, 제 딸 케이티가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제 사위가

그곳에서 법학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수전 누님과 같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수전 고모에게 도움과 지지를 구했으며, 고모를 사랑했습니다. 누님은 우리의 두 살배기 손녀 루시도 보살펴 주었는데, 누님은 루시가 자기 전에 기도하도록 돕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티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고모가 다시 교회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며 딸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또 다시 3년이 흘렀고, 우리는 꾸준한 사랑으로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6년 전 이 주말에, 제 아내 마샤와 저는 이 컨퍼런스 센터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영의 영향을 받는 마샤는 제게 쪽지를 써 주었는데, 거기에는 “수전 형님이 돌아올 시간이 된 것 같아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딸 케이티는 나가서 고모에게 전화해 연차 대회를 보도록 권해 보라며 제게 제안했습니다.

이 훌륭한 두 여성의 속삭임에, 저는 현관으로 나가 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성 사서함에 연결되었고, 저는 연차 대회의 그 모임을 시정하라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누님은 그 메시지를 받았고, 기쁘게도 연차 대회의 모든 모임을 시청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님은 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사들 중에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 베드나 장로님, 쿡 장로님,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앤터슨 장로님 같은, 누님이 전에 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준 이 특별한 경험과 그 밖의 경험들을 하면서, 누님은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돌이켰습니다.(누가복음 15:17 참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과 가족의 사랑으로 마음을 돌이켰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딸이요 자매를 15년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전 누님은 물론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묘사를 빌어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누님은 쇠막대를 놓고 어둠의 안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니파이전서 8:23 참조) 누님은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이 주는 경험과, 주님과 가족이 주는 경험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누님이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6년에 걸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전은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되찾았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았고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누님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열렸으며, 우리는 한때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제는 마치 누님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가족처럼 여러분 중에도 가족 중에 잠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백마리의 양을 가진 모두에게 주시는 구주의 가르침은 아흔아홉을 떠나 한 마리를 구출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은전 10개를 갖고 있고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은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이고 그 사람이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저희 가족이 배운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 누님이 교회를 떠나 계실 때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배운 메시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고 있었고, 제 아들 데이비드가 성구를 읽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탕자의 비유를 읽었는데, 그날은 그 내용이 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웬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집에 남아 있는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데이비드가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로마서 3:23 참조) 우리는 모두 우리를 치유해 주는 구주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으며, 누군가 우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날 받은 이 계시는 저와 누님 모두에게 구주의 사랑과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수전 누님과 저는 사실상 집으로 돌아가는 같은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구주께서 묘사하신, 탕자를 찾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매우 감동적인데,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하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게 될 경험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해 배웁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누가복음 15:20)

탕자를 사랑하고 바라보며 기다릴 때,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 올려 주시려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으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열 네 살 소년 지미와 열아홉 살인 존(가명) 형제는 밧줄도 안전벨트도 암벽 등반 장비도 없이 제 고향 유타의 스노우캐니언 주립공원의 수직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겨운 등반의 정점에 이르렀을 무렵, 두 형제는 툭 튀어나온 암벽 때문에 몇 미터 남지 않은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튀어나온 암벽을 넘어 올라가지도,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찬찬히 살펴본 존은 발을 디딜 공간을 확보한 후, 동생을 튀어나온 암벽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올라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잡거나 발로 지탱할 만한 곳을 찾으면 찾을수록 근육에 더 경련이 왔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했고 존은 죽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하기로, 즉 위로 뛰어올라 튀어나온 암벽 위쪽을 잡아채기로 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존의 강한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려 안전하게 올라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존이 한 말입니다.

“뛰기 전에 동생에게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아서 내려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암벽 정상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그냥

동생을 속이기 위한 공여지책이었어요. 제가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동생은 제가 추락사하는 걸 보지 못할 테니까요.

동생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면서, 저는 제가 가족을 사랑했다는 걸 가족들이 알아주고, 지미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제 안의 아드레날린을 있는 힘껏 끌어 모아 뛰었더니, 암벽 윗부분에 거의 팔꿈치까지 닿을 만큼 몸이 떠올랐어요. 두 손으로 얼른 암벽 위쪽을 붙잡았지만, 편평한 바위 위엔 모래밖에 만져지는 게 없었어요. 매달려 있던 그때 느낀 까끌까끌한 모래의 감촉이 아직도 생각나요. 암벽 끝이든 튀어나온 바위이든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뿐인 바위 위에서 손가락이 점점 미끄러져 내리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여름철 폭풍의 번개처럼 절벽 모서리 위에서 두 손이 튀어 나왔죠. 자그마한 손 크기와는 달리 엄청난 힘으로 제 손목을 꽉 붙들었습니다. 충직한 제 동생은 있지도 않은 나뭇가지를 찾으러 가는





대신 제가 어떻게 할지 정확히 눈치채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 어리석은 점프를 하리란 걸 잘 알기에 조용히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뛰었을 때 절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게 해 주었어요. 그날, 떨어지던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이에서 의지할 데 없이 매달려 있던 저의 생명을 동생의 강한 두 팔이 구했습니다.”¹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는 매주 성찬 기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은 연중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두 손과 팔을 사망의 심연으로 뻗어, 우리를 타락과 실패, 슬픔과 죄에서 구하신 분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존과 지미 가족이 전한 이야기를 돌이켜보며,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²을 깨닫게 된 것에, 그리고 그 사랑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갈수록 더 세속적으로 변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나 그들이 타락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는 인기가 없는 만큼이나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으로 초래된 모든 결과를 수반한 채 실제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탄생과 죽음의 특별한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진정으로 축하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타락 전에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저는 아담과 이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육체의 사망이나 미래의 가족 없이 낙원과 같은 환경에서 홀로 살았으며,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어 에덴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사망을 겪기 전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압니다.³ 그들의 상황에 슬픔과 복잡함이 더해져,

그들의 범법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영적인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이 타락한 지상에 태어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전 인류, 즉 남편, 어린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영원한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괴로움의 나라으로 끝없이 떨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란 게 그런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는 경험의 결말일까요? 무심한 우주 저 어딘가의 차디찬 계곡에 매달려, 모두가 작은 도음이나 뭔가 움켜잡을 것을 찾으나 우리를 구해 주는 것도, 붙들거나 매달릴 만한 것도 하나 없이 그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만 느껴야 하는 걸까요? 공허한 존재의 실험이, 그저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며 약 칠십 평생을 매달려 있다가 약해져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 영원히 ‘아니요’입니다!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과



함께 저는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⁴을 간증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의 결정을 예상하셨으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 이 모든 결과가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첫 아담의 범법을 속죄하시고자 절정의 시기에 오실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아담”이라 일컬었던 구주가 마련되었습니다.⁵ 그 속죄는 육체적 사망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조건 없이 부활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자비롭게도, 하늘의 계명에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그 속죄 덕분에,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도 용서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임받은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시며 “마지막 아담”⁶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자 영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⁷ 선지자이자 축복사였던 리하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차 때 오시느니라.”⁸ 무엇보다도 물몬경의 선지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틀간의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타락의 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함이라.”⁹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부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경험한 모든 타락, 우리가 아는 모든 슬픔, 우리가 빠졌던 모든 낙담, 우리가 겪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이 승리의 은사를 축하합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늘과 거의 똑같은 주말에 일어난 사건 덕분에 누구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없고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겐세마네 동산의 영적인 고뇌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에 무덤 안에서 자신의 일을 끝맺기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며, 다시는 영과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는 주님이 당신의 의지로 자기 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벗어 머리를 씻던 수건과 함께 “판 곳에 … 놓[아]”¹⁰ 두셨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의 속죄와 부활 과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과, 자애로운 선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유례가 없는 가장 위대하며 고귀한 사랑의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으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여침질 폭풍의 번개처럼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를 잡아 주시며,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비록 못 자국이 난 발로서 계시지만 사랑을 극복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비록 못 자국이 난 손바닥과 상처가 난 손목이지만 이를 우리에게 뺏어 끝없는 자비를 보이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피로 얼룩진 겐세마네 동산과 못 박힌 십자가, 영광스럽게 비워진 무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 예수님과 그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¹¹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소유의 서신.
2.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3. 니파이후서 2:19~29, 특히 20~23절; 모세서 5:10~11 참조.
4. 니파이후서 2:24.
5. 고린도전서 15:45 참조.
6. 고린도전서 15:45.
7. 고린도전서 15:22.
8. 니파이후서 2:25~26.
9. 니파이후서 9:6.
10. 요한복음 20:7.
11.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은혜의 은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사람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복된 날, 우리를 옥죄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홀로 짊어지신 인류의 구주께서는 그
사슬을 끊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속주의 희생 덕분에
사망의 썩는 것이 사라지고,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¹, 사탄이 영속적인 권능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 부활[로]
말미암아 ... 거듭나[서] 산 소망[을]”²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³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정확히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구주의 속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야곱의 말처럼,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하여,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아니하[겠습니까?]”⁴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⁵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희생에 대한 경외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주의 속죄는 우리의 가르침이나 대화,
또는 우리 마음에서 상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죄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⁶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순하며 실수가 잦고 감사할
줄 모르곤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낮추어 오신 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경이로 가득해집니다.
구주의 속죄를 이해하려 애써 보았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완전히,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밖에는
속죄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⁷를 추측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 사랑이 강하게 표출되는 한 가지
방식은 경전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흠 있고 제한된
존재인 우리를 “진리와 빛을 받[아]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아는]”⁸
승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신성한 도움과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놀라운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⁹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첫째로 은혜가





핀란드, 헬싱키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는지, 둘째로 은혜가 어떻게 하늘의 창을 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하늘의 문을 연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¹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므로.]”¹¹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설혹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중”¹²이므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요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이 장벽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크고도 영원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비의 계획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며¹³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줍니다.]”¹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¹⁵ 사랑하는 우리 구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¹⁶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전의 무고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실수와 죄를 지우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딸들이 당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사를 통해, 제자의 길은 뒤를 향한 길이 아닌 위를 향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은 감히 가늠조차 못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로 에워싸인 채 “그의 총만함과 그의 영광”¹⁸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물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¹⁹ 참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²⁰

이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단지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지니고 이 문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변화로, 경전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세상적이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합니다.]”²¹

둘째: 은혜는 하늘의 창을 연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늘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창이란 하나님께서 권능과 힘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통로이며, 이로써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해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은 속이는 자의 암류(하천 밑바닥에 흐르는 물-웁긴이)와 유사(바람이나 물 때문에 흘러내리는 모래로, 늘처럼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함-웁긴이)에서 빠져 나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²²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고 신앙을 가지면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²³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걸쳐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현세적 축복과 영적 은사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제하고, 우리가 최선의 모습이 되게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보기에 시몬은 선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비칩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때마다 확인하여 날마다 수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십일조도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기도하며, 회당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몬과 함께 계실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눈물로 구주의 발을 적시며 좋은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던 시몬은 그렇게 드러내어 경배하는 여인의 모습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를 모르신다면 선지자일 리가 없고, 아신다면 그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께서는 그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쥔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쥔데

[둘 다] 값울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심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²⁴

우리는 이 둘 중 어떤 사람에게 가깝습니까?

시몬 같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선행을 확신하고 안심하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습니까? 혹시 우리 표준에 맞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까? 마치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되듯 기계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복음 교리 공과 시간 내내 하품을 하거나 성찬식 시간에 휴대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진 빛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까?

무릎 꿇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선별해 곱씹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놀라운 구속의 계획에 대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까?²⁵

구원은 순종이라는 화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것입니다.²⁶ 선행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항공권을 사 놓고 항공기를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자기 집 임대료만 내고서

지구 전체를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합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 또는 회개하느라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죄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빌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²⁷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를 정제하고, 향상하며,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게 하고, 그분의 면전에서 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 [참으로] 큰 변화를 이루[시]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²⁸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사랑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소산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품으면 우리의 행위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덕으로 생각을 장식할 것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확신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²⁹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에 찬 여행 연습이요, 영원한 세상의 큰 영광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에 더 맞추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 노력합니다. 상상도 못 했던 미래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더 밝은 빛과 이해력이 찾아옵니다.³⁰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겠다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성스러운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필멸의 손을 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선지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넓혀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앎이라.”³¹

하지만 저는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후에”라는 말은 “때문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쏟아낼 때까지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기다리실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³²라는 말씀을 몸소 실감합니다. 또,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³³라고 했던 니파이와 한 목소리로 통탄합니다.

니파이는 죄를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가능해지는 것이 구주의 은혜 덕분임을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³⁴ 바로 그 때문에 니파이는 자녀와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³⁵ 그토록 부지런히 수고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멸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구주께서 그 첫 번째 부활절 일요일의 서막을 열며 하신 일을 떠올려 보면,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사람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³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³⁷

저는 우리가 구주의 속죄 희생의 영원한 의미를 새 눈과 새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쁘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³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은사로 내리시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린도전서 15:55; 모사야서 16:8 참조.
2. 베드로전서 1:3; 강조체 추가.
3. 데살로니가전서 4:18; 또한 13~17절 참조.
4. 야곱서 4:12.

5. 니파이후서 25:26.
6. 엘마서 34:10, 15.
7. 에베소서 3:18~19.
8. 교리와 성약 93:28.
9. 진실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며,]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 깨닫지 못하였[다.]”(교리와 성약 78:17)
10. 로마서 3:23.
11. 니파이전서 15:34; 또한 니파이전서 10:21; 모세서 6:57 참조.
12. 모사야서 2:21.
13. 엘마서 42:15 참조.
14. 엘마서 34:15.
15. 이사야 1:18 참조.
16. 디모데전서 2:6.
17. 베드로후서 1:11 참조.
18. 교리와 성약 76:56.
19. 교리와 성약 76:59 참조.
20.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21. 모사야서 27:25.
22. 모로나이사서 10:32.
23. 이터서 12:27 참조.
24. 누가복음 7:36~50 참조; 강조체 추가.
25.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누가복음 18:9~14 참조)
26. 사도행전 20:28 참조.
27. 로마서 6:1~2.
28. 모사야서 5:2.
29.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30. 요한복음 7:17 참조.
31. 니파이후서 25:23; 강조체 추가.
32. 마태복음 26:41; 또한 로마서 7:19 참조.
33. 니파이후서 4:17.
34. 니파이후서 4:19~35; 엘마서 34:31 참조.
35. 니파이후서 25:23.
36. 제3니파이 9:19~20 참조.
37. 고린도전서 2:9 참조.
38. 로마서 6:4.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택의지를 보호하고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의지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부 활절 주일은 온 인류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의 자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후기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함하며 ...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¹ 다른 이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습니다.]”²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영원한 계획에는 선택의지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³

그 대회에서 사탄으로 알려진 루시퍼는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나를 거[슬러]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 나는 ...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⁴

그는 계속해서 “또한 그가 천군의 삼분의 일을 그들의 선택의지로 인해 내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느니라]”⁵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루시퍼를 따를 것을 선택한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자신의 선택의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⁶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⁷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행하도록 예임되어 있던 구주로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임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에는 육체를 갖고, 발전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가족을 갖고, 영생을 상속받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교회의 공식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바뀌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도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구주를 따르겠다고 선택했기에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계신 모든 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똑같은 선택을 다시 하고 구주를 따르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로 우리는 간증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이해력, 인도와 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과 깨끗함, 환난 가운데서도 충실할 수 있는 위안과 격려를 받습니다. 이런 비할 데 없는 영의 축복은 옳은 일을 행할 자유와 힘을 키워 주는데, 이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⁸

이 마지막 날에 영적인 자유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사탄은 우리가 이 자유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도덕적 선택의지를 떨하러 했고, 이제는 지상에서 강하게 종교적 자유를 약화시키고 반대하며, 종교적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자신의 구원에 필수적인가와 관련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이 의지하고 수호해야 할 종교적 자유의 네 가지 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으로 개인이나 정부로부터 비난을 듣거나 박해받거나 공격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자유는 매우 개인적이며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적 자유에 관한 우리 믿음의 초기 선언문은 이렇게 언명합니다.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를] ...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이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다.”

... 행정 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되]다.”⁹

국제 연합의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나라별, 그리고 국제 인권 문서는 이 기본적인 믿음의 자유를 인정해 왔습니다.¹⁰

종교적 자유의 두 번째 초석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복음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르치라.”¹¹ 또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¹² 부모, 전임 선교사, 회원 선교사로서 주님의 교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종교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자유의 세 번째 초석은 종교적 조직, 즉 교회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예배할 자유입니다. 신앙개조 제1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국제 인권 문서와 많은 나라 헌법이 이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종교적 자유의 네 번째 초석은 우리의 신앙대로 생활할 자유, 즉 가정이나 예배당뿐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을 행사할 자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게¹³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¹⁴고 명하십니다.

일각에 우리의 종교를 광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견해와 행위가 사회에서 용납될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타 종교 신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관용을 베푸는데 매우 더딘 모습을 보일 때가 흔합니다. 종교적 견해에 대한 존중이 보편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종교인과 종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편협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표준에 굴복하고, 종교적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선택의지를 타협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몰몬경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앨마서에서 읽었던듯이 애플리싸이는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그들의 권리와 ... 특권을 박탈”하려는 “매우 간교한 자”이자 “간악한 자”였고, 이것은 “교회의 백성들[에게] ... 놀라운 것이었[습니다].”¹⁵ 백성들은 모사이야 왕에게서 그들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¹⁶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전역에서 ... 함께 모여 애플리싸이에게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각 사람이 그 생각대로 따로 무리를 이루어, 서로 많은 논쟁[을] ... 가졌[습니다].”¹⁷

그러한 토론에서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 단합된 영을 느끼고 성신의 영향을 받았습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애플리싸이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지라, 애플리싸이가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였느니라.”¹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이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확신과 사랑을 지니고 “각 사람이 그 생각대로”¹⁹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물몬’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저는 당당히 하늘 앞에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외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논리는 로마 카톨릭교의 원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약한 다른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모든 인류의 사회적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사랑은 제 영혼을 고귀시켜 줍니다.”²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후손을 위해 이러한 거룩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의 현안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위치에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십시오.

셋째, 말과 행위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따라 선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²¹라고 적힌 자유의 가치를 들어올렸던 모로나이 장군을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행동을 취하고자 성약으로 “함께 달려왔습니다.”²²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걷지 마십시오! 달리십시오! 성신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분께서 주신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선택의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간증을 이 특별한 부활절에 전합니다.

구주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²³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은 축복과 권세로 “자유와 영생을 택[할]”²⁴ 소중한 기회를 받았습니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항상 그분을 따르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3:3.
2. 이사야 5:20.
3. 모세서 6:56 참조.
4. 모세서 4:3.
5. 교리와 성약 29:36.
6. 아브라함서 3:27.
7. 모세서 4:2.
8. 고린도후서 3:17.
9. 교리와 성약 134:2, 4.
10.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Dec. 10, 1948, un.org/en/documents/udhr. 참조. 제18조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article 9 of Europe’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atified on Sept. 3, 1953, 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005.htm 참조.
11. 신명기 11:19.
12. 마가복음 16:15.
13. 마태복음 6:6 참조.
14. 마태복음 5:16.
15. 엘마서 2:1~4 참조.
16. 모사이야서 29:25~26 참조.
17. 엘마서 2:5; 강조체 추가.
18. 엘마서 2:7.
19. 엘마서 2:5.
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45쪽.
21. 엘마서 46:12.
22. 엘마서 46:21.
23.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24. 니파이후서 2:27.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철십인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리하이의 생명나무의 시현은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임종 때 한 총관리 역원이 그분 맥을 방문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랜트 회장은 “하나님, 제가 간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축복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회장으로 거의 27년을 일하셨는데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이런 모범은 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 사탄이 지닌 아주 강력한 도구 중 두 가지는 주의를 빼앗고 속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된 제자의 특징이며 영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이 인생에 닥치면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은 복음 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영생의 필수 요소라면, 왜 우리는 충실해지려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서로 비슷한 우선순위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형식적인 순종과 미온적인 결심은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구주와 우리가 맺은 성약에 대한 완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리하이의 생명나무의 시현은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하이의 꿈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건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중요한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둡고 황량한 황무지에”² 혼자 있던 리하이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도 어둠과 외로움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어둠 근심[이] 오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³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끝까지 견딜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무엇을 더 하길 바라시나이까?”라고 여쭙어 보십시오.

2.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십시오

리하이의 꿈에서 생명나무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생명나무로 이어집니다.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의 무한한 속죄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생은 감미롭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실현하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입니다.”⁵ 생활을 성취와 덕행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지 않거나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 신앙으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험작하고 좁고, 엄중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엄중하지만 구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위협과 물리적인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해 줍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한결같이 따르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속죄의 힘 없이는 그 길에 머물거나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⁶

4. 물문경은 영적 생존의 열쇠입니다.

인생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주의를 빼앗기고 길에서 방향하며 길을 잃기 쉽습니다. 시련은 영적인 진보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역경이 오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내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어둠의 큰 안개와 같아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굳게 잡[고서]”⁷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마음은 커녕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말 것입니다. 물문경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매일매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남고 속임을 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5.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신경을 써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주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으려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린다고 해서 진리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주만이 “영생의 말씀[을]”⁸ 갖고 계십니다. 다른 말들은 그냥 후기 뿐입니다.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헛된 상상과 교만”⁹, 즉 주의를 빼앗는 것이며 속임수입니다. 그 건물은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잘 차려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¹⁰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길을 잃습니다.

6.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나무 옆에 있으라는 것이 리하이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머뭇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나니, 참으로 그가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깨어났느니라.”¹¹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면, 성신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주님께로 깊이 돌이켜 그 넓은 건물을 더는 따르지 않게 됩니다. 더욱 깊은 개종으로 이끄는 행동들을 멈추면,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배도는 개종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선교사들, 즉 장로와 자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 사업에서 돌아와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의미 없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가치도 없는 점수를 쌓으며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필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온라인의 외설물에 빠져들고 유덕과 순결을 소홀히 한다면 필시 영적으로 끔직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영을 잃으면, 길을 잃습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생활하십시오! 저는 물론경의 심오한 힘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다져 줄 것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¹² 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니파이의 이런 약속을 여러분에게 남겼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도록 …… 그들을 권면하였느니라.”¹³

형제 자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제자 정신의 큰 시험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제자 정신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나고 진리를 붙잡고 신성한 성전 성약을 지키고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부활하시어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숭고한 모범을 따르는 일에서 끝까지 참되고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58, 70에서 존 룡슨이 인용함.
2. 니파이전서 8:7.
3.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찬송가, 76장.
4. 모로나이서 10:32.
5. 요한복음 14:6.
6. 니파이후서 31:20.
7. 니파이전서 8:30.
8. 요한복음 6:68.
9. 니파이전서 12:18.
10. 디모데후서 3:7.
11. 엘마서 5:7.
12. 야콥서 4:13.
13. 니파이전서 15:24~25.

참된 제자는 의미 있는 개인 기도와 진지한 경전 공부, 개인적인 순종,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깨어납니다. 나무 옆에 머물고 깨어 있으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워싱턴 타코마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을 만나 제 선교사 부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사직하겠다는 제 결정에 기분이 상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전에 왜 우리와 함께 상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고 심오한 대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19세 때 구주를

따르겠다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을 때 이미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 성약에 따라 살아왔고, 지금 그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게 되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굴복하고, 포기하고, 힘을 잃는 것은 선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승영을 위한 탁월한 표준이 있습니다. 불굴의 제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이거나 자기 만족에 빠진 제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평균은 탁월함의 적이며, 평균적인 결심으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혼란스럽거나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면, 제가 아는 이 방법으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라파엘 이 피노 장로
칠십인

복음의 영원한 관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위해 복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 세에게 주신 계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쁨을 맛볼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후기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만드셨고, 아주 특별한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행복의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얻고, 계명과 의식, 성약, 시련과 역경을 참으로 소중한 여기게 됩니다.

엘마서에는 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 ... 계명을 주셨나니”²

가르침이 주어지는 과정의 순서를 주목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에게 먼저 구속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그런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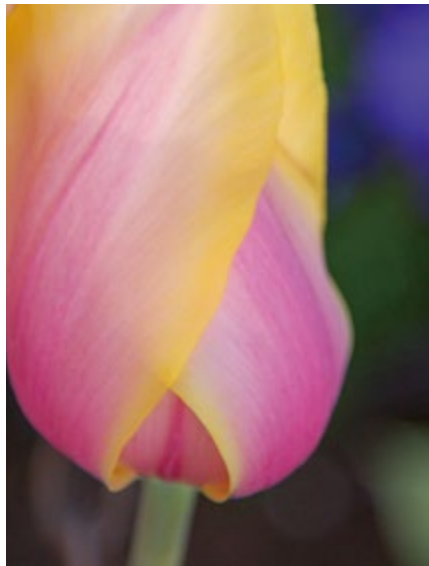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계획을 이해하면, 계명을 지키고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올바른 동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나라 회원들의 충실함과 헌신을 목격할 기회가

있어 왔는데, 몇몇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 충실한 회원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된 요소는 바로 영원한 관점입니다. 복음의 영원한 관점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우리가 차지할 곳을 이해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고,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이끌어 줍니다.

관점이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물을 바라보아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 주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숲에 들어가 나무 앞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숲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과 페루 국경 근처의 콜롬비아 레티시아에 있는 아마존 정글에 간 적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그 광활함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무엇이 보이나요?(What Do You See?)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어린이 텔레비전 채널을 즐겨 보았습니다. 화면에 어떤 물건을 아주 가까이 찍어서 보여 주면, 어린이들은 카메라가 그 물건의 전체 모습을 잡아 가는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내야 했습니다. 물건 전체가 화면에 잡히면, 그것이 고양이, 식물, 과일의 일부분 등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엄청나게 징그럽고 역겹게도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주 가깝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습을 잡아 보니 그것은 아주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빠, 저 피자 하나 사 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자, 처음엔 불쾌하게 보였던 것이 결국엔 아주 매력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녀들은 집에서 퍼즐 맞추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해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작은 조각이 모이면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제 자녀 중 한 아이(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는 각 조각 하나하나에만 집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조각이 자기가 생각했던 곳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당장은 어디에 맞는 것인지 모를지라도, 각각의 작은 조각들이 완성된 그림에서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퍼즐 놀이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부분을 따로따로 보면서 너무 얽여하지 말고 최종 결과가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전체 그림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각 조각이 계획 안에서 어디에 딱 맞는지를 아십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보면, 모든 계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띠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필멸의 관점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위해 복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가졌다 해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생활상의 작은 소망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월급 인상이나 특별한 데이트, 선거의 승리, 더 큰 저택 등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훌륭한 대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8:27 참조)”³

영원한 관점이 없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니파이와 레이맨 및 레뮤엘이 보인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광야에서 날고기를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여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넉넉히 빨렸으며, 참으로 남자들처럼 강건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 없이 여행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느니라.”⁴

한편 레이맨과 레뮤엘의 불평은 격렬했습니다. “이같이 레이맨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슬러]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⁵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영원한 관점을 잃는 한 방법이며, 불평은 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니파이와 함께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여러 해를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 수고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으며 죽음이 아닐 뿐 온갖 고초를 다 겪었나니,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보라, 이 여러 해를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였나니,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기업의 땅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또 우리는 행복했으리라.”⁶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었음에도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필멸의 생을 삶의 전부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고통, 슬픔, 실패 그리고 짧은 삶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전세의 과거와 죽은 이후의 영원한 미래에까지 멀리 펼쳐지는 영원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⁷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은 조각가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미켈란젤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대리석 덩어리를 조각하고 있을 때 매일 와서 수줍게 쳐다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에서 온 세상 사람의 칭송을 받는 다비드상이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완성이 되자 소년은 미켈란젤로에게 ‘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⁸

그 대리석 덩어리를 보는 조각가의 관점은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본 소년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돌덩이에 잠재된 가능성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그는 예술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이루길 원하시는지 아시며, 우리는 그분께 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⁹

저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신, 사랑 많고 공정하며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39.
2. 엘마서 12:32.
3. 닐 에이 맥스웰, “희망의 밝은 빛”,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4. 니파이전서 17:2.
5. 니파이전서 2:12.
6. 니파이전서 17:20~21.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펠서 더블유 김볼 (2006), 15쪽.
8. David B. Haight, “Your Purpose and Responsibility”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Sept. 4, 1977), 2, speeches.byu.edu.
9. 이사야 55:8~9 참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재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제 영혼은 흥분됩니다. 재림은 숨이 멎을 것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범위와 장엄함, 광대함과 웅장함은 필멸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찬 송가를 함께 불렀을 때,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150여개가 넘는 나라에서 75개의 서로 다른 언어¹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다음과 같이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
고이 품어 주소서²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시여]!”³
우리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전 세계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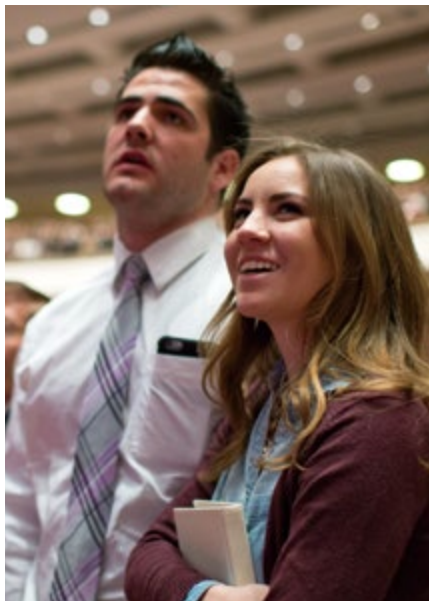
가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분의 대의는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대대로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의 시기, 자연 재해의 시기, 혼동과 소요로 세상이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회복의 영광스러운 시기, 즉 주님께서 “순결한 백성을 일으키[키]”⁴,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⁵ 무장시킬 것이라 약속하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기뻐하며 용감하게 고난과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힘든 정도가 크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만사가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다면, 더 기다려 보세요.”

주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⁶ 반복해서 안심시켜 주셨음에도,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세상 너머서까지 볼 수 있는 분명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세계 가르쳐 주셨습니다.

18년 전, 저는 몬슨 회장님과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회장님이 맡고 계신 막중한 책임에 대해 여쭙어 보았습니다. 회장의 답변은 제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분이 지휘하십니다. 그분이 관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⁷

형제 자매 여러분,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세우는 일에 그분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한 믿으면, 주님의 손길이 또한 우리 삶에도 임한다는 것을 보고 믿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⁸ 우리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건축의 대가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인도 하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⁹ 영적으로 깨어 있고 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온 세상에 임하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나누겠습니다.

1831년, 당시 교회 회원은 겨우 600명뿐이었으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¹⁰

선지자 니파이는 지상의 인구 수에 비하면 교회 회원들의 “수가 적[지만]” “온 지면 위에 있[는]”¹¹ 현재 시대를 미리 보았습니다.

몬슨 회장이 오늘 발표하신 세 곳의 성전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그분의 손길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그누가 아이티, 태국, 코트디부아르에 성전이 세워지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성전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편리한 곳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계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업이 행해짐을 나타내고 주님의 집을 여러 세대동안 소중히 여기고 돌볼 의로운 성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¹²

제 아내 캐시와 저는 2년 전에 아이티를 방문했습니다. 포르토프랑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아이티 성도들과 함께 불과 30년 전에 당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님이 하신 아이티 헌납을 경축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2010년의 파괴적인 지진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충실한 회원들과 거의 아이티인들로 구성된 용감한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는 그 섬 나라에서 계속 발전하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복을 입고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으로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의식을 인도하고 행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 제 신앙이 강화됩니다.

아름다운 방콕에 주님의 집이 건설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류가 불교 신자인 태국은 기독교인이 겨우 1퍼센트 남짓입니다. 아이티에서 그랬듯, 방콕에서도 주님께서 지상의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모으셨습니다. 우리는 몇 개월 전에 그곳에 있으면서 사티와

주타마스 카이바이바타나,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사티는 열일곱 살 때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조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종교 교육원에서 주타마스를 만나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1993년에 카이바이바타나 부부는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수의 트럭에 반히는 사고를 당했으며 사티는 가슴 아래 부위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티는 방콕의 국제 학교에서 존경 받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태국 방콕 북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분의 놀라운 사업과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일어난 교회의 기적을 말하려면 두 부부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필립프와 아넬리스 아사드, 그리고 루시앙과 아가드 아포우입니다. 그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젊은 부부였을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에 루시앙과 필립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조국이 있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아사드 자매가 가족을 떠나고 또 아사드 형제가 숙달된 기계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아프리카 국가에 8개의 스테이크가 있고 2만 7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사드 부부는 최근에 가나 아크라 성전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고, 아포우 부부도 그들 못지 않은 훌륭한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티의 선교사들과 태국의 카이바이바타나 부부 그리고 아사드와 아포우 부부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 아니하느니라.”¹³

하나님의 기적은 아이티, 태국, 코트디부아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¹⁴ “하나님은 … 모든 백성을 생각하[시고] …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가] … 온 땅 위에 있[습니다.]”¹⁵

우리는 때로 타인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¹⁶

“두려워하지 말고”¹⁷

“너희 아버지께서 [모르는 사이에]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니라”¹⁸

적들로 애워싸인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외쳤던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¹⁹

엘리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 여호와[께서] …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였더라] …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²⁰

계명을 지키고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상단 왼쪽: 1983년, 아이티 헌법을 위해 아이티에 간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상단: 코트디부아르의 개척자인 필립페와 아벨리스 아사드(왼쪽), 루시앙과 아가드 아포우. 왼쪽: 태국 방콕에서 사티 카이바이바타나 스테이크 회장과 부인 주타마스.

공학자로서 직장을 떠나기 위해서는 놀라운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부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처음으로 서로 만났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실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전은 우리가 “장차 이를 일의 믿는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²¹ 가르칩니다. 무엇이 이끈다는 뜻입니까? 구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²²

우리 모두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을 불렀습니다.

구주가 지상에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커집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제 영혼은 흥분됩니다. 재림은 숨이 멎을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범위와 장엄함, 광대함과 웅장함은 필멸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²³ 채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 하늘의 구름 가운데”²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²⁵를 들을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변형될 것이고 “별들이 그 자리에서

내던져[질 것입니다.]”²⁶ 여러분과 저, 또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온 “땅의 사방에서 오는 [성도들]”²⁷은 “살게 하심을 입고 끌려 올라가 그[분을] 만나게”²⁸ 될 것입니다. 의로움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또한 “끌려 올라가 하늘 …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게”²⁹ 될 것입니다.

그런 후 거의 불가능할것만 같은 경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나를 보리라.”³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언된 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또 주가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이를 들을 것[입니다.]”³¹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고, 큰 번개 소리 같은 음성이리니”³² “그리하여 주, 곧 구주는 자기 백성 가운데 설 것[입니다.]”³³

그런 후에 지상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잊지 못할 재회가 일어날 것입니다.³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³⁵ 그리고 그분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리라”³⁶

그날에 “모든 귀가 … 들을 것이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임을] 고백할 것[이기에]”³⁷ 회의론자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분 왕국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재현해 봄으로써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³⁸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전체적으로 연차 대회가 94개 언어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모든 언어가 동시에 방송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모임이 방송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의 경우에 75개의 언어로 생방송 되었다.
2.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3.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제일회장단 사무실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그것은 제 4월 5일 일요일 오후에 말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중간 찬송으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이후에 말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찬송가 가사는 팔리 피 팻이 썼는데 구주께서 지상에 돌아오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른 다른 어떤 찬송가보다 더 강하게 제 연차 대회 말씀의 메시지를 나타내주었습니다. 저는 부활절 일요일에 전세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오셔서”를 불렀다는 것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 대회의 선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음악 담당자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 연차 대회의 말씀을 읽고 구주의 재림에 대한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중에 테버내클 합창단 지휘자들이 이 찬송가를 3월 초, 즉 제 말씀의 번역을 위해 제일회장단께 보내기 수주 전에, 이미 제일회장단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중간 찬송으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을 마지막으로 불렀던 것은 2002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제 몫을 다하려 애쓰지만 결국 위대한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 교리와 성약 100:16.
5. 니파이전서 14:14.
6. 교리와 성약 10:55.

7. 개인 경험, 1997년 5월.
8. 니파이후서 27:20.
9. 요한복음 1:3.
10. 교리와 성약 65:2.
11. 니파이전서 14:12.
12. 2001년 가을, 브라질에 살고 있던 저는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 쿠리티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아주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헝클리 회장님께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은 도중에 제 말을 멈추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회장님을 로비하지는 않네. 성전을 어디에 지을지는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가 내릴 결정일세.”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은 2008년에 헌납되었습니다.
13. 교리와 성약 59:21.
14. 주님의 손길이 미친 위대한 기적 중 하나는 그분의 왕국이 미국 모든 주에서 도시와 마을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5월에 저는 텍사스 덴턴에서 스테이크 대회를 하도록 임무를 지명 받았습니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이신 본 에이 앤드루스 회장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앤드루스 자매님은 부모님이셨던 존과 마가렛 포터로 시작하여 덴턴에서의 초기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일학교로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터 부부는 렉스데일 부부와 복음을 나누었고 다시 렉스데일 부부는 노블 부부와 마르티노 부부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서부에서 다른 이들이 덴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작은 지부가 있던 곳에는 오늘날 네 개의 스테이크가 있고 마르티노 부부의 아들 중 열여섯 살에 교회에 들어온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는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 중입니다.
15. 엘마서 26:37.
16. 마태복음 21:21.
17. 마가복음 5:36.
18. 마태복음 10:29, 31.
19. 열왕기하 6:15.
20. 열왕기하 6:16~17.
21. 모사이야서 4:11.
22. 마태복음 6:9~10, 또한 교리와 성약 65:6 참조.
23. 누가복음 2:12.
24. 교리와 성약 45:44.
25. 데살로니가전서 4:16.
26. 교리와 성약 133:49.
27. 교리와 성약 45:46.
28. 교리와 성약 88:96.
29. 교리와 성약 88:97.
30. 교리와 성약 101:23.
31. 교리와 성약 45:49.
32. 교리와 성약 133:22.
33. 교리와 성약 133:25.
34. 모세서 7:63 참조.
35. 이사야 52:10.
36. 교리와 성약 133:25.
37. 교리와 성약 88:104.
38. 마태복음 6:10.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
칠십인

책임질 수 있다면

의무를 배우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12살 때, 칠레 북쪽, 제가 태어난 도시로 북음을 전파할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조그만 지부에 참석했는데, 어느 일요일에 한 선교사가 성찬을 전달하면서 제게 성찬 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를 쳐다보며 조용히 “취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왜요?”라는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니까요.”¹

선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소년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교회 회원이 아닐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저희 가족 모두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관심이 없었고, 선교사들은 제가 6개월이 넘도록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끼며 계속해서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기다려 왔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라며 권유했습니다. 또,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마 “얘야,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을 때 결정하라.”고 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선교사들과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교사들과 대화하는 동안 마음이 감화되셔서 제가 원하는 허락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장로님, 지난 6개월 동안 제 아들 조지가 일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교회가 그





아이의 삶에 좋은 영향만 주고 있다는 걸 목격했지요.” 그런 다음, 놀랍게도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이 결정에 책임질 수 있다면 침례를 받아도 좋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허락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제 인생에서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은 지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첫째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²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된 책임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³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책임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소망, 결정 및 우리가 하는 일상적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승영을 얻는 것이 참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승영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가 실패이듯이 구원의 반대는 저주인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일단 훌륭한 것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범한 것에 오래 만족하지 않습니다.”⁴ 그렇다면 승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승영보다 못한 것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을 지려는 소망을 이루고, 그분과 같이 되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네 가지 주요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1. 우리 의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 앞에 책임을 지려 한다면,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⁵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행하길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옳은 것을 행하려 희망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에서 앨리스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체서 고양이에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겠니?”라고 묻습니다.

고양이는 “네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에

달려 있지.”라고 답합니다.

앨리스가 “어디라도 상관없어.”라고 하자 고양이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⁷로 이르는 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 그 길”은 좁고, 그 길을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기에 “찾는 자가 적[다는]”⁸것을 압니다.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⁹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성신[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¹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및 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을 통해 받는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의 의무를 알게 해 주는 근원인 것입니다.

2. 결정하십시오

복음의 회복, 특정 계명, 부름에서 봉사하는 데 따르는 의무,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배웠을지라도 그 새로운 지식에 따라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침례 또는 성전 의식과 같은 거룩한 성약을 맺는 것을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합니다. 고대에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맹세는 일상적인 일이었기에 구 율법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¹¹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정의 시기에 구주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¹²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도록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자신의 충실함과 누군가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일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충실함과 정직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3.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배우고 이해한 것에 따라 결정을 한 후에는 그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보여 준 훌륭한 예로,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중풍병자와 구주의 일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¹³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죄 사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아직 구주께서 갯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의 죄도 사해 주셨는데, 그 일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실 것이며, 약속한 일을 갯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행하리라는 데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걷고자 선택한 길은 좁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며, 길 위에 머물고 전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배운 것과 선택한 것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4.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제자의 길은, 의무를 배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로운 소망이나 선호도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과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¹⁴라고 말한 한 나병환자의 태도에서 감명을 받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 나병환자는 자신의 소망이 의로웠다는 치더라도, 그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려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저와 절친한, 사랑스럽고 신앙심이 깊은 부부가 오래 바라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당시 유일한 자녀였던 딸아이가 이 새로 태어난 사내아이를 맞은 즐거움으로, 그 집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고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는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대답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괜찮아.” 친구의 말에는 조금의 불평이나 거역 또는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조셉 더블유 시타티 장로
칠십인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 아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또한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진직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서는 마음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어린아이는 해의 영광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의무를 배우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나아갑니다.

47년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그 결정에 책임을 지라는 아버지의 요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지고, 저 자신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추구하며, 그것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성찬이 교회 회원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독단은 회원에게만 성찬이 전달된다고 발표해서는 안 되며 비회원이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0.4.1)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2013년), 294쪽.
3. 교리와 성약 132:21~23 참조.
4. 토마스 에스 문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8쪽.
5. 교리와 성약 107:99.
6. Lewis Carroll,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920), 89.
7. 니파이전서 8:10.
8. 마태복음 7:14.
9. 니파이후서 32:3.
10. 니파이후서 32:5.
11. 레위기 19:12.
12. 마태복음 5:37 참조.
13. 마가복음 2:5.
14. 마가복음 1:40.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신 태버나클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에게 그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신 날에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¹ 그리하여 우리 필멸의 여정은 신성한 임무와 축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임무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제가 우리의 신성한 성품의 세 가지 근본적인 특성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성한 성품을 계발해서 좀 더 성공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헤쳐 나가며 우리의 거룩한 운명을 성취하라는 성스러운 책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임무를 더 충분히 깨닫고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생육하는 일에서 때로 간과되는 중요한 부분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²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다른 이들이 구주께 나오도록 도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³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기회에 따라 구원 사업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출발점은 “운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계]”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께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⁵ 우리는 자애의 은사를 구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과 조상, 회원 및 비회원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애의 영을 지니고 일할 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어려움은 신앙을 쌓을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인”⁶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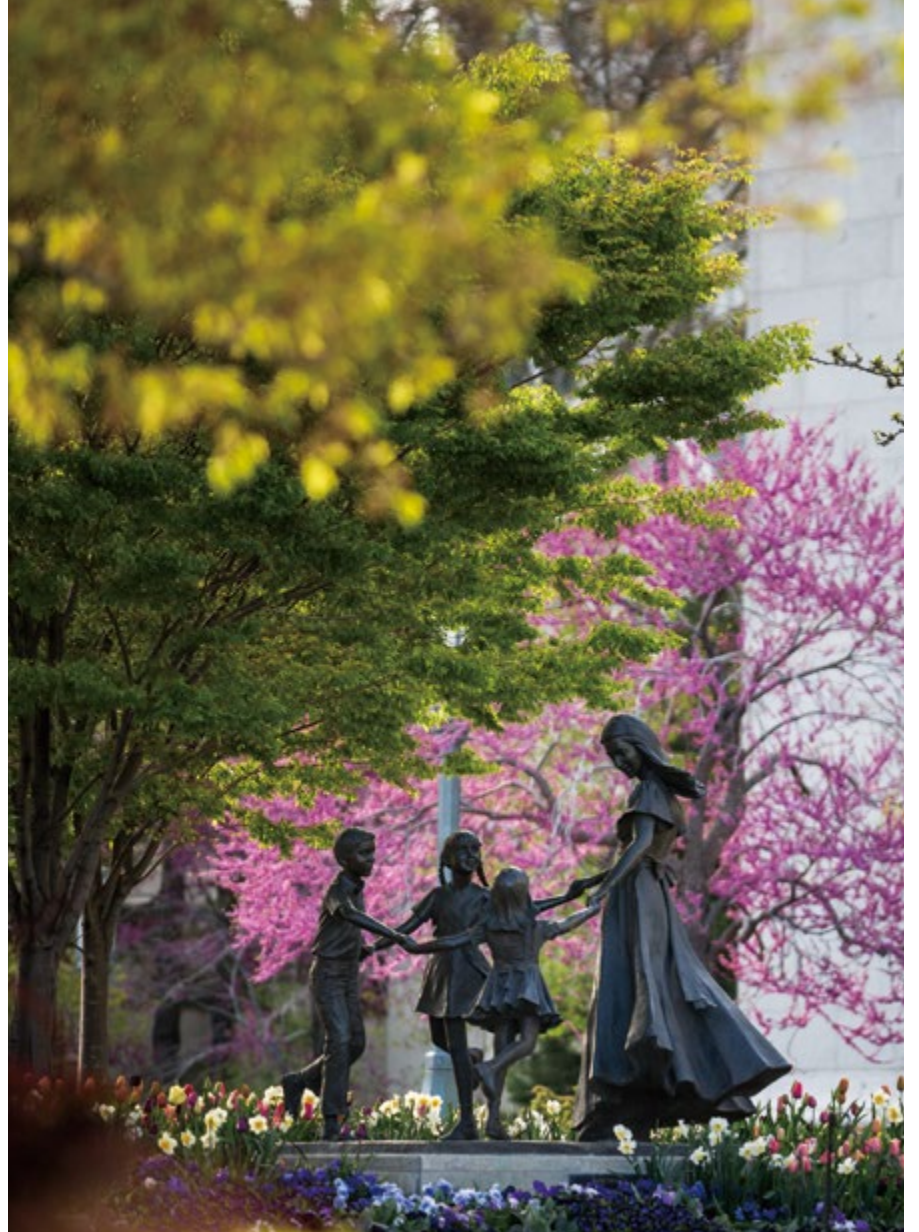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구원 사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약속이 담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⁷.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을 받았습니.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영의 자녀들이 지상 생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⁹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영의 자녀들에게 지상의 삶을 누릴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필멸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발전하여 승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은



번성하라는 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로는 번성은 불가능합니다.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인봉 성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맺어진 결혼은 부모와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준비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따라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본인이 뜻한 것이 아님에도 성약에 따른 결혼과 자녀의 축복이나 그러한 축복들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또는 그럴 수 없는 모든 충실한 자녀들이 주님이 정한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¹⁰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신앙으로 나아가 영원한 결혼 성약에 참여할 기회를 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갖춘 적합한 동반자를 기대하며 성스러운 결혼의 날을 미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인봉된 모든 사람과 자신의 성약을 지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이들은 대적이 결코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 관계의 기초를 약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함은



하나님 자녀들의 목적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¹¹을 이루도록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에는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¹² 이러한 것들의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¹³

땅의 것들을 정복하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능력을 깨닫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¹⁴ 이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동하도록 선택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은사를 구하고 재능을 계발함으로써 우리는 역량을 키웁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어느 가족들처럼 초라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훌륭한 교육을 추구하고 받았기에 그런 환경을 극복할 역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성장의 필수 요소는 제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후에, 젊은 부부 시절에 아내 글라디스와 저는 회복된 복음을 찾았으며, 영적인 인도로 저희 삶은 계속해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처럼 저희에게도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평화와 평안을 주는

응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어려운 사항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는 부도덕과 외설물, 무력 분쟁, 오염, 약물 남용, 빈곤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창궐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악마와 육체의 뜻”¹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걸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입니다.]”¹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기 위해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이 육으로 있기 전에 그들을 지었느니라 ... 만일 네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며, 네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니,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지리라.”¹⁷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이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게 되는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자신이 타고난 연약함 속에서도 강화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¹⁸ 그들은 많은 사람을 대적의 속박에 묶이게 한 악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¹⁹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²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성한 성품의 비전으로 인도받고,
모든 신성한 특권을 얻으며, 신성한 운명을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심을 간증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과, 그분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지지하는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게 열쇠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2:28; 또한 모세서 2:26~27; 창세기 1:6~28 참조.
2. 요한복음 15:5, 7~8.
3. 교리와 성약 20:37.
4. 모로나이서 7:44
5. 모사이야서 3:19 참조.
6. 모사이야서 18:9.
7. 요한복음 15:16.
8. 모세서 1:39.
9. 모세서 5:10~11 참조.
10.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1.3.3,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상도의 벗, 1989년 1월호, 109~111쪽 참조.
11. 야곱서 2:18~19 참조.
12. 고린도전서 6:19~20; 갈라디아서 5:16~25; 데살로니가전서 4:3~7; 디모데후서 2:22 참조.
13. 야곱서 2:12~16, 20~21 참조.
14. 모로나이서 7:33.
15. 니파이후서 10:24.
16. 교리와 성약 1:16.
17. 모세서 6:51~52.
18. 엘마서 26:12.
19. 고린도전서 10:13.
20. 히브리서 2:18.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틀간의 대회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영감에 찬 음악과 아름다운 기도로 고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빛과 진리의 메시지로 교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대회 동안 듣고 느낀 것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든,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과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점검해 볼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일컫는 이사야의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즐거운 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식일의 즐거움을 수년 전 바쁜 외과 전문의 시절에, 안식일이 개인적인 치유의 날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저는 손이 아팠는데, 비누와 물과 땀뻣한 솔로 반복적으로 문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쁘고 고된 일에서 숨고를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일요일은 제게 몹시도 필요했던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²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께서는 우리가 안식일,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은 오락이나 일상의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쉬며 신체적 영적 안식을 찾으라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Sabbath)이란 말은 “휴식”을 뜻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세상이 창조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께서서는 6일간 일하신 후에 창조의 일을 쉬셨습니다.³ 나중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하실 때 그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에 안식일은 주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⁵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영원한 성약으로서 주어졌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⁶

이에 덧붙여, 현재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합니다.⁷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성약을 다시 한번 맺었습니다.⁸

구주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⁹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¹⁰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¹¹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¹²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교리는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이 후기에, 약속이 담긴 새로운 성약의 일부로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법령의 힘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

그리고 이 날에는 …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네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만큼, … 땅의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라.]”¹³

이 말씀의 범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땅의 충만한 것을 약속받습니다.¹⁴ 이사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른 것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서 성찬을 취하고 부름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 외에 또 어떤 활동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어떤 표징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안식일은 가족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훌륭한 기회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로서, 조상과 후손에게 인봉된 가족으로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¹⁵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은 매우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¹⁶

여러 해 전에 제일회장단은 가족과 보내는 단란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자녀들이 교회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해 줄 복음 원리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가정을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도록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부여된 임무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¹⁷

이 권고를 상고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 번 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집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가족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해 주는 훌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LDS.org, Mormon.org, 성경 비디오, 물론 채널, 미디어 자료실, 리야호나를 비롯해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의롭고도 의식적인 양육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 이는 너희가 …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¹⁸

그러한 복음 공부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듭니다. 이 약속은 가족 규모나 구성, 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은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여러분보다 먼저 살다 간 가족들을 조사하고 찾는 일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사랑하는 아내 웬디는 가족 역사 조사 방법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도가 처음에는 더뎠지만, 아내는 조금씩 이 신성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보다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로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 가족 역사 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기기를 쓰면, 의식이 집행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 그들이 영옥에서 풀려나게 해 줌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십시오!¹⁹

다른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 또는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십시오.²⁰ 그들의 영을 고양시키면서 여러분 또한 고양될 것입니다.

이사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말했다고 할 때, 그는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 하여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²¹

안식일에 “자신의 오락”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다른 날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은 다른 날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십일조를 바치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돌려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7일 중의 하루를 그분의 날로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빌려 주시는 그분께 돈과 시간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²²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안식일에 대한

사랑이 싹트며, 안식일에 대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안식일은 진실로 즐거운 날입니다.

자, 이제 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²³ 진실로 믿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모로나이가 물론경을 마치면서 남긴 작별의 애원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²⁴

제 가슴 속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의 기도이자 간증이자 축복으로서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깁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58:13.
2. 마가복음 2:27.
3. 창세기 2:2~3 참조.

4. 출애굽기 20:8; 또한 신명기 5:12; 모사이야서 13:16; 18:23 참조.
5. 신명기 5:14~15 참조. 일주일에 7일을 일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 또는 어쩌면 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노예인 셈이다.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백만장자는 부유한 노예이다.
6. 출애굽기 31:13, 16 참조.
7. 교리와 성약 59:12 참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셨다. (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고대 미대륙 백성에게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는 성찬을 제정하시고(제3니파이 18: 5~12; 모로나이사서 4:1~3; 5:2 참조) 현대에 그것을 회복하셨다.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성찬을 취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침례 시에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20:68 참조)
8. 교리와 성약 20:37, 77 참조.
9. 마태복음 12:8; 마가복음 2:28; 누가복음 6:5 참조.
10. 출애굽기 31:13; 레위기 19:3, 30; 26:2; 교리와 성약 68:29 참조.
11. 에스겔 20:20; 44:24 참조.
12. 출애굽기 31:13; 에스겔 20:12, 20 참조.
13. 교리와 성약 59:9~10, 13, 15~16.
14. 레위기 26:2~4 참조.
15. 교리와 성약 128:15~18 참조.
16. 교리와 성약 68:25; 강조체 추가; 또한 모세서 6:58~62 참조.
17.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1.4.1에서 인용.
18. 교리와 성약 88:77~78.
19. 이사야 61:1; 교리와 성약 128:22; 138:57~59 참조.
20. 마태복음 25:35~40 참조.
21. 이사야 58:13~14; 강조체 추가.
22. 모사이야서 2:21 참조.
23. 디모데전서 4:12 참조.
24. 모로나이사서 10:32~33 참조.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119) 당시 장로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이 닐 엘 앤더슨에게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한다. 태국의 한 부부의 신앙은 남편이 마비된 후에도 강하게 지속되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만난 후, 두 후기 성도 부부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54) 한 인디언 남성이 의사에게 자신이 춤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의사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46) 어렸을 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는 가게 창문을 깨뜨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까봐 두려웠다.
린다 케이 버튼	(29)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당에 설치한 끈으로 만든 울타리 안에 머문다면 안전하리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한 자매가 남편과 함께 영을 맞이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다.
제럴드 코세	(98) 파리에서 22년을 산 코세 가족은 여태껏 에펠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세 명의 아프리카 남성이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내고 물몬경 몇 권을 받기 위해 480km 이상을 걸어 갔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50)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은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성을 격려하고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36)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난 일곱 살 소녀가 먼 발치에 있는 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서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달한다.
쿠엔틴 엘 쿡	(62) 쿠엔틴 엘 쿡의 삼촌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다. 한 사모아인 교회 회원이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 내서 기도하고자 의사를 만난다.
첼렐 에이 에스플린	(8) 첼렐 에이 에스플린은 자매들이 진리와 성신이 가정과 가족에게 악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배운 모임에 참석한다. 첼렐 에이 에스플린의 외증조부의 누나가 간증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강한 느낌을 받는다.
헨리 비 아이어링	(17) 성신이 사고로 죽은 어린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에게 위안과 힘을 준다. (22) 헨리 비 아이어링은 자신의 금식 헌금이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바누아투의 성도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축복받았다고 느낀다. 한 자매가 시에라리온의 내전 중에 자신과 다른 교회 회원들을 지탱시켜준 금식 헌금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 (84) 헨리 비 아이어링이 13살 때 금식 헌금을 모으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헨리 비 아이어링은 다친 아이가 살 수 있게 축복하라는 영감을 받는다. 성신은 시한부 삶을 살던 한 남성에게 부름을 통해 봉사하고 감동이 진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래리 엠 김슨	(77) 래리 엠 김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원한 운명에 대해 상기시켜주고자 은화 한 닢을 준다. 래리 엠 김슨은 아들들과 함께 19시간 동안 80km를 걸었다.
제프리 알 홀랜드	(104) 한 젊은이가 협곡 벽에서 형의 손목을 잡아 끌어올려 형의 목숨을 구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88) 집사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은 성찬을 아픈 형제에게 갖다주면서 축복받았다고 느낀다. 토마스 에스 몬슨은 마틴 해리스의 묘소를 방문한 후 물몬경에 대한 애정을 키운다.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토마스 에스 몬슨은 친구에게 신권 축복을 주어 그를 낫게 한다. (91) 자신의 선교 임지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성전에서 기도한 한 젊은이는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로부터 확신을 받는다.
브렌트 에이치 닐슨	(101) 브렌트 에이치 닐슨과 그의 가족은 저활동이 된 가족에게 인내하며 사랑을 보여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보니 엘 오스카슨	(14) 1850년에 이탈리아의 한 소녀가 폭도들에 맞섰다. 보니 엘 오스카슨의 딸은 자녀의 학교에서 엄마의 역할을 옹호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26) 보이드 케이 패커는 나중에 아내가 된 도나 스미스에게 쿠키를 받고 키스받기 위해 대학교 강의실 밖에서 기다린다.
케빈 더블유 피어슨	(114)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끝까지 충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케빈 더블유 피어슨은 선교부 회장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직장을 떠난다.
라파엘 이 피노	(117) 라파엘 이 피노의 자녀들은 TV 프로그램과 퍼즐 맞추기에서 관점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한 소년이 미켈란젤로에게 대리석 덩어리로 다비드를 만들어 내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데일 지 랜랜드	(56) 남아프리카의 한 어머니가 딸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한 선교사가 영감을 통해 동반자에게 인내하게 된다.
마이클 티 링우드	(59) 마이클 티 링우드는 선교 사업과 세미나리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 대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배운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70) 집사 한 명이 반원들에게 외설물에 대해 경고한다. 울리세스 소아레스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악은 제자들의 간증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못함을 배운다.
조셉 더블유 시타티	(126) 조셉 더블유 시타티는 훌륭한 교육을 추구했기에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역량을 얻을 수 있었다.
캐롤 엠 스티븐스	(11) 캐롤 엠 스티븐스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미국 애리조나의 한 인디언 자매를 방문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80) 러시아의 한 총독은 방문한 외국 대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농부들을 배치하고 상점의 외관을 조립한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성역에 초점을 맞춘 목표를 세운다.
로즈메리 엠 워슨	(93) 한 저활동 자매가 복음을 공부하고 물몬경을 읽으며 가족과 워드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신앙의 불을 다시 지핀다.
조지 에프 제블로즈	(123) 조지 에프 제블로즈는 12살 때 아버지의 허락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충실한 부부가 자신의 아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다음 활동과 질문을 활용하여 가족 토론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함으로써, 연차 대회에서 받은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린이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자신의 집 근처의 가게의 유리창을 실수로 깨뜨린 후 감옥에 가게 될까 봐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했다.(46쪽) 그런 후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를 때 두려움 대신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자녀들이 구주를 바라보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녀들이 시련이 닥칠 때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마당 주위에 울타리가 없는 새 집으로 이사간 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29쪽) 아버지가 마당 경계선을 따라 줄로 울타리를 만들었고 자녀들에게 울타리 안에 머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공이 울타리 경계 밖으로 넘어갔어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주셨는가?

- 감리 감독단 제 1보좌인 제럴드 코세 감독은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진흙탕 길을 2주간 걸은 세 명의 아프리카인 성도에 대해 이야기했다.(98쪽)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찬양식에 참석하기 위해 1주일간 머물렀다. 그런 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물물경을 가득 담은 상자를 머리에 이고 갔다. 여러분은 복음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복음대로 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기꺼이 하겠는가?

청소년

-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차 대회가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스 자매는 교회 회원들에게 “가정이 성전 다음으로 성스러운 곳이 되도록 가정을 수호”(14쪽)하도록 권고했다.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정이 성스러운 곳이 될 수 있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안식일에 보이는 행동과 태도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임을 가르쳤다.(129쪽) 넬슨 장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대해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라고 자문할 수 있다.
- 칠십인 정원회의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모로나이 대장의 모범을 따른 집사에 대해 이야기했다.(70쪽) 반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외설물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한 한 청남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 친구는 그만두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즐기기엔 안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전자 기기로 방대한 정보와 매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대단한 능력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전자 기기가 여러분을 조종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가? 칠십인 정원회의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는 “전자 기기를 한동안 내려놓[으면] ...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라고 말했다.(96쪽) 한 번 시도해 보라! 조만간 날을 잡아서 하루 종일 전자 기기 없이 지내 보는 것이다. 전자 기기 없이 지내는 게 정말 싫었지만, 오히려 친구와 가족과 이야기하고 추억을

쌓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 금식은 영적인 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최고의 방법이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금식과 기도가 예수님을 강화시켜 그분이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상기시킨다.(22쪽) 다음 주 금식일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목적을 갖고 금식을 해 보자. 신성한 도움을 받고 보호까지 받을 것이다.

성인

- 몇 명의 연차 대회 연사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31쪽에서 버튼 자매가 물어본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서로를 더 잘 지지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영성, 평화,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힘을 비롯해 성전 예배를 통해 오는 축복을 상기시켜 주었다.(91쪽)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 참여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느낌보다 뛰어난 차원의 평안한 느낌과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성전 참여를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동 원리이다. 칠십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우연히

기도하거나 십일조를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연히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 또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36쪽) 클레이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32쪽),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로즈메리 엠 워섬 자매(93쪽), 제럴드 코세 감독(98쪽), 칠십인 정원회의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114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작성해 본다. 그런 후 강화된 신앙을 통해 오는 약속된 축복의 목록을 작성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구주의 속죄와 부활에는 “세계 역사상 … 유례없는 가장 위대하며 고귀한 사랑의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디]”고 가르쳤다.(104쪽)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으로 구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는가?
-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자비의 기적같은 은사와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107쪽) 로마서 3:23, 6:1~4, 니파이후서 25:23, 26, 모사이아서 2:21, 5:2, 27:25, 엘마서 35:10, 15, 이터서 12:27, 모로나이서 10:32을 읽으면서 자비에 대해 계속 공부해 본다. ■





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전에 가려면 거의 하루 종일 여행을 해야 한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성전

코트디부아르의 인구는 대략 이천만 명이며 그중에 27,000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있다. 선교 사업은 198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가나 아크라 성전이며 55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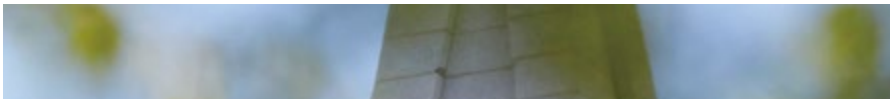
태국 방콕 성전

태국 인구는 대략 육천칠백만 명이며 그중에 약 19,000명의 후기 성도들이 있다. 교회는 1966년에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태국 방콕 성전은 태국에 있는 후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남 아시아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이용하게 된다. 현재 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은 중국 홍콩 성전이며 1,61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추가 성전 소식

2015년에 다섯 곳의 성전을 위한 일반 공개, 문화 축제 및 성전 시작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이곳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미국 유타주 페이슨, 페루 트루히요,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멕시코 티화나이다. 개조된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또한 2015년에 재헌납될 것이다.

지난 2년간 교회는 이전에 발표된 성전을 완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세 곳의 성전에 더하여 144곳의 성전이 운영 중이고, 다섯 곳의 성전이 보수 중이며, 13곳의 성전이 건축 중이고, 이전에 발표된 여러 나라의 13곳의 성전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단계에 놓여 있다. ■



세 곳의 성전이 발표됨

도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그리고 태국 방콕을 위한 성전 계획을 발표했다. 세 곳 모두 각 나라에 첫 번째로 지어지게 되는 성전이다. 성전의 정확한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역과 성전들이 위치한, 전 세계에 있는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실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몬슨 회장은 말씀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성전

아이티에는 대략 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고 그중에 20,000명 이상의 후기 성도들이 있다. 선교 사업은 1980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성전이다. 비록 같은

새로 지지받은 지도자

다섯 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연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아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신입 총관리 역원은 김 비 클라크 장로, 앨런 디 헤이니 장로, 폰 지 키치 장로, 휴고 몬토야 장로, 번 피 스탠필 장로이다.

본부 청남 회장단도 개편되어 지지를 받았다. 회장은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 제1보좌는 더글러스 디 홈스 형제, 제2보좌는 엠 조셉 브로 형제이다.

본부 초등회의 새로운 보좌도 지지를 받았다. 메리 알 더럼 자매가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로즈메리 엠 워쇼 자매가 계속 회장으로 봉사하고, 제2보좌로 봉사했던 쉐릴 에이 에스플린 자매가 제1보좌로 봉사하게 되었다.

새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의 약력은 140~144쪽에서 볼 수 있다. ■



바티칸 수뇌 회담에 참석한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2014년 11월 18일에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시티에서 주최한 국제 다종교 수뇌 회담에 참석해 “행복한 결혼의 르네상스”를 촉구했다. “The Complementarity of Man and Woman(남녀의 상보성)”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23개국에서 14개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으로 단합된 남녀에게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일구어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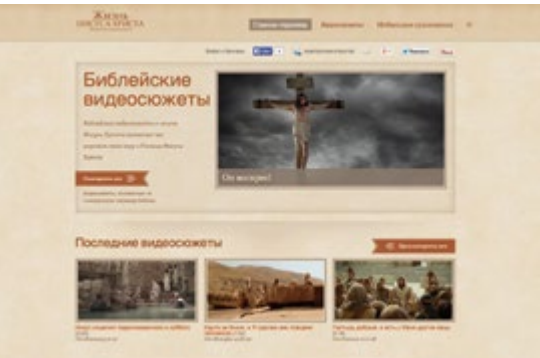
110개의 언어로 된 몰몬경

최근에 코스라에어로 출판이 됨에 따라 몰몬경은 이제 11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코스라에는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에 있는 섬이다.

인쇄된 코스라에어 몰몬경은 2015년 7월에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 버전은 LDS.org와 Gospel Library 그리고 몰몬경 모바일 앱에서 3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서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인쇄소에 보내는 같은 시간에 경전의 디지털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이 새로 번역된 경전을 훨씬 더 일찍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향후 2년 동안 몇 가지 새로운 경전 번역이 발표될 것이다. 새로운 세 언어로 번역된 몰몬경과 추가적으로 다섯 언어로 번역된 합본(몰몬경,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한 권으로 묶은)이 2015년 내에 출판될 것이다. 디지털 버전이 출시되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통보해 줄 것이다. ■





성경 비디오로 신앙을 강화함

여러분은 BibleVideos.org와 성경 비디오 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를 시청하고 나눔으로써 올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자료들은 구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가능한 한 널리 나누고, 보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영감을 줘서,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길 원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교회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3년간 92편의 성경 비디오를 교회에서 제작했는데 절반 이상이 영어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및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

베드나 장로 부부와 함께 하는 질의응답

전 세계 청소년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부인인 수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일대일 질의응답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다.

청소년들은 2015년 5월 12일 산악 여름 시간으로 오후 6시에 LDS.org, LDS 청소년 페이스북 페이지, Youth Activities 사이트(lds.org/youth/activities), 또는 물론 채널 유튜브 페이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쌍방향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및 중국어로 통역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행사 전이나 도중에 Youth Activities 사이트에서 질문을 제출할 수 있고 #ldsface2face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할 때 어떤 질문을 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영의 인도를 구하도록 권고합니다.”라고 베드나 장로는 말했다.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청년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

칠 십인 회장단의 린 지 로빈스 장로가 2015년 5월 3일 일요일 산악 여름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방송될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말씀하게 된다. 이 방송은 2015년에 계획된 세 차례의 전 세계 영적 모임 중 두 번째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모든 청년 성인

(18~30세)과 고등학교나 이에 상응하는 과정을 마칠 예정인 사람이 참석하도록 초대된다. 이 모임은 또한 교회 위성 시스템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영적 모임에 기초한 추가 자료 또한 devotionals.lds.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웹사이트의 봉사 특집 기사

후 기 성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더 좋아지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MormonNewsroom.org로 가서 알아본다. 다음은 최근에 국제 뉴스룸 웹사이트에 올라온 몇 가지 사례이다.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사이클론 팜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를 강타했을 때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후기 성도들은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폭풍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성도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돕기 위해 식료품 2,000 상자를 포장했다. 각각의 식료품 상자는 밀가루, 쌀, 과일 통조림, 콩, 쇠고기 통조림, 생선, 크래커, 건포도, 면류, 초콜릿 분유, 깡통

따개로 가득 채웠다. 식료품 상자는 물을 담은 등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과 캐나다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은 국제연합이 후원하는 행사인 국제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여했다. 1,200명이 넘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집회소에 모여 세상에서 많은 공헌을 하는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종교계, 시민사회, 군 지도자들이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 순서에는 음악과 연설도 있었다. 캐나다에서 또한 후기 성도 여성들이 상호부조회란 “지구촌 곳곳에서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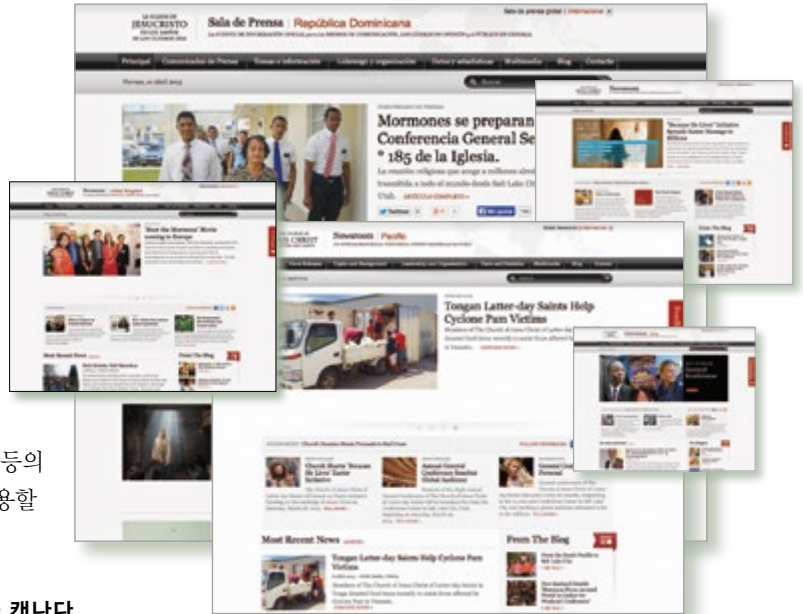
단체”라고 강조하며 상호부조회에 대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이 날을 기념했다.

영국

당초의 목적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100벌의 옷을 바느질하는 것이었으나, 영국 코벤트리 와드의 여성들은 총 230벌 이상이나 만들었다. 베갯잇으로 만든 단순한 옷은 제작하기가 매우 쉽다. 이전에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었던 한 자매도 3벌을 만들 수 있었다.

미국, 아칸소 주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아칸소 리틀록 스테이크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주최한 지역사회 다종교 모임에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에는 가톨릭, 침례교, 이슬람교의 대표자와 복음주의 계열 라디오 진행자도 있었다. 이 다종교 행사에는 부지사가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주 상원의원이 폐회기도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침례교인이다. 행사 준비 위원들은 이 행사가 “이해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사용이 더 간편해진 LDS.org

LDS.org가 올해 5월에 새로운 메뉴 구조와 스트림라인 내비게이션(웹페이지간의 이동 및 검색의 효율성 증가)을 장착하고 교회의 지속적인 개선을 반영해, 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고 사용하기 쉽게 바뀌게 된다.

개발자와 설계자들은 이해하기 쉬운

메뉴를 만들기 위해 수년 간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더불어 많은 연구를 했다. 새로운 메뉴를 사용하면 한결 더 수월하게 내용물과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시험 과정에서 밝혀졌다.

회원들이 새로운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LDS.org의 둘러보기 동영상도 제공된다. ■



김 비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첫번째 시현 기록

조 셉 스미스가 직접 적은 네 권의 첫번째 시현 기록을 이제 10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첫번째 시현 기록은 josephsmithpapers.org에서 접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온라인 뷰어를 통해 또한 문서와 일지 원본을 접할 수 있다.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20 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는 201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씀에서 준비한다. 2015년 10월에는 2015년 4월이나 201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지방부 회장은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할지 선택하거나,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미리 선정된 말씀을 공부하도록 권유받는다. 대회 말씀은 conferenc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학 생과 교수로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경험은 김 브라이스 클라크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4월 4일에 지지를 받은 클라크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의 총장 임무를 마치고 몇 주 후에 봉사를 시작하게 된다.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섯 살 이후로 계속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1949년 3월 20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멀린 클라크와 헬렌 마 클라크의 세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는 11살 때 부친의 직장 때문에 워싱턴 주 스포캔으로 이사할 때까지 어린 시절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보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로 진학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뒤로 매사추세츠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게 되었다.

하버드에서 1학년을 마친 후 클라크 장로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독일 남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귀환한 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 복학했고 얼마 안 있어 그가 속한 와드에서 수 로레인 헌트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몇 달 뒤인 1971년 6월 14일에 결혼했다. 그들은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었다.

결혼하고 곧바로 두 사람은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이사했고 클라크 장로는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 등록했다. 거기서 그는 경제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클라크 장로는 1978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되었으며 1995년에는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2005년에는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총장으로 임명되어 거의 10년 동안 봉사했다.

클라크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집행서기, 감독단 보좌,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의 보좌,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앨런 디 헤이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앨런 테커 헤이니 장로는 2015년 4월 4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를 받았다.

헤이니 장로는 반 로이드 헤이니와 새라 톨루 루이스 헤이니 사이에서 1958년 8월 29일에 태어났다.

그는 유타 주 로건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기의 많은 시간을 북부 유타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여러 도시에서 보냈다. 그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 다섯 곳, 중학교 두 곳을 다녔으며 고등학교는 유타 주 바운티폴에서 한 곳을 다녔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는데, 이는 해마다 사는 곳이 바뀌고 친구를 계속 다시 사귀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했던 점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가치와 경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헤이니 장로는 학업을 계속해 1985년에 같은 대학교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미국 제 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일년간 법률 서기로 일하다가 레이턴 앤드 와킨스 법률 회사에 합류해 샌디에이고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했다. 약 5년 전에 그는 독립해 친형제와 함께 법률 회사를 열었다.

헤이니 장로는 또한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청남 회장, 세미나리 교사, 고등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 재학 중에 데보라 루스 홀을 만나 1983년 12월 1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자기 간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음이 뭉클해진 헤이니 장로는 자신이 12살 때 처음으로 물문경을 읽고 물문경에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믿지 않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기억도 없구요.” ■



폰 지 키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폰 지 키치 장로가 미국 대법원에서 워런 이 버거 대법원장과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마치고 개업 변호사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일생을 크게 바꾼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수많은 대형 법률 회사에 채용되어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건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와 아내인 버니스 핼 키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영감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한동안 이렇게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은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 커튼 맥콩키 법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키치 장로는 가족 가까이 있기 위해서 최신의 법률 사건을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희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외부 법률 수석 고문으로서 키치 장로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관련 쟁점과 판례 사건들을 다루게 되었다. 그는 자국에서 거의 모든 주요 종파를 대표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큰 고객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큰 쟁점을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는 1960년 3월 17일에 유타 주 프로보에서 그레이 키치와 디앤 키치의 네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유타 주 오렘에 살다가 유타 주 플레전트그로브로 이사했으며, 거기서 그는 장래의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 세미나리 평의회에서 봉사했다.

키치 장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는 버니스 핼과 1981년 11월 2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고 여섯 자녀를 두었다. 키치 장로는 1984년에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7년에는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 후로 키치 장로는 감독단 보좌,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다가 2015년 4월 4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지지를 받았다. ■



휴고 몬토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휴고 몬토야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았을 때 당연하게도 부담감으로 압도되었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총관리 역원들을 위한 훈련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하신 다음과 같은 친절함 말씀으로 위안을 얻었다. “여러분은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몬토야 장로는 자신의 새로운 부름으로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저는 구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라고 명하신 어느 곳이든지 갈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하라고 명하신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며, 말씀하라고 명하신 무슨 말이든지 말할 것입니다.” 몬토야 장로는 교회의 제185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지지받았다.

몬토야 장로는 또한 가족의 신앙의 유산에서 힘을 얻는다. 그의 증조부인 라파엘 몬로이는 멕시코 교회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1915년 몬로이 형제와 동료 회원인 비센트 모랄레스는 멕시코 혁명 중에 혁명가 무리들에게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다른 요구 조건들 중에 그들의 종교를 부인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거부했고 총살을 당했다.

몬토야 장로는 그의 증조부의 모범이 그의 생애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두려움 감정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신앙과 간증의 감정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몬토야 장로는 1960년 4월 2일 캘리포니아 프레스노에서 아벨 몬토야와 마클로비아 몬로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다.

그는 에르모시요에서 마리아 델 카르멘 발바스트로와 결혼했으며 1983년 4월 6일 아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은 슬하에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멕시코시티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워드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감사자 그리고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그는 1986년에 농업 공학 학위로 소노라 주립 대학을 졸업했고, 제록스에서 여러 관리직으로 일했으며, 교회 교육 기구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



번 피 스탠필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번 페리 스탠필 장로는 우연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다. 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는 이생에서의 만남이 있으며,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 마음을 움직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스탠필 장로는 복음 안에서 특히 직접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

1957년 8월 8일에 제드 스탠필과 페기 스탠필 사이에서 태어난 스탠필 장로는 몬태나 타운센드 부근의 소 방목장에서 성장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웠다. 네 자녀 중 셋째였던 스탠필 장로는 위로 형이 둘, 아래로 여동생이 있으며, 모두 다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해 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생활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전임 선교사 봉사를 마치고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위를 받은 후에 그는 앨리시야 콕스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80년 12월 17일에 슬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졸업 후에 스탠필 부부는 몬태나로 돌아가서 소와 건조, 곡물 운영을 다루면서 가족 목장의 관리를 도울 수 있었다. 그는 1998년에 사업을 매각했고, 자선 관계 및 사유재산 업무를 조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금융 상품을 위주로 사업을 시작했다.

스탠필 장로는 사업과 취미로 비행과 관련을 맺었으며 상업용 고정익 면허와 회전익 면허를 모두 갖고 있다.

아내와 함께 네 딸을 키우는 한편으로 스탠필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제일 정원회에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는 칠십인 제육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



메리 알 더럼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결 혼 생활 내내 가정 일, 교회 부름, 직장 및 기타 책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매리 리차즈 더럼은 자신과 남편이 주님을 우선으로 둘 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여러 번 보아온 광경이다. 그녀는 남편이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와드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후에 그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남편이 일본 동경 선교부를 감리했을 때 함께 봉사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를 시작할 때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명어를 뿜 때 모든 것은 더 쉬워집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매리 루실 리차즈는 1954년 3월 15일에 버지니아 포츠머스에서 스티븐 리차즈 이세와 아네트 리차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 아버지가 의학 박사 학위를 따는 동안 가족은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로 이사를 했으며, 그 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정착했다.

그녀 부모와 많은 확대 가족의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된 그녀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밌었어요”라고 더럼 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청년였을 때 합당한 청남을 찾아 결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와 매주 금식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댄스 장학금으로 브리검 영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당시 유타 대학에 다니고 있던 마크 더럼을 만났다. “저는 즉시 그의 선함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두 사람은 1974년 6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일곱 자녀를 두었다.

더럼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복음 교리반 교사, 와드 청녀 회장으로 봉사했고, 가장 최근엔 본부 초등회 임원으로 봉사했다. ■



스티븐 더블유 오언

본부 청남 회장

스 티븐 더블유 오언이 14세였을 때 이웃 사람이 매주 자신의 넓은 정원의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하려고 그를 고용했다. “잔디를 깎는 데 3일이나 걸렸어요.”라고 오언 형제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2015년 4월 4일 본부 청남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어린 스티븐이 마침내 일을 마치면 그의 현명한 고용인은 그를 데리고 정원을 걸으면서 미처 뽑지 못한 잡초 한두 개를 지적했다.

“그는 내가 모든 잡초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언 형제는 말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일이었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언 형제는 그 해에 단지 잔디를 깎고 정원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그 교훈 중의 한 가지는 만족이란 어려운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행할 때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스승의 가치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 이웃은 스티븐에게서 가장 좋은 것만을 기대했다. “그가 세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니까 너를 돕고 싶단다.’”

교회 모든 청남은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기가 그들의 남은 생애를 위한 생활 방식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때임을 압니다.”

오언 형제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후에 소년단 대장, 와드 청남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유타 주 홀러데이 출신인 그는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를 감리했는데 그곳에서 아내인 제인 스트링검 오언과 함께 봉사했다. 두 사람은 1979년 12월 28일에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1958년 3월 22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든 오언과 캐롤린 오언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타 대학에서 재정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고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Great Harvest Bread 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



더글러스 디 홈스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이 세대의 청소년들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큰 순종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의 일부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2015년 4월 4일에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로 지지받은 더글러스 디 홈스 형제가 말했다.

홈스 형제는 1961년 2월 27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디 더블유 홈스와 멜바 호웰 홈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유타 주 코튼우드 하이츠에서 성장했다.

홈스 형제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1986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가족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계속해서 메리어트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졸업한 후 그는 3년 동안 경영 자문 일을 했으며 그후 미디어 원 그룹에서 전략 및 기업 개발 부사장이 되어 통신 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2000년부터 2010년에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2013년부터 그는 투자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영업에 종사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시간과 재능을 비영리 조직에 바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유타 주 United Way of Davis County; Parents for Choice in Education; the Safe Harbor Women's Shelter in Davis County; the Academy for Creating Enterprise 등의 단체에서 이사로 봉사했다.

그는 와드 선교 책임자, 와드 청남 회장, 감독 그리고 가장 최근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시간 디트로이트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에린 수 투니와 1985년 6월 22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여섯 자녀의 부모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말씀의 권능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일 수도 있고, 경전이나 성신의 속삭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홈스 형제는 말했다. ■



엠 조셉 브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엠 조셉 브로 형제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센트럴 선교부에서 회장으로 봉사했던 3년(2011~2014) 동안 부친과 장인을 여의었다.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룰 수도 있었지만, 부부는 두 경우 모두 다 과테말라에 남아 계속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 머물고 최선을 다해 일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5년 4월 4일에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은 브로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장인 어른과 제 부친께서도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다고 믿습니다.”

브로 형제는 1963년 12월 11일에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몬티 게이 브로와 에이다 비 브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청소년 시절을 유타 주의 파밍턴과 와이오밍 주의 로버트슨에서 보냈다. 훗날 칠십인으로 봉사하게 되었던 조셉의 부친이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족이 미네소타로 이사를 했다. 부친이 선교부 회장 봉사를 마쳤을 때 조셉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 대신에 조셉은 고등학교 검정 시험에 합격했고 곧바로 유타 주 옥든의 웨버 주립대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4년간의 세미나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장래의 부인인 에밀리 제인 톰슨을 만난 것은 데이비스 고등학교에서 세미나리를 참석할 때였다. 두 사람은 1985년 4월 25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일곱 자녀를 두었다.

결혼하기 전에 브로 형제는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의 선교부 회장이었던 호르헤 에이치 페레스 형제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였다”고 그는 말했다.

유타 로테이션널 몰딩의 설립자이며 소유자인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재정학으로 학사 학위를, 기업 경영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교회에서 그는 감독, 와드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했다. ■



주님 앞에, 아넷트 에버레트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귀한 말씀 감사하네
당신의 영 심금치면
내 영 떨려 노래하네
즐거운 말씀 나 들으오니
주여 날 인도해 주옵소서
인내로써 내 일 다해
그 말씀과 하나 되리
(찬송가, 100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의 제185차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전 예배의 영을 지니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정성스럽게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